

#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통계분석 발표

2019. 10. 31 오후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공동주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크리스찬아카데미  
대한기독교서회



# 포럼 순서

환영 인사 (2:00-2:20)

채수일 이사장 (크리스찬 아카데미)  
김영주 원장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 소개 (2:20-2:30)

신익상 박사 (본 연구 책임연구원)

## 세션 1. 정치, 경제 및 통일 분야 (2:30-3:30)

발제 1. 정치 분야

이상철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발제 2. 경제 분야

박재형 박사 (한국민중신학회 총무)

발제 3. 통일 및 남북관계

김상덕 박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논찬

이삼열 박사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최현종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휴식 (3:30-3:45)

## 세션 2. 신앙, 환경 및 사회(젠더) (3:45-4:30)

발제 4. 신앙 및 환경

신익상 박사 (성공회대학교)

논찬 5. 사회(젠더)

송진순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논찬

정경일 박사 (새길기독교사회문화원 원장)  
장혜경 박사 (서울여성정책연구원)

전체토론 (4:30-4:50)

광고 (4:50-5:00)



# 목 차

## 연구보고서

연 구 개 요 .....	7
한국개신교의 정치의식에 대한 보고서: 극우정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17
한국 개신교인의 경제의식에 관한 보고서 .....	25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 통일 및 평화 분야 .....	33
2019년, 한국 개신교인의 신앙관과 생태위기에 관한 인식 조사 .....	41
2019년 개신교인의 젠더 인식 .....	51

## 논 찬

논 찬 1. 이삼열 박사 .....	60
논 찬 2. 최현종 박사 .....	62
논 찬 3. 정경일 박사 .....	64
논 찬 4. 장혜경 박사 .....	67

## 부 록

부 록 1. 설문응답 및 그래프 .....	73
부 록 2. 설 문 지 .....	157



# 제 1 부. 연구 개요

---







#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 1. 연구사업 목적 및 지향

(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급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들 가운데 특별히 개신교계에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그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 현황을 조사하고 동시에 비개신교인의 인식과 비교함으로써, 일부 개신교 진영으로부터 촉발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개신교인의 신앙 및 종교 생활 정도가 동시대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묻고자 정치, 경제, 사회(젠더), 통일 및 남북관계, 환경 등의 분야에 걸쳐 그들의 사회인식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개신교인 1,000명과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연령, 성별, 지역, 소득/계층, 종교 및 신앙의 정도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다종교 및 다원화 사회인 대한민국의 특성에 따라, 개신교를 포함한 주요 종단 종교인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혀내고 그 원인을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갈등의 실체를 밝혀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 화해와 상생을 위해 개신교와 개신교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을 제시하고 변화된 사회적 상황 가운데 개신교와 개신교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2. 연구진

- ◎ 책임연구원: 신익상 박사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김상덕 박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 ◎ 연구원: 이상철 박사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한신대학교 겸임교수)  
박재형 박사 (한국민중신학회 총무)  
송진순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 3. 조사 설계

구분	개신교인 조사	비개신교인 조사
조사 대상자	20세 이상 개신교인	20세 이상 비개신교인
조사 지역	전 국	
표본 크기	1000	1000
조사 방법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 방법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인구 기준(센서스 결과) 비례할당 추출	지역/성/연령별 비개신교인 인구 기준(센서스 결과) 비례할당 추출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1\%$	
조사 기간	7월 8일 ~ 7월 19일	

### 4. 자료입력 및 분석

#### ○ 자료검증

- 입력된 자료는 검증원이 검사하여, 검증 시스템 기준에 따라 불성실 응답 설문 제외
- 입력된 자료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내검 프로그램에 의해 2차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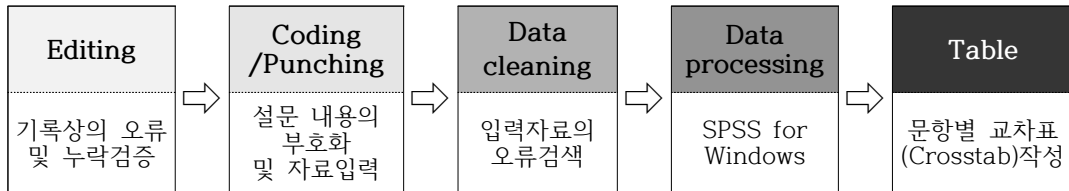
#### ○ 다단계 검증과정에서 최종 합격된 자료를 SPSS for Windows(통계 패키지 프로그램)를 이용해 전산처리

#### ○ 분석방법

- 열(Row)에 따라 모든 백분율(%) 산출
- 중복응답의 경우, 카테고리의 사례수를 전체 사례수에 근거하여 백분율 산출
- 자료는 기본적인 응답자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교차분석
- 가중치 부여: 온라인조사 특성 상 화이트칼라 직업군이 많아, 직업에 따른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함

○ 자료해석상의 유의점

- 표본조사는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례수의 관찰치(Observed Percentage)에 따른 표본오차(Sampling Error)를 고려해야 함



5. 설문조사 수행기관

- (주)지앤컴리서치
- 책임연구원 : 지용근 대표이사
- 담당연구원 : 김진양, 송예슬
- www.jicom.co.kr (02-322-0726)

## 6. 응답자 특성

### 1) 개신교인

[전 체]		사례수	%
		(1000)	100.0
성별	남자	(440)	44.0
	여자	(560)	56.0
연령	20-29세	(160)	16.0
	30-39세	(208)	20.8
	40-49세	(251)	25.1
	50-59세	(230)	23.0
	60-69세	(151)	15.1
지역	서울	(249)	24.9
	경기/인천	(349)	34.9
	충청	(102)	10.2
	광주/전라	(114)	11.4
	대구/경북	(64)	6.4
	부산/울산/경남	(89)	8.9
	강원/제주	(33)	3.3
직업	자영업	(122)	12.2
	블루칼라	(155)	15.5
	화이트칼라	(302)	30.2
	전업주부	(252)	25.2
	학생	(78)	7.8
	기타/무직	(91)	9.1
결혼여부	기혼	(703)	70.3
	미혼	(268)	26.8
	기타(이혼, 사별 등)	(29)	2.9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62)	26.2
	300~500만원 미만	(380)	38.0
	500~700만원 미만	(197)	19.7
	700만원 이상	(162)	16.2
직분	목회자	(28)	2.8
	중직자	(140)	14.0
	서리집사/권찰	(296)	29.6
	직분없는 성도	(536)	53.6
예배참석빈도	일주일예 3회 이상	(152)	15.2
	일주일예 1-2회	(524)	52.4
	한달예 3회 이하	(226)	22.6
	교회 안나감	(97)	9.7
교인수	100명 미만	(219)	21.9
	100~299명	(207)	20.7
	300~999명	(238)	23.8
	1000명 이상	(336)	33.6

## 2) 비개신교인

[전 체]		사례수	%
		(1000)	100.0
성별	남자	(442)	44.2
	여자	(558)	55.8
연령	20-29세	(162)	16.2
	30-39세	(208)	20.8
	40-49세	(249)	24.9
	50-59세	(230)	23.0
	60-69세	(151)	15.1
지역	서울	(249)	24.9
	경기/인천	(349)	34.9
	충청	(102)	10.2
	광주/전라	(112)	11.2
	대구/경북	(66)	6.6
	부산/울산/경남	(89)	8.9
	강원/제주	(33)	3.3
직업	자영업	(145)	14.5
	블루칼라	(138)	13.8
	화이트칼라	(328)	32.8
	전업주부	(200)	20.0
	학생	(65)	6.5
	기타/무직	(124)	12.4
종교	불교	(173)	17.3
	천주교	(274)	27.4
	기타	(26)	2.6
	무종교	(526)	52.6
결혼여부	기혼	(633)	63.3
	미혼	(337)	33.7
	기타(이혼,사별 등)	(30)	3.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58)	25.8
	300~500만원 미만	(375)	37.5
	500~700만원 미만	(195)	19.5
	700만원 이상	(172)	17.2



## 제 2 부. 연구 발표

---







## 한국개신교의 정치의식에 대한 보고서: 극우정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 상 철

(크리스찬아카데미/한신대학교)

### 1. 들어가며

촛불과 태극기로 확연하게 갈라진 광장의 풍경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바라볼 때 마다 나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더욱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한국개신교가 혐오와 배제의 매카니즘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극우정치의 배후라는 소문이다. 어쩌다 한국개신교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되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한국개신교는 진정 극우적인가? 우리는 어쩌면 한국개신교에 대한 별다른 정보와 근거 없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이런 물음과 문제의식에서 나는 본 연구단의 정치분야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과제를 수행해 가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한국개신교의 정치의식과 어떻게 조우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이 원고는 그 결과물중 일부라 할 수 있다.

연구단이 시행한 한국인의 사회의식 조사 중 정치분야 질문은 총 18문항이었다.<sup>1)</sup> 모든 문항에 대한 분석을 제한된 지면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여기서는 한국개신교와 극우정치와의 상관성에 포커스를 맞춰 글을 전개할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심층적인 보고서는 조만간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단행본으로 묶여서 나올 예정인데, 출판 이 후에 각론별로 한국인의 사회의식에 관한 신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분석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2. 정치분야 설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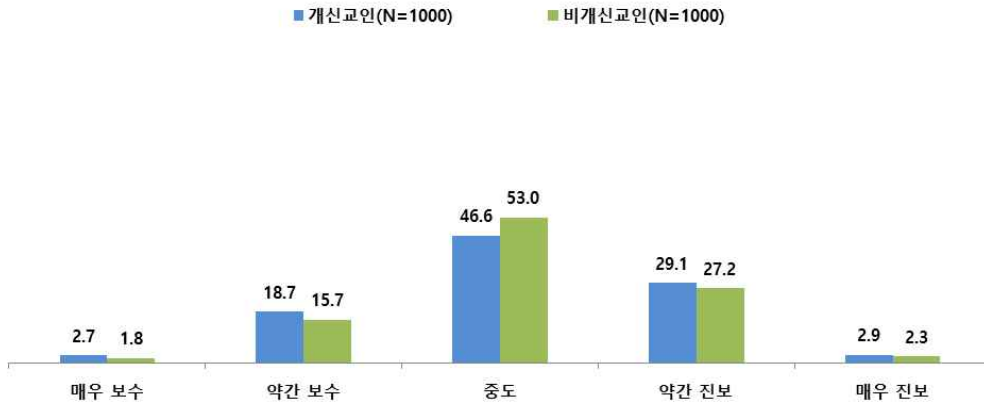
#### 1) 정치 성향: 중도-> 진보-> 보수 順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에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중도를 택한 비율이 과반 가까이에서 형성되

---

1) <정치 분야> 설문문항 18개: ① 정치성향, ②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 ③ 개헌 범위, ④ 통치 구조에 대한 의견, ⑤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의견, ⑥ 기본권의 주체 확대에 대한 의견, ⑦ 검찰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⑧ 사법부 개혁(특별재판부 구성 및 문제 법관 탄핵), ⑨ 난민에 대한 의견, ⑩ 건국절에 대한 의견, ⑪ 5.18 왜곡 금지법에 대한 의견, ⑫ 6.30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⑬ 남북미 정상회담 후 상황 예측, ⑭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견, ⑮ 전광훈 목사 '문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한 의견, ⑯ 전광훈 목사의 최근 언행에 대한 의견, ⑰ 태극기 부대 집회 참여 경험, ⑱ 기독교인의 태극기 부대 참여에 대한 의견

었다(개신교인:46.6%, 비개신교인:53.0%). 특이한 것은 50%를 기준으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이 ±3% 차이로 개신교인은 50%에 못 미치고, 비개신교인은 50%를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개신교인의 정치적 입장이 완고하고, 비개신교인들에 부동층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1]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의견

이는 두 주체가 보수와 진보를 택한 비율로 증명된다. 진보를 선택한 개신교인의 비율이 비개신교인의 비율보다 높았고, 보수를 고른 개신교인의 비율도 비개신교인들보다 높았다. 개신교인들 중에서 보수를 택한 응답자는 목회자(31.5%)가 높았고, 주3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29.4%)도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교회에 대한 충성심, 헌신도가 높을수록 보수적이다, 라는 단순한 판단이 나올수도 있겠는데, 주3회 이상 예배에 나가는 교인들 중 23.9%가 본인을 진보적이라 표시한 것으로 보면 단순한 수치 비교로 일반화 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든다.

## 2) 타자에 대한 정치적 감수성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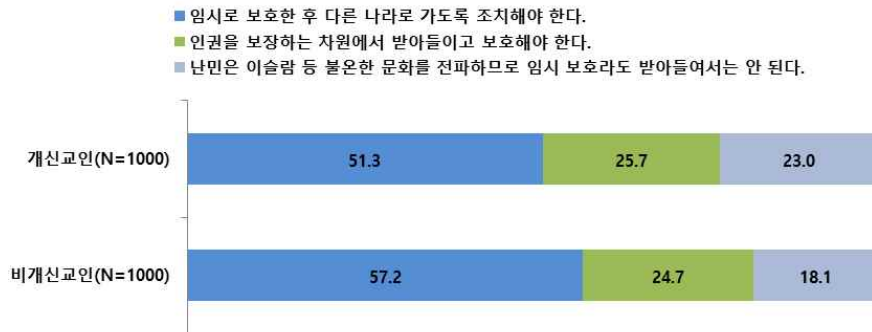
: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들보다 낮고, 20대 젊은층에서 난민에 대한 반감 두드러져

2018년 3월 청와대는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개신교인이 36.9% 찬성을 표시한데 비해, 비개신교인은 39.2%로 개신교인보다 2.3% 높게 나타났다. 반대를 선택한 비율도 개신교인( 25.5%)이 비개신교인(22.2%)의 경우보다 높았다.

기본권의 범위를 국민으로 한정시킨 것은 근대국민국가가 탄생할 무렵 형성된 국가주의의 잔재라 할 수 있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기본권을 확대한 것은 제한된 영토와 국민개념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의 정치에서 벗어나, 다인종, 다문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개신교인들이 비개신교인들에 비해 변화와 외부의 충격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난민’에 대한 반응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난민은 이슬람 등 불온한 문화를 전파하므로 임시 보호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답한 적극 반대층이 개신교인은 23.0%, 비개신교인은 18.1%로 나타났다. 5% 가까운 차이이다. 평화와 화해와 환대의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오히려 비신자보다 못한 타자에

대한 감수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일까. 유독 한국개신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개신교 일반의 현상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또한 요청된다.



[그림 2] 난민에 대한 의견

눈여겨보아야할 사항은 20대의 수치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반대가 가장 많았던 세대가 20대 개신교인(34%)이었다. 개신교 전체 반대 비율인 25.5% 보다도 10% 가까이 높은 수치다. 비개신교 20대들의 반대 비율도 25.2%로 비개신교 평균치인 22.2%보다 높았고, 이는 비개신교인 70대의 반대비율 31.8% 에 이어 2위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개신교인 20대는 비개신교인 포함 가장 강하게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자는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20대 청년들의 타자에 대한 감수성 문제는 난민 문제에 가서 절정을 이룬다. 개신교인 20대 청년층의 난민반대 목소리가 개신교 평균보다 7% 가까이 높은 30.6%로 개신교 전 세대 중 1위에 올랐고, 비개신교인 20대 역시 비개신교인 평균 반대율 18.1% 보다 6% 이상 높은 24.7%로 역시 비개신교인 전 세대 중 1위로 등극했다. 무엇이 오늘의 20대들로 하여금 타자에 대한 혐오를 야기 시키고 있는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할 텐데, 예상되는 답으로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과 그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동한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날로 악화되는 20대 청년취업의 문제를 21세기 자본이 지니는 구조적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본인들 보다 약한 존재들에게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20대 청년의 보수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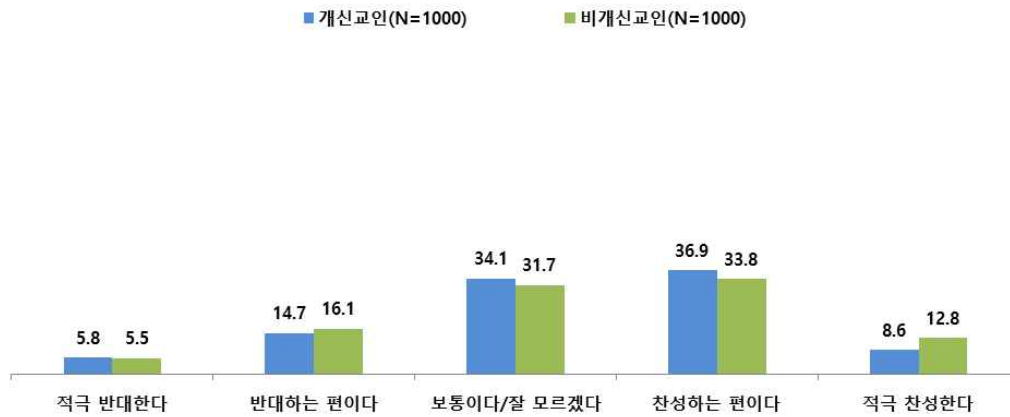
### 3) 검찰개혁, 사법개혁, 5.18 왜곡 금지법에 대한 의견

: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이 별 차이 없어

올 한해 뜨거웠던 사회적 이슈들, 예를 들어 사법개혁 문제, 5.18 왜곡 금지법, 검찰 개혁 문제 등에 있어 개신교인들은 비개신교인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겨울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세상에 알려진 사법부의 부당한 재판개입과 재판거래는 특별재판부 구성 및 문제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의견에 있어 개신교인은 74.1%, 비개신교인은 73.7%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sup>2)</sup> 사실상의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이 의견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2) 사법개혁 ..... [반대한다] 개신교인: 8.8%, 비개신교인: 10.0% /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개신교인: 17.1%, 비개신

지난 봄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거나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 비난하는 발언이 있었다. 이러한 가짜뉴스 유포와 발언에 대해 ‘5.18 왜곡금지법’을 제정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개신교인의 62.4%, 비개신교인의 61.9% ‘찬성’ 의견을 보였다.<sup>3)</sup> 역시 마찬가지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이 의견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법개혁에 대한 찬성 비율보다는 1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눈여겨 보아야할 대목이고, 보다 세심한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다.



[그림 3]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

근래 조국사태를 계기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사항이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다, 혹은 아니다, 라는 상반된 의견이 지금 격렬히 충돌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들 사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찬성률’은 개신교인이 45.5%, 비개신교인이 46.6%이며, ‘반대율’은 개신교인이 20.5%, 비개신교인 21.7% 나타났다. ‘보통이다/잘 모르겠다’를 택한 율은 개신교인 34.4%, 비개신교인: 31.7% 로 나타나 대략 1/3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부동층의 향배가 앞으로의 정국의 방향을 좌우할 캐스팅보드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사법개혁이 ‘정의의 문제’라면, 5.18 왜곡금지법은 ‘진실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굳이 말하자면 ‘정치(권력)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정의의 문제, 진실의 문제, 정치의 문제에 있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들 사이 의견의 차이는 거의 없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없다는 말은 교인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공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회보편의 인식을 개신교인들이 크게 거역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는 비종교사회, 탈주술화 사회, 세속사회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의 종교와 정치간 관계의 일반적 특징이라 말할 수 있겠다. 한국개신교가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될 만한 수치가 아닐까 싶다.

교인: 16.3%

3) 5.18 왜곡금지법 ..... [반대한다] 개신교인: 17.4%, 비개신교인: 16.0% /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개신교인: 20.2%, 비개신교인: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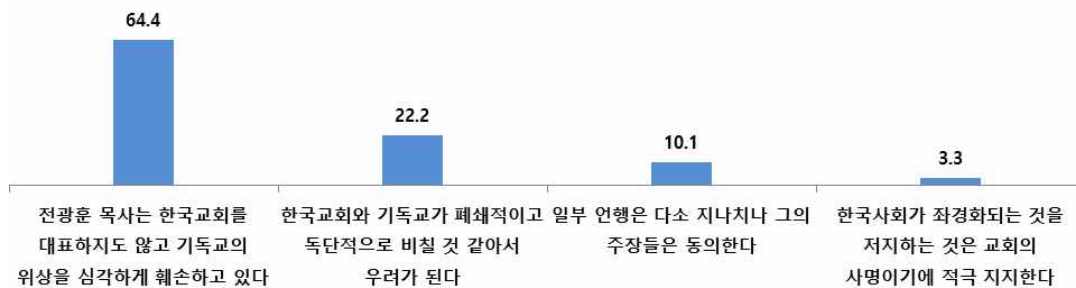
#### 4)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의견

: 전체적으로는 반대, 하지만 소수이나 그를 지지하는 개신교인들이 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은 두 가지였다. ‘문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한 의견과 전광훈 목사의 최근 언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그것이다. 문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 71.9% 개신교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잘 모르겠다’는 19.3%, ‘동의한다’과 답한 비율이 8.8%로 나타났다.

50대(12.7%)와 60대(16.2%)에서 ‘동의한다’의 비율이 높았고, 주목해야 할 대목은 20대 개신교인의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60대(65.9%)보다도 낮은 65.3%로 모든 세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20대의 ‘보통이다’의 비율은 28.6%로 단연 1위였다. 20대 개신교인들이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전광훈 목사의 최근 언행에 대한 의견은 개신교인 3명 중 2명이(64.4%) 전광훈 목사의 언행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기독교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우려가 된다’는 응답율은 22.2%, ‘다소 지나치나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10.1%, ‘적극 지지한다’는 3.3%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3.4%의 개신교인들은 전광훈 목사의 언행에 동의를 한다는 이야기이고, 22.2%는 형식과 표현에는 반감이 있으나 심정적으로는 부동층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4] 전광훈 목사 최근 언행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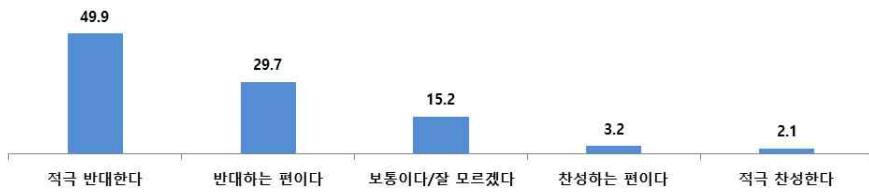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의 언행에 대해 교계에서 다양한 반박 대응이 있었다. 기윤실에서는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2019년 6월7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6월10일)의 반박성명, 기독교회 원로 호소문(6월 18일) 등이 연속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가 행정보류를 결의했고, CCC(한국대학생선교회)는 공식적으로 한기총에서 탈퇴했다. 현재 한기총은 한국의 대표적 교단들이 모두 탈퇴한 상황이고 한국교회 70% 이상은 한기총과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회장이라는 명함을 지닌 채 극단적인 극우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2/3가량의 개신교인들은 반감을 보이고 있으나, 13.4% 라는 무시못할 전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세력이 있다. 개신교가 극우정치에 휘말릴 수 있는 충분한 잠재적 위험성과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개신교와 극우정치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 5) 기독교인의 정치참여와 태극기 집회

: 압도적인 부정적 의견, 그러나 우격다짐 시끄러운 소수

개신교인 5명중 4명 가까이(79.5%)는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을 창당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찬성율은 5.2%에 그쳤다. ‘태극기부대 집회에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 가량(74.4%)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7.5%는 ‘긍정적이다’, 18.1%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태극기 부대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참여해 본 경험은 2.9%이며, 5회 미만 참여가 2.6%, 5회 이상 참여가 0.3%로 나타났다.



[그림 5] 개신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원칙은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종교의 정치 개입을 금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현대사에서 종교의 정치개입은 늘 있어왔다. 해방 후 서북청년단과 기독교우파의 밀월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군부독재정권 시절 진보기독교계의 반정부 운동도 크게 보아서는 종교의 정치개입이라 말할 수 있다. 김영삼, 이명박 장로의 대통령 만들기에 한국개신교가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도 종교의 정치개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한국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발생했던 종교와 정치의 역학은 시대를 읽어내는 중요한 단서였다.

하지만 그것이 종교의 공식적인 정치참여에 대한 호응이라고 보면 오판이다. 21세기 들어 현실정치에 개입하려 했던 기독교 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은 미비했다. 2004년(17대) 총선에 등장했던 기독교민주복지당 1.1%, 2008년(18대) 기독교사랑실천당 2.54%, 2012년(19대) 기독교자유민주당 2.54%, 2016년(20대) 기독교자유당 2.64%로 나타나 한번도 원내집입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2020년 21대 총선에 나서는 기독교정당의 성적표는 어떻게 될까?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판세를 종합할 때, 기독교정당의 성적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일말의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엮이는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인들이 극우정치와 결합할 경우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 동의를 보내는 13.4% 교인들, 기독교정당에 5.2% 지지를 보내는 개신교인들이 기세가 어떤 형국을 띄게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성질이지만, 태극기와 촛불로 첨예하게 갈린 광장의 양극화 속에서 그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기세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 3. 나가며: 한국개신교와 극우정치

지금까지 나는 정치분야 설문 분석 중 정치성향에 대한 의견, 타자에 대한 정치적 감수성에 대한 부분, 여러 개혁입법에 대한 의견, 전광훈 목사 관련 부분, 기독교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대

한 간단한 보고와 비평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개신교와 극우정치와의 상관관계를 종합하면, 지금은 미약하나 극우주의가 일부 개신교인들을 등에 업고 발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극우정당과 극우적 성향이 인물들이 정치적으로 세를 모아가는 것을 보면 말이다. 왜 이렇게 극우주의가 발호하고, 극우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세계사적 흐름과 비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가야 할 때가 도래하였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광화문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규정할 수 없는 에너지, 즉 ‘정동(affect, 情動)이다.<sup>4)</sup> 광장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가 계속 차지할 수 있는 광장은 없다. 2년 전 우주의 기운이 잘 맞아서 용케 정권교체를 한 우리지만, 그 에너지는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고, 우리들의 예상과는 다른 부정적 소여로 반전될 수 있는 그것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지만, 여전히 고용불안과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은 체감경기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좀처럼 반등하지 않는 실업율과 절망적인 청년취업의 현실은 사회적 불안과 불만의 진앙이라 할 수 있다. 정권 초기에 남북관계의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으나 이런 저런 방해와 어려움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 촛불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기운과 분위기가 집권 후 개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향한 여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촛불혁명의 동력이 자칫 부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여 역풍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지난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보수집회는 그것을 보여주는 증상이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근본주의 개신교는 부정적 에너지로 작동하면서 극우정치의 훌륭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것의 효력이 언제까지이고,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정치분야 설문조사를 통해 그러한 조짐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감지되었다.

---

4) ‘정동(affect, 情動)’이론에 의하면 마음은 유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태라 고정된 개념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원래 ‘정동’은 스피노자의 ‘affect’의 역어다. 이 개념은 스피노자의 정의, ‘정동하고 정동되는“(to affect and be affected)가 의미하듯, 존재자들 사이 만남 혹은 대결 시의 상태, 더 나아가 그 상호작용으로 인한 변화까지를 염두에 둔 말이다. 정동이 역사를 계속적으로 변형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 변형이 반드시 좋은쪽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정동은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전유되어지지 않는 에너지이기에, 언제든지 현재의 판세를 비틀 수 있고, 삶의 부정적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다. 즉 정동은 긍정과 부정 둘 다에게 작용하는 에너지의 총량이라 할 수 있다. 정동의 현재의 판세를 뒤집는 것을 ‘정동적 전환’이라 하는데,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중지시킨 경우가 대표적 케이스이고, 그 반대의 ‘정동적 전환’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촛불혁명의 정동이 부정적인 정동으로 전환되어 역풍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정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우리는 몰렸다. -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갈무리, 2018),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문학동네, 2009) 참조





## 한국 개신교인의 경제의식에 관한 보고서

박재형  
(한국민중신학회)

### 1. 들어가며: 문제제기

현재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먼저 정치적 영역에서 제도 정치에 대한 한계를 경험한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와 목적을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출하여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 영역에서는 각 개인이 단순한 문화 소비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스스로 문화 생산자로서 자신만의 문화 생산품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들은 여전히 소비의 주체로서만 자신을 실현할 뿐, 스스로가 생산과 노동의 주체로 서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다양한 방식의 생산과 유통 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경제는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구조 안에 머물러 있으며, 오히려 경제 전 영역에서 그 의존도는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경제 성장이 사회 모든 구성원의 삶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망상을 놓지 못한 채, 국민총생산(GDP)이라는 양적 기준으로 모든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개신교는 어떤가? 개신교인들은 점차 종교적 생산물의 피동적 소비자로 스스로를 전락시키고 있으며, 그러한 정체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소위 '대형교회'가 여전히 각광받고 있다. 양적 성장이 교회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여전히 유효하고, 종교적 콘텐츠를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교회 구조를 토대로 하는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배타주의적 혐오와 이데올로기적 충동을 무기 삼아 개신교 대중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는 특별히 이슬람을 대표로 하는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 사고와 성소수자로 대표하는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 외부의 적을 통해 내부의 응집을 꾀하는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가치를 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와 동일시함으로써, 분배 정의와 보편 평등의 가치를 약마화 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는 가장 배타적이고 혐오를 조장하며, 자본주의적 질서를 대표하는 종교단체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다면,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정당한가?' 그리고 '과연, 한국 개신교의 대표를 자처하는 이들의 주장이 실제 일반 개신교인들의 사회적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특별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함의하는 바를 묻고,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실제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비개신교인들과의 인식 차이를 묻고자 한다.

### 2. 조사 개요

본 보고서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진행한 “2019 주요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중, 경제 분야에 관한 설문조사의 1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한국 개신교인들의 경제관, 주요 경제 사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그 함의를 묻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보다 명확한 인식의 현황을 드러내기 위해 동일한 사안에 관한 비개신교인들의 인식과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 18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마지막 4문항은 개신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 신앙이 경제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전체 18개 문항을 주제에 따라 대략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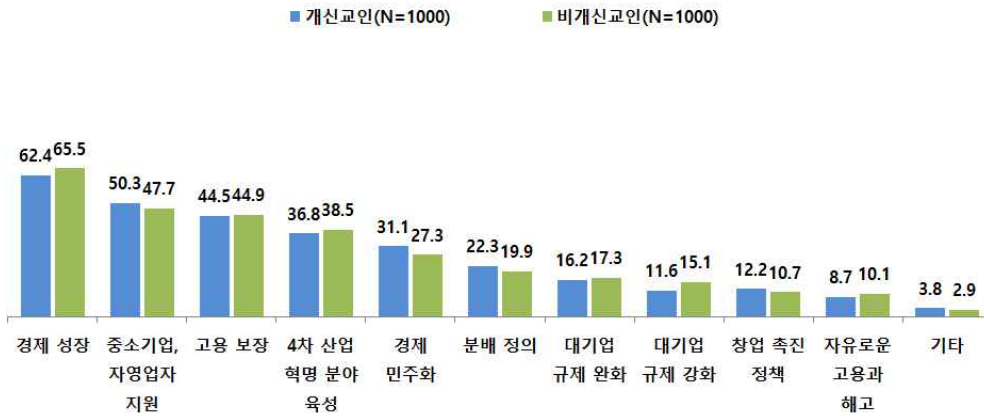
- 1) 한국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시급과제, 성장과 분배, 빈부격차, 가난의 원인
- 2) 노동 관련 인식: 노동조건 만족도, 총 노동시간 현황 및 적절성, 노동조합관련 인식
- 3) 기본 소득제에 관한 인식: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 찬성 및 반대 이유
- 4) 자본주의 및 주요 과세 정책에 관한 인식: 경제시장의 국가 개입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관한 의견,  
종교인 과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
- 5) 기독교 신앙과 경제관(개신교인): 경제관에 미치는 신앙의 영향,  
경제적 부와 하나님 축복/경제 정의 실현과 기독교 신앙/  
신앙과 경제적 이익의 사이의 관계

본 보고서는 먼저 위의 네 가지 주제를 통해 개신교인들의 경제적 인식에서 드러나는 경향성을 분석하고 그것이 비개신교인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과연 기독교 신앙 혹은 교회의 가르침이 개신교인들의 경제관과 경제적 삶의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종교와 삶의 실천의 관계성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상응하는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3. 주요 설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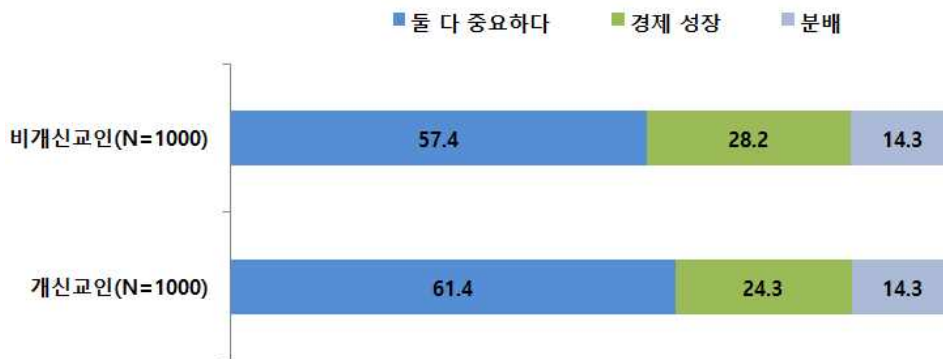
#### 1) 성장이나, 분배냐?

우선 개신교인들이 현재 한국 사회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경제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림 1] 경제 분야 중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분야(중요도에 따라 3가지 답변 선택)  
(Base=전체, N=각 1000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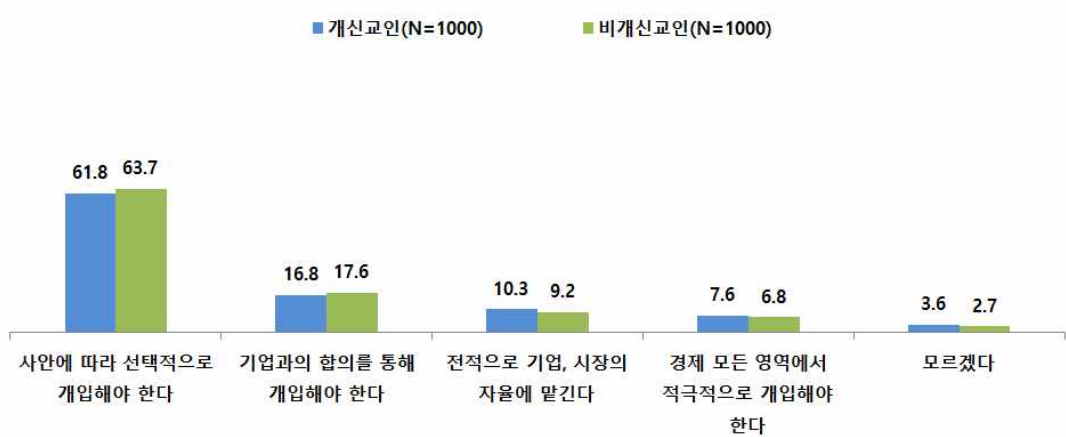
위의 도표에서 보듯, 개신교인들은 현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 성장’을 꼽았다.(62.4%) 하지만 이외에도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50.3%), ‘고용보장’(44.5%) 등을 주요 시급 과제로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신교인들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정부 정책을 통한 ‘경제 구조개선’ 및 ‘경제 정의 실현’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제 시급 과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오히려 ‘경제 성장’(3.1%p.), 대기업 규제 완화(1.1%p.),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1.4%p.) 등의 친(親) 기업, 친(親) 자유시장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개신교인에 비해, 비개신교인이 응답이 근소하나마 더 많은 것 알 수 있다.



[그림 2] 성장과 분배 (Base=전체, N=각 1000명, %)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각각 24.3%, 28.2%로 비개신교인의 응답이 3.9%p. 더 많다. 반면,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14.3%로 동일하다. 따라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분배’보다는 ‘경제 성장’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둘 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각각 57.4%, 61.4%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바라는 ‘중도적’입장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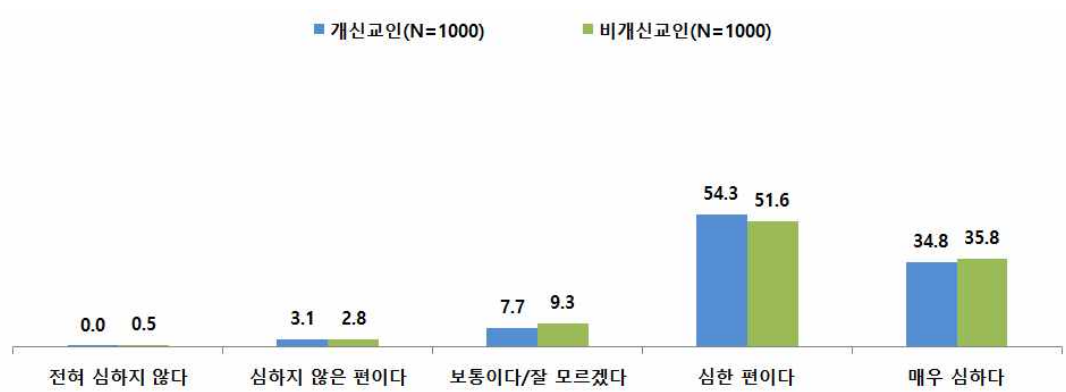
이러한 중도적 입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의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림 3] 국가의 경제시장 개입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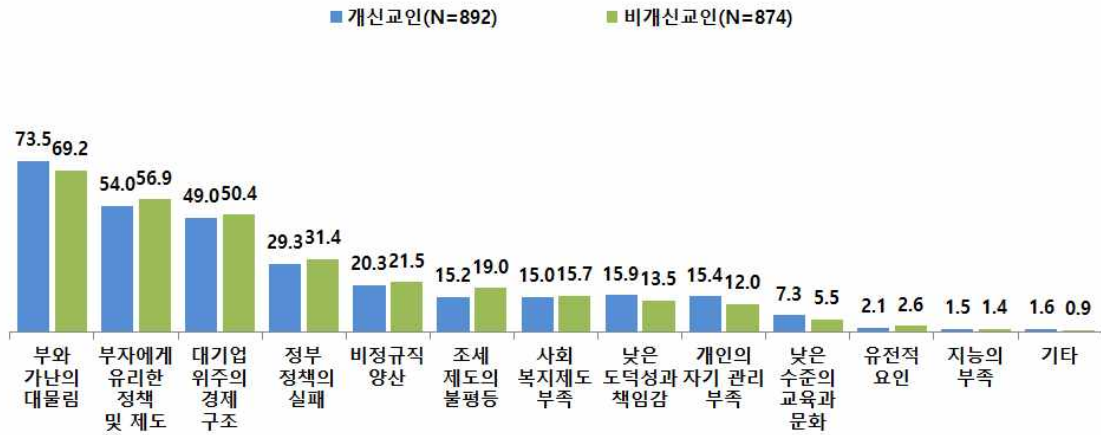
위의 [그림 3]에서 보듯이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대다수가 극단적 ‘자유시장 경제’ 혹은 정부 개입에 의한 ‘계획 경제’가 아닌 ‘사안에 따른 선택적 정부 개입’(61.8% / 63.7%)과 ‘기업과의 합의를 통한 정부 개입’(16.8% / 17.6%)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개인인가, 구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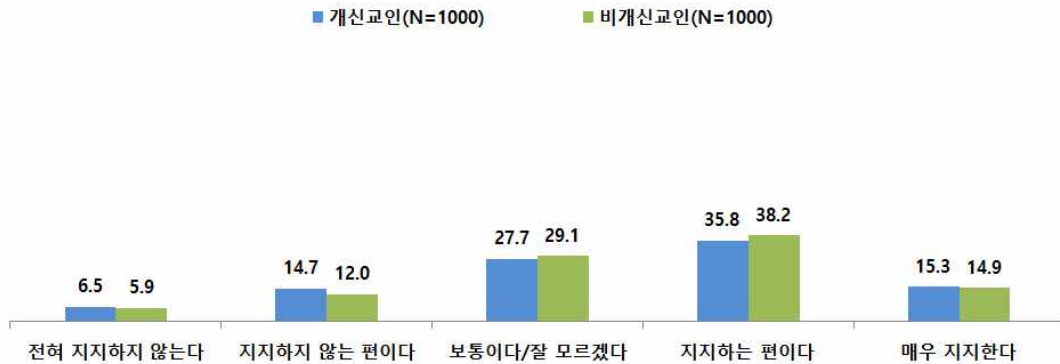
[그림 4]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 수준 (Base=전체, N=각, 1000명, %)

보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한 설문자들 가운데(개신교인 89.2% / 비개신교인 87.4%), ‘가난의 원인’에 대해 대부분 ‘부와 가난의 대물림’(73.5% / 69.2%),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 및 제도’(54.0% / 56.9%),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49.0% / 50.4%)의 순으로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가난의 원인’을 능력, 도덕성, 유전적 요인 등의 개인적 차원이 아닌 경제 구조와 정부 정책 등의 사회적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는 대체적으로 개인적 영성이나 개인의 구원을 강조한다고 여기는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가난의 원인 (Base=빈부격차 '심하다' 응답자, N=개신교인 892명, 비개신교인 874명, %, 중복응답)

결국 이러한 '가난의 원인'에 대한 사회 구조적 인식은 현재 부의 재분배를 위한 가장 대표적 조세제도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찬성의견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림 6]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유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차등적 과세 제도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이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각각 51.1%, 53.1%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노동의 대가가 아닌 투자 혹은 투기의 방식으로 획득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부의 재분배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 개신교인들의 다수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의 경제관을 담지하고 있으며, 극단적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아닌 적절한 정부 개입에 의한 중도적 '계획 경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근본주의 성향과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이슬람, 동성애 등의 여타 다른 사안들과는 다르게 비개신교인들과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일부 개신교 목회자/지도자들의 주장과 사뭇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일부 극우 단

체의 집회를 통해 주장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맹목적 충성도와는 달리 대다수 개신교인들의 경제 인식은 한국 사회 안에서 균형적이고 일반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3) 신앙과 경제관

근대 이전, 인류는 종교가 곧 세계관이었으며, 동시에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규범이었다. 하지만 세속화와 근대화 이후, 종교는 개인의 영역으로 국한되었으며, 따라서 개인의 종교성과 사회적 삶은 점차 서로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갔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봉건 군주 제도 폐지와 민주 공화국 설립 이후에도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독재를 통한 변형된 봉건 군주 제도의 영향 하에 있었다. 이는 정치권력을 통한 종교의 사유화 혹은 도구화로 귀결되고 여전히 종교가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정치권력의 시너가 된 한국의 일부 개신교는 어느 때나 그랬듯, 현세적 삶의 번영과 축복을 위한 규범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로인해 그러한 교회의 메시지는 신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하지만 2019년 현재, 한국 개신교는 이와 같은 영향력을 과거만큼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7] 기독교/교회의 가르침이 경제관에 미치는 영향(개신교 대상) (Base=전체, N=각 1000명, %)

표면적으로는 경제관에 있어서 기독교 혹은 교회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 개신교인들이 대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영향을 미쳤다: 42.3%,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9.6%) 28.1%의 유보적 입장을 통해 볼 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의 수가 절반이 되지 못한다.



[그림 8] 경제적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에 대한 의견(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각 1000명, %)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는 개신교인의 수는 31.4%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응답 40.6% 보다 약 9%p. 적다. 여기에 유보적 입장이 28%임을 가만하면,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나가며: 한국 개신교의 과제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인들의 경제관과 경제 정책적 지향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 보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한국 개신교인들의 경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기존의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일반적 평가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과 비개신교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와 간극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드러났다. 그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과거와 달리 한국 개신교가 그 구성원들인 개신교인들의 경제적인 삶의 인식과 그 방향에 대해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설문 응답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기독교 신앙 및 교회의 가르침이 경제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정도 (Base=전체, N=각 1000명, %)

현재 한국 개신교인들은 경제 정의 실현에 대한 어느 정도 열망을 한국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에서 확인했다. 하지만 기독교, 혹은 교회의 가르침이 그 실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개신교인은 32.7%에 그친다. 이에 반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5%, 유보적 응답은 27.9%나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개신교와 교회의 가르침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 섰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국 개신교가 어느 순간 강자와 부자, 지배자의 편에 서, 그들의 기득권을 지탱해 주고 대변해 주는 모습으로 변모했다. 경제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는 모두가 인간답게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이 그러한 보편적 가치에도 미치지 못할 때, 과연 누가 교회로부터 희망을 보며, 교회를 통해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

한국 개신교 앞에 놓여진 과제는 분명해 보인다.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한 거짓 신을 버리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눈을 먼저 씻고, 새롭게 뜯 눈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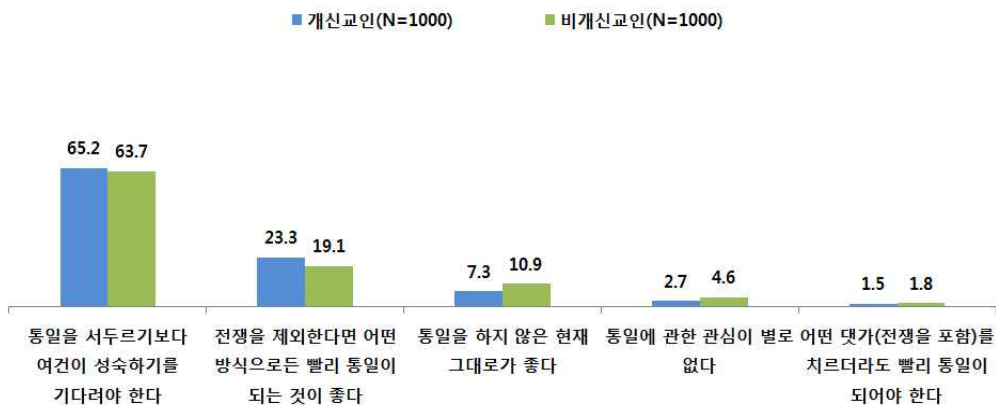
##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 통일 및 평화 분야

김 상 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들어가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후 한반도는 평화체제로의 급물살을 타는 듯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는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다. 통일 분야 관련 설문은 총 15 문항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크게 1)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2) 북한정권과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3) 현 정부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4) 통일/남북관계 인식 형성의 경로와 특징을 묻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설문 결과 및 분석 내용을 간략히 나누고자 한다.

### 1.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전쟁의 위협은 줄이고, 경제적 성장은 높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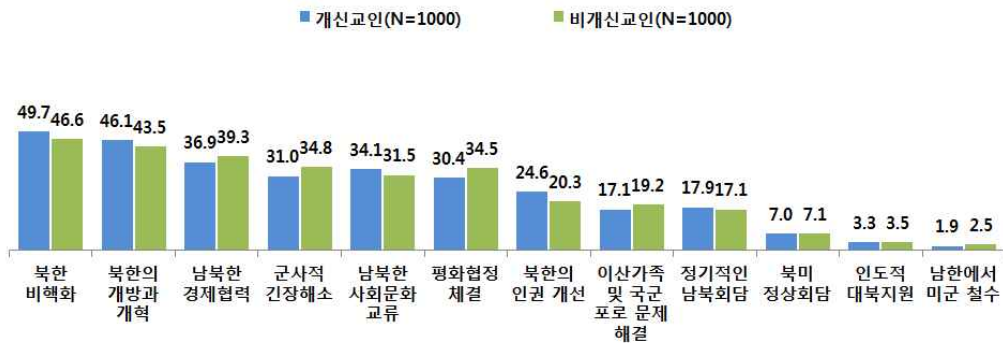
[그림 1] 통일에 대한 의견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개신교인 67.7%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이는 비개신교인(56.6%)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통일의 방식을 묻는 질문[그림1]에서는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률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쟁을 제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개신교인 23.3%), ‘통일을 하지 않은 현재

그대로가 좋다'(개신교인 7.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어떤 댓가(전쟁을 포함)를 치르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두 집단 모두 2%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sup>5)</sup>

통일 및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화' 자체이며 '통일'의 당위보다 우선한다.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만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염원은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은 듯 보인다. 특별히 '전쟁'을 치르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은 극소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란 '전쟁이 부재'(absence of war)를 말하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의 개념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sup>6)</sup>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군사적 긴장'이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시급한 문제를 중복하여 선택하는 질문[그림2]에서 개신교인(49.7%), 비개신교인(46.6%) 모두 '북한 비핵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군사적 긴장 해소'(31.0%)와 '평화협정 체결'(30.4%)도 상위권에 올라있다.



[그림 2]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시급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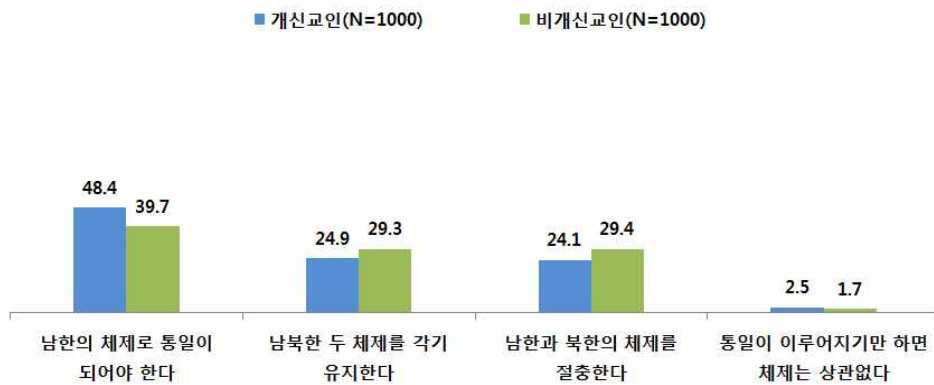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북한 비핵화'(49.7%)와 '북한의 개방과 개혁'(46.1%)을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다는 점은 북한 정권을 통일의 장애물 혹은 (통제되지 않는) 변수로 인식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남한은 잘 하고 있으니) 북한이 변해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믿는 것이다. 반면, 남과 북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들(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군사적 긴장해소, 평화협정 체결 등)도 뒤를 잇고 있다.

특이점으로는 '군사적 긴장 해소'와 '평화협정 체결'은 비개신교인에서 약간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반면, '북한의 인권 개선'은 개신교인에서 약간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신교인들이 상대적으로 남한 체제에 대하여 좀 더 보수적인 견해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체제를 묻는 질문[그림3]에 대하여 '남한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개신교인 48.4%, 비개신교인 39.7%로 더 높다. 반면,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와 '남한과 북한의

5) 서울대학교 <2018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어떤 댓가(전쟁을 포함)를 치르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9%로 본 조사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서울대 조사에서는 통일의 '어떠한 댓가' 중 '전쟁'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 본 조사에서는 '전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통일의 방법을 물었을 때 절대적 다수가 통일 및 남북관계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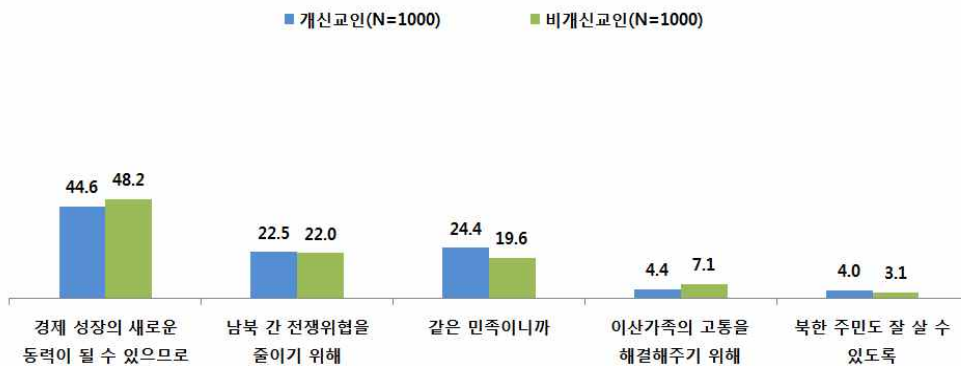
6) 요한 갈통은 평화의 개념을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와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로 나누어 설명한다. 적극적 평화란 전쟁이나 갈등의 원인이 되는 다층적인 폭력들(예를 들어, 개인적, 물리적, 구조적, 사회적, 문화적 폭력 등)을 줄이는 과정으로서의 평화를 말하고, 소극적 평화란 물리적 전쟁이나 폭력의 부재 자체만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정에서 두 가지 평화의 정의와 접근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체제를 절충한다'고 응답한 수에서는 비개신교인이 조금씩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림 3]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체제

개신교인이 가진 다소 보수적인 통일인식은 통일의 당위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작지만 차이를 보인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그림4]에서 개신교인은 '경제적 성장'에 이어 '같은 민족이니까'를 선택했다. 이는 전체의 24.4%이며 이는 비개신교인 19.6% 보다 약 5% 정도 높은 응답률이다. 이른바 민족중심의 통일담론이 개신교인 사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sup>7)</sup>



[그림 4]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통일의 이유를 묻는 질문[그림4]에 대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개신교인 44.6%, 비개신교인 48.2%). 이는 전통적으로 (혹은 이념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던 통일의 이유, 즉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것에 두 배를 웃도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이유가 같은 민족성을 이유로 하는 이념적 이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편찬한 <2018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은 여전히 우세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의 45.1%가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답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이며 31.4%의 비율이다. 하지만

7) 세 번째로 '전쟁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개신교인 22.5%, 비개신교인 22.0%로 거의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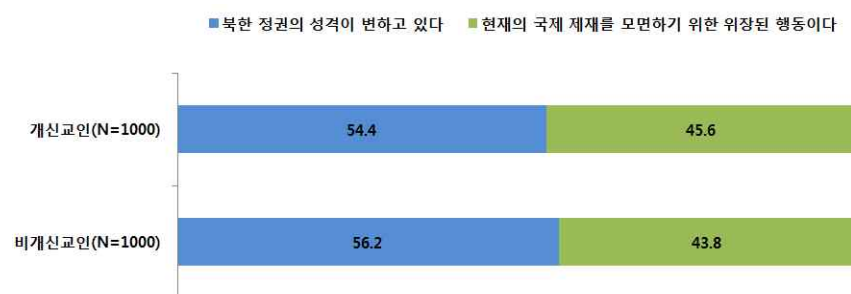
이 설문항에는 ‘경제적 성장’을 고르는 선택지는 없었고 대신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2.9%)가 나온다.<sup>8)</sup>

반면에 같은 조사에서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놀랍게도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한 수가 전체의 34.67%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도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27.67%)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에 대한 이념적 혹은 민족적 명분보다 자신(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유익이나 피해에 더 민감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경제적 성장’이 가장 높게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동시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신교인 응답자 중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을 선택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비개신교인보다 높다는 점은 (그것이 이념적인 성향을 떠나서) 종교가 여전히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 국가 혹은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보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북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북핵문제 해결의 기대심리 증가

다음은 북한정권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북한 혹은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레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특별히 본 조사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들이 가진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의 개혁개방 표방 움직임에 대한 질문[그림 5]에 대하여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과반수 이상이 ‘북한 정권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개신교인 54.4%, 비개신교인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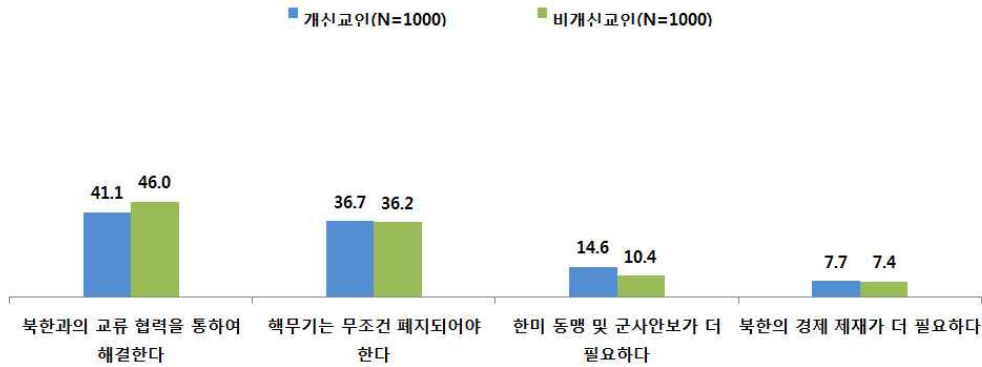


[그림 5]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견

북한 정권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역시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빼놓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두 정상회담의 만남을 ‘정치적인 쇼’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평화로운 회담을 갖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을 지닌다. 사실 ‘판문점 회담’ 이전까지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서울대 조사에 따르면, 북한을 향한 인식이 2007년부터 10년간 꾸준히 부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2017년에는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31.9%에 그쳤다. 반면 ‘북한이 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8%로 나타나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았

8) 정동준 외, 『2018 통일인식조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표1-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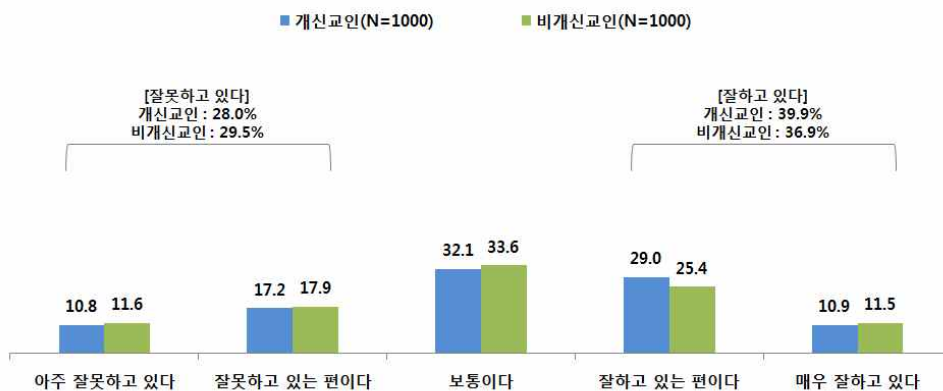
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있는 후에는 긍정 77.3%, 부정 22.7%로 극적인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sup>9)</sup>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의 극적인 변화의 시기에 2007년과 2018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up>10)</sup>



[그림 6]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방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묻는 질문[그림 6]에 대하여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한다’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개신교인 41.1%, 비개신교인 46.0). 이는 ‘핵무기 폐지’(36.7%)와 ‘한미 동맹 및 군사안보’(14.6%)를 앞서는 결과이다.

북한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으로의 변화는 현 정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질문[그림 7]에 대해 개신교인의 39.9%, 비개신교인의 36.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개신교인 28.0%, 비개신교인 29.5%로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근소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권의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긍정적 평가가 조금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중간층 혹은 무당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개신교인 32.1%, 비개신교인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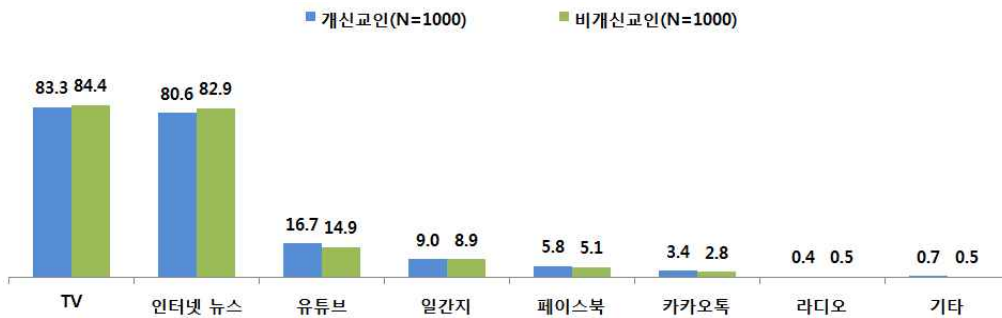
[그림 7]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 평가

9) 위의 조사. 표 1-2-12 참조.

10) 정상회담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다. 한 번의 상징적인 사건이 가진 중요성만큼이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인식 변화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3.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언론 및 미디어의 중요성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 및 남북 관계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은 비개신교인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개신교인들에게 신앙의 요소가 통일 의식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결과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통일 및 남북 문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면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 의식의 형성되는 경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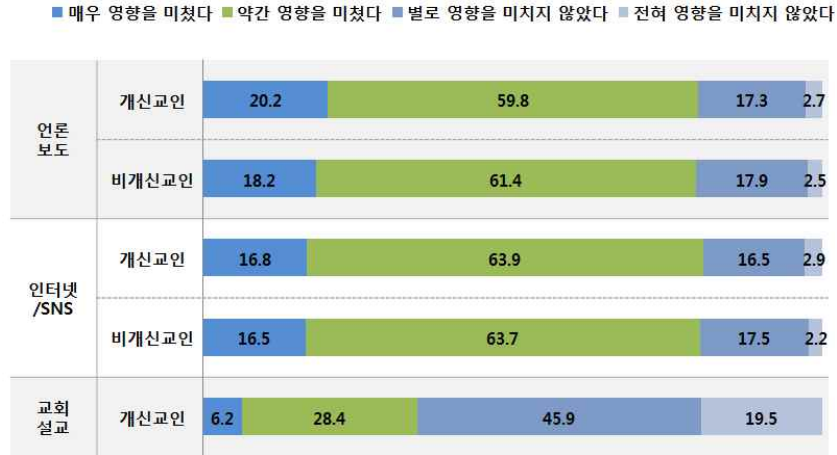


[그림 7]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먼저, 통일과 남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를 물어본 질문[그림 7]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매체는 ‘TV’와 ‘인터넷 뉴스’였다. ‘TV’는 전통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 매체이다. 개신교인 83.3%, 비개신교인 84.4%가 주로 TV를 통해서 통일 분야의 정보를 얻는다고 답하고 있다. TV가 전통적인 매체인 반면 온라인 매체인 ‘인터넷 뉴스’의 영향력도 ‘TV’ 만큼이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개신교인 80.6%, 비개신교인 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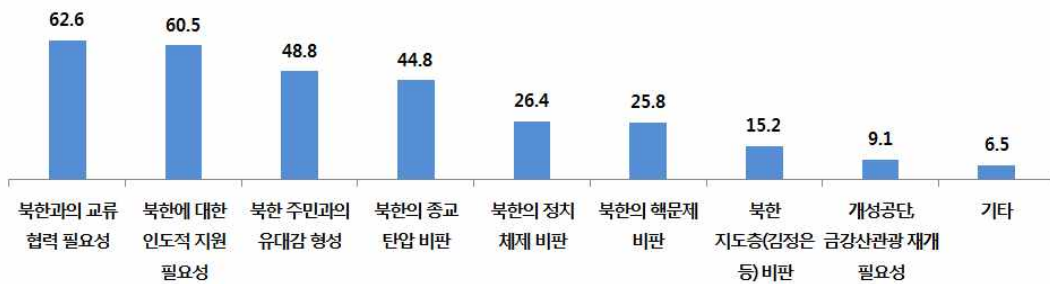
두 매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유튜브’가 ‘일간지’나 ‘라디오’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개신교인 16.7%, 비개신교인 14.9%). 매체의 특성 상 ‘유튜브’는 ‘일간지’나 ‘라디오’ 보다 정보의 진위 여부나 표현의 수위 등이 불투명한 경향이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될 수 있다. 연령별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인터넷 뉴스’ 응답률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유튜브’ 응답률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경로에 대해 묻기 위하여 ‘언론 보도’, ‘인터넷/SNS’, 그리고 ‘설교’(개신교인만)를 나누어 물어보았다[그림 8]. 그 결과,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언론보도’와 ‘인터넷/SNS’를 통하여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형성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는데 전체의 약 80%의 응답률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통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와 그로 인한 영향력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있다는 말이다.



[그림 8]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

반면, ‘교회설교’를 통해 통일 인식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6%에 그치면서 대조를 보인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한국교회는 통일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자주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별로 혹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8.6%로 ‘자주 혹은 가끔 한다’고 응답한 비율(41.4%)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그나마도 통일과 관련된 설교를 ‘한다’라고 응답한 중에는 1,000명 이상의 교회인 경우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출석 교회 목회자가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 설교를 ‘한다’고 응답한 자에게 그 내용을 묻은 결과[그림 9], ‘북한과의 교류 협력 필요성’(62.6%)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60.5%)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북한의 종교 탄압 비판’(44.8%), ‘북한의 핵문제 비판’(25.8%), ‘북한 지도층(김정은 등)비판’(15.2%) 등 북한에 대한 비판적 설교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출석 교회 목회자의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 설교 내용

## 나가며

통일 및 남북 문제에 관한 개신교인의 전반적인 시각은 비개신교인과 상당 부분 유사한 형태의 결과로 나타났다. 사안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만 커다란 흐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통일 및 남북관계 문제에 대한 인식의 통로가 언론 및 미디어 등 소수의 정보매체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신교인의 경우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통일 및 대북관 형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미미하다. 이는 다른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와는 별개로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언론과 인터넷 뉴스,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은 더 이상 당위에 의한 이념적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다 개인의 판단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념적 당위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개인과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거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한다. 따라서 통일이란 전쟁의 위협을 줄이고 북핵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적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언론/미디어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의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뜻한다. 정권에 의해서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바뀐다면 평화체제로의 지속성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의 공헌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적인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설교 강단에서는 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선교적 차원에서만 접근한 경향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전쟁의 위협을 줄이고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비전과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2019년, 한국 개신교인의 신앙관과 생태위기에 관한 인식 조사

신 익 상  
(성공회대학교)

이 글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진행한 “2019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 조사” 중 신앙관과 생태위기에 관한 설문조사의 1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중요한 함의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앙관에 있어서 2019년의 한국 개신교인들은 여전히 근본주의적 신앙관을 대체할 다른 대안을 찾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개신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응답한 신자들의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정체성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본 인식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개신교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성을 인류의 긴급한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시각은 상대적으로 적고 생활환경의 악화나 세계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그러면서도 많은 개신교인이 교회가 생태환경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러한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 I. 신앙관: 지금, 한국 개신교는 내용 없는 근본주의를 지닌 채 동시대와 싸우고 있다.

#### 1. 신앙관에 대한 설문통계조사의 개요

한국 개신교인의 신앙관과 관련된 통계분석은 총 10문항의 설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11문항 중에서 4문항은 종교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화 현상에 대한 배타성의 정도를, 3문항은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의 정도를, 나머지 3문항은 자기 신앙에 대한 교리적 확신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중 일부 문항은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제기된 근본주의적 교리를 바탕으로 한다.

근본주의(fundamentalism)라는 용어 자체의 탄생과 관련되기도 한 근본주의적 교리는 성서무오설, 비기독교인의 멸망, 신성을 지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심판을 위한 재림, 예수를 믿는 자들과 천국에서의 영생 등을 배타적으로 주장한다.<sup>11)</sup> 이러한 교리를 배타적으로 확인하고 강조하는 일은 공동체의 정체성이 외부의 어떤 요인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위기감에서 비롯되는 법인데, 당시 미국 기독교인들이 정체성 위기의 외적 요인이라고 지목한 것은 진화론과 공산주의였다. 특히 성서무오설은 성공적인 시대정신인 진화과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성서문자주의를 내적 확신의 근거와 수단으로 삼았기에 본 통계분석은 이를 반영하였다.

11) Alister McGrath, *Modern Christian Thought* (London: Backwell Publishers, 1993), 230; 최대광, “기독교 근본주의의 정의와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기독교사상』 620 (2010.08), 35.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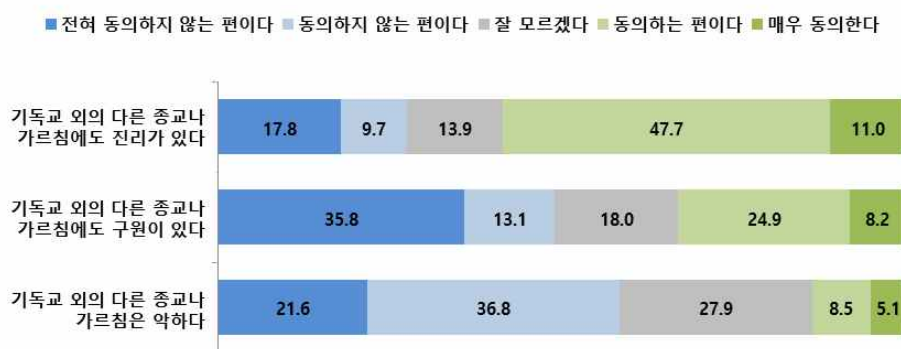
하지만 21세기 초의 한국 기독교인에게는 진화론과 공산주의 외에도 다종교 상황이 문화적 자연스러움으로 정착해 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동성애와 이슬람이 기독교 내부에서 이슈화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통계분석에서는 타종교에 대한 배타주의적 태도와 더불어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 2. 신앙관의 통계분석에 대한 중요 결과 두 가지

신앙관에 대한 1차 통계분석 자료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결과 중 두 가지를 요약해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2019년의 한국 개신교인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해내고 있는가의 문제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제도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는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한 달에 3회 이하로만 출석하는 개신교인의 신앙 양태가 무엇을 보여주는가의 문제다. 이 두 가지를 차례로 살펴해보도록 하자.

### 1) 기독교의 정체성은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는가?

2019년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구원의 능력을 빼고는 다른 종교에 상당히 관대한 점수를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아래의 [그림1]이 보여주듯 58.1%의 개신교인들이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으며 58.4%가 다른 종교도 선하다고 응답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보는 개신교인들의 비율은 33.1%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개신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1%로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 세 질문 간에는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앨런 레이스(Alan Race)의 분류에 따르면 2019년의 한국 개신교인들은 포괄주의라고 부를 만한 입장에서 다른 종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1] 다른 종교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이러한 사실은 59.8%의 개신교인이 성서무오설을 지지하고 55.0%는 성서문자주의를 지지한다고 응답하였다는 사실([그림2] 참조)과 맞물려 근본주의적 신앙관이 오늘날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가를 가늠하도록 돕는다. 물론 이러한 통계는 1982년의 통계와 비교하면 고무적이긴 하다. 1982년에는 축자영감설을 물었을 때 평신도의 92.3%, 목회자의 84.9%가 축자영감설을 지지했었다.<sup>12)</sup> 그러함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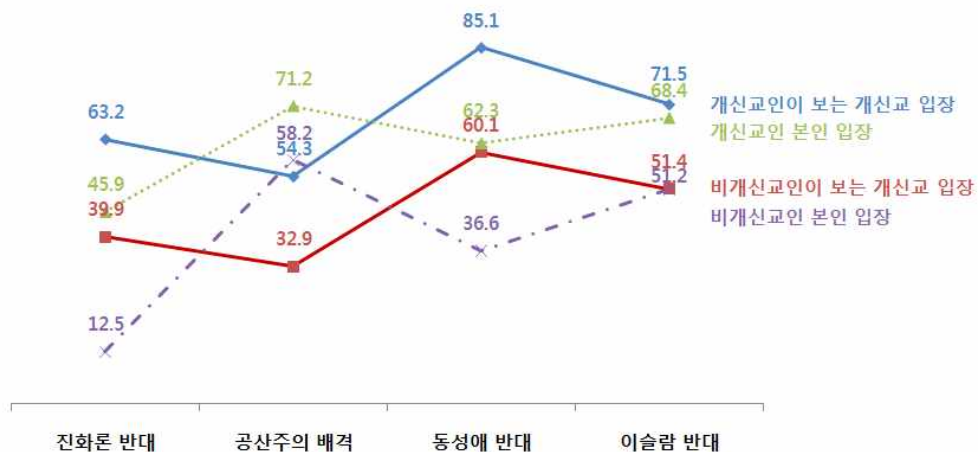
1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보고서』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2),

아직도 성서에 오류가 없다거나 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응답한 개신교인들의 비율은 과반이 넘는다.



[그림2] 근본주의적 교리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근본주의의 전략은 보통 두 방향에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교리의 확립을 통해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외부의 적을 배격하는 것이다. 전자를 내적 긍정, 후자를 외적 부정이라고 잠정적으로 이름 붙일 때, 그림1은 대체로 외적 부정의 정도를, [그림2]는 대체로 내적 긍정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지표는 시대정신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완화된 근본주의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 개신교의 자화상을 보여주는데, 외적 부정의 또 다른 대상으로서의 진화론,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태도는 이 어정쩡한 완화의 의미를 확인하도록 한다([그림3] 참조).



[그림3] 시대적 이념과 과제에 대한 반대 ('그렇다' 비율)

진화론과 공산주의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태동할 때부터 이 근본주의의 배격 대상이었지만,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진화론에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반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나 할 것 없이 부정적이다. 특히 개신교인은 71.2%나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54.3%인 비개신교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이는 한반도가 처한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어쨌든 개신교인들은 비개신교인들과 비교하면 진화론,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 전향목에 걸쳐서 더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래 들어 갑자기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동성애나 이슬람에 대한 반대(동성애: 62.3%, 이슬람: 68.4%)는 진화론의 경우(45.9%)를 월등하게 뛰어넘는다. 더욱이 4가지 시대적 이념과 과제 모두에 있어서 개신교인 본인의 입장이 비개신교인이 보는 개신교의 입장보다 더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 시대적 이념과 사건에 대해 개신교인은 비개신교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배타적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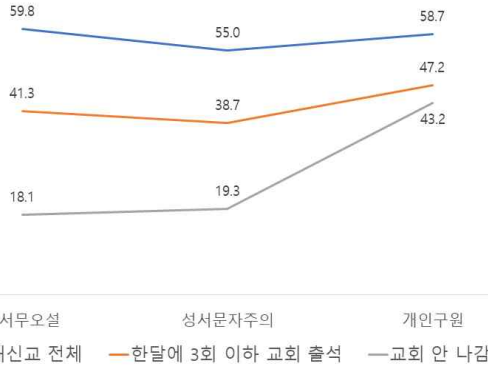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시대적 이념과 과제에 대한 배타성은 진화론의 경우를 제외하곤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보다 강하고, 내적 긍정 항목들과 비교하면 더 높은 비율로 강하다. 따라서 2019년 한국의 개신교는 전반적으로 내적 긍정보다는 외적 부정의 요소들을 토대로 하는 근본주의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는 38년 전의 한국 개신교인들보다 근본주의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유력하게 지닌 채 있는 셈이다. 2019년에도 근본주의가 한국 개신교의 유력한 대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근본주의의 성격이다. 이 근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내적인 신앙의 확신이 아니라 외부의 적이기 때문이다. 교리적 확신이 약화하고 있는 근본주의가 고개를 돌린 것은 외부의 적이다. 그런데 이 외부의 적은 다른 종교가 아니다. 다른 아닌 시대적 상황 자체다. 2019년 한국의 개신교는 내적 확신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근본주의를 지닌 채 다른 종교들의 존재감을 의식하면서 동시대와 싸우고 있다.

## 2) 기독교의 미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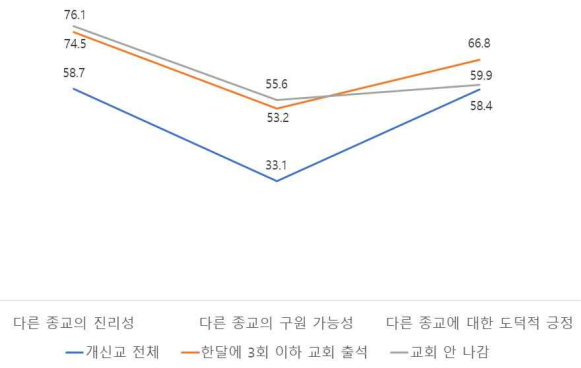
여전히 근본주의를 가장 큰 대안으로 지닌 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개신교의 미래는 개신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제도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그 횟수가 매우 적다고 응답한 신자들의 성격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우선 [그림4]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개신교인은 개신교인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성서무오설이나 성서문자주의 등을 긍정하는 비율이 현격히 낮다. 교회에 드문드문 출석하는 신자의 경우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개신교인보다는 높은 비율로 근본주의적 교리를 긍정하고는 있으나, 이들의 긍정률 또한 개신교 전체의 긍정률과 비교할 때 유의미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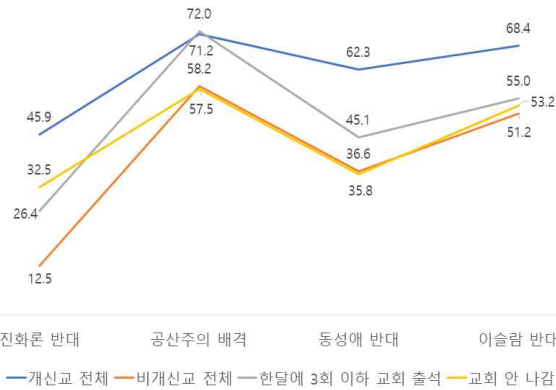
이뿐만이 아니다. 개신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제도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신자들과 교회에 드문드문 출석하는 신자들은 거의 모든 지표에 있어서 개신교 전체 평균과 반대의 길을 향하고 있음을 [그림5]와 [그림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종교나 가르침의 진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긍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구원 가능성에 대한 긍정도 과반이 넘을 정도로 다른 종교를 우호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다원주의적 태도에 접근해 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개신교인들의 행보는 더욱 과감하다. 이들은 진화론을 대하는 태도를 제외하면 거의 전적으로 비개신교인의 평균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대적 이념과 과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비개신교인에 근접해 있다([그림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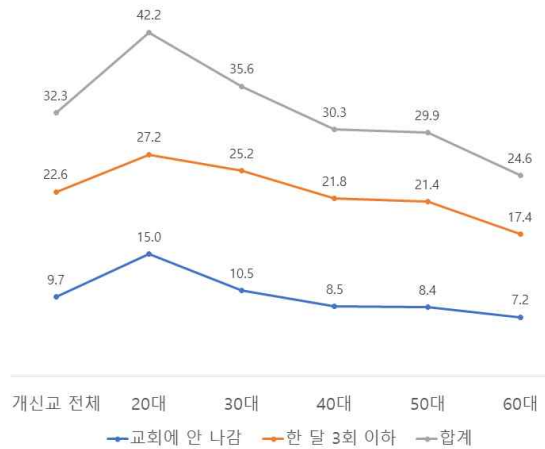
[그림4] 근본주의적 교리에 대한 긍정 ('그렇다' 비율)  
(Base=전체, N=차례로 1000명, 226명, 97명, %, 긍정률 기준)



[그림5] 다른 종교에 대한 긍정 ('그렇다' 비율)  
(Base=전체, N=차례로 1000명, 226명, 97명, %, 긍정률 기준)



[그림6] 시대적 이념과 과제에 대한 반대('그렇다' 비율)  
(Base=전체, N=차례로 1000명, 1000명, 226명, 97명, %, 긍정률 기준)



[그림7] 연령별 교회 출석 양상(열심히 출석하지 않는 신자 중심)  
(Base=전체, N=차례로 160명, 208명, 251명, 230명, 151명, %, 긍정률 기준)

제도교회에 포섭되지 않은 채 개신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리고 제도교회에 포섭되어 있기는 하나 드문드문 출석하고 있는 이들은 제도교회가 제공하는 근본주의적 대안에서 이미 멀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림7은 교회에 잘 나가고 있지 않은 개신교인이 연령대별로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개신교인의 비율은 20대가 압도적이며(15.0%로 7.2%인 60대의 2 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한다. 여기에 드문드문 출석하는 신자들의 비율을 합하면 20대 신자의 42.2%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대별 분포의 추이는 이러한 양상이 젊을수록 급격하게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회로부터의 이탈을 주도하고 있는 신자들은 젊은이들인 것이다.

따라서 확인되는 것은 20대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층에서 근본주의적 제도교회로부터 이탈하여 동시대의 시대정신에 따르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제도교회가 근본주의적 대안에서 벗어나 시대정신과의 교감 속에서 새로운 대안적 기독교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도교회로부터 이탈하는 개신교 젊은이들이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개신교인들이야말로 한국 개신교의 미래를

보여주는 시금적인 것이다.

## II. 생태위기: 우리는 우리의 현재 삶을 변경하지 않는 한에서 생태환경의 변화를 걱정한다

### 1. 생태위기에 관한 설문통계조사의 개요

한국 개신교인의 생태위기에 관한 설문은 총 11문항으로 환경 문제 및 기후 변화에 관한 인식(4문항), 정보 습득의 경로(1문항),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1문항), 환경 및 기후 운동의 참여에 관한 인식(비개신교와 개신교 공통 3문항, 개신교 대상 2문항)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2018년 10월 송도에서 개최된 IPCC 총회가 “1.5°C 특별보고서”(이하, ‘특별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기후 ‘변화’ 논의는 기후의 ‘위기’ 내지 ‘재난’ 논의로 빠르게 옮겨가는 추세다. 하지만 문제는, 기후와 환경에 관한 운동권 내에서의 이러한 위기의식이 지구적 사회 체계(system) 및 체제(regime)를 그야말로 긴박하고도 발 빠르게 대안적 체계 및 체제로 전환하려는 지구적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별보고서는 기후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지구의 모든 인류가, 특히 책임 있는 국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일치하여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탈성장<sup>13)</sup>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탈성장은 시장 중심의 지구적 경제체제가 다른 체제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시장사회체제에 익숙한 개인의 삶도 시장을 중심으로 한 방식이 아닌 다른 낯선 방식의 삶으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설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시민들이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러한 인식의 내외적인 출처는 무엇인지, 이에 따라 한국의 시민들은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길 원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환경과 기후 문제에 있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포함한다. 더하여, 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회의 활동 방식에 관한 문제도 확인하고자 했다.

### 2. 생태위기에 관한 설문통계조사의 중요 결과 두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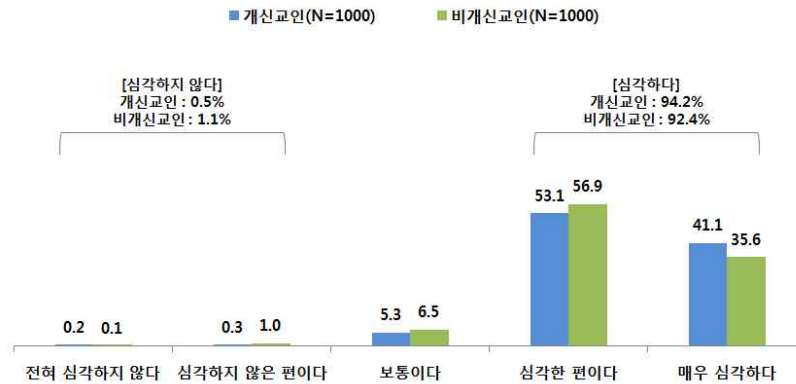
환경 및 기후 변화 분야에 대한 1차 통계분석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결과 중 두 가지를 요약해서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인 대부분이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은 생존의 절박함에 기초하지 않고 삶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걱정이나 공동체적 세계관에 기초한 신념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개신교인들에게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적지 않은 개신교인들이 교회가 환경과 관련한 시민단체를 단지 지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환경 운동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 1) 한국인은 생태위기에 깊이 공감함으로써 지금의 삶을 유지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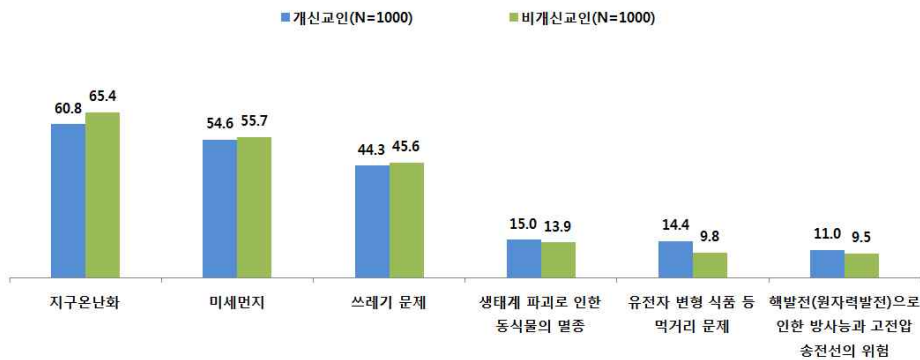
진화론,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의 한국 사회 유입 등과 같은 시대적 이념과 과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13) 탈성장이란, 자본과 부의 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을 통하지 않고 사회 진보와 번영, 그리고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주느비에브 아잠, “탈성장: 검소한 사회로 가기 위한 상상력,”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 (서울: 협동조합 착한책가게, 2018), 67-88.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더 보수주의적인 입장에 섬으로써 시대정신과 다른 결을 보인 것과 달리, 환경과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유의미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그림8] 환경 문제 및 기후 변화의 심각성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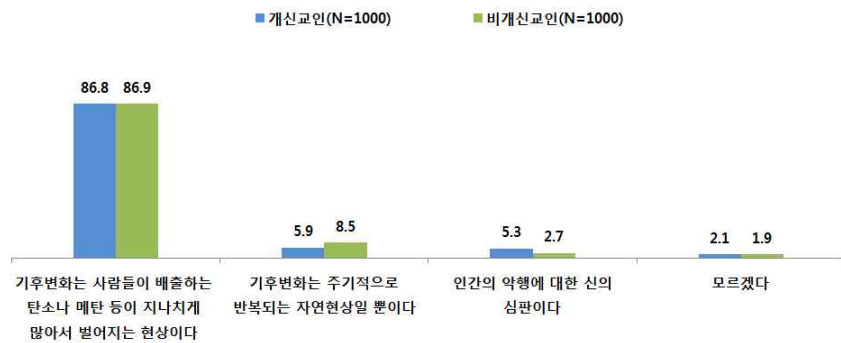


[그림9] 환경 문제 중 시급한 문제(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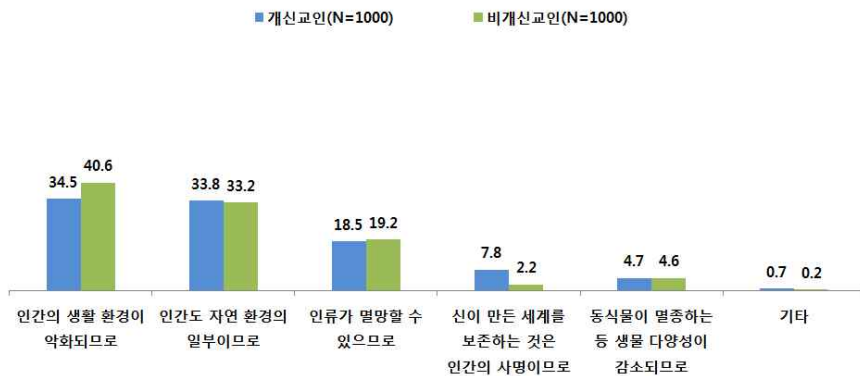
[그림8, 9]가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개신교인이건 아니건 절대다수(개신교인 94.2%, 비개신교인 92.4%)가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기후위기(개신교인 60.8%, 비개신교인 65.4%)와 미세먼지(개신교인 54.6%, 비개신교인 55.7%)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10]에서 보듯, 한국인들 대부분은 기후위기의 원인을 과도한 인위적인 온실기체라는 과학적인 사실에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신교인 86.8%, 비개신교인 86.9%). 이상의 설문 통계 결과를 종합할 때, 한국인은 대체로 생태환경의 파괴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합리적인 관점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성의 인지에서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인을 말해주는 설문의 결과([그림11] 참조)는 향후 한국에서의 환경운동이 어떤 양상을 띠 것인가를 긍정적으로만 예측할 수 없도록 한다. 한국인들이 환경 보호를 실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두 개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생활 환경이 악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개신교인 34.5%, 비개신교인 40.6%), 나머지 하나는 인간도 자연환경의 일부이기에 자연을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성을 성취하는 것이다(개신교인 33.8%, 비개신교인 33.2%). 이러한 결과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 중 하나로 미세먼지를 꼽았다는 사실과 함

깨 다음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반드시 탈성장의 논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환경과 기후에 관한 한국인의 우려는 지금과 같은 삶의 환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지금의 삶을 심대하게 변경해서라도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기초해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인류 자신의 멸망을 초래할 심대한 상황이라는 인식은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나 20%가 채 안 된다. 따라서 대다수 한국인의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은 경제성장이라는 신화에 기초한 현재의 사회체제를 반드시 변경해야만 한다는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과 기후에 관한 한국인의 위기의식이 절대적인 비율임에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급진적이고도 긴박한 사회구조의 변경, 즉 성장사회에서 탈성장사회로의 전환과 같은 극적인 실천을 한국사회에서 기대하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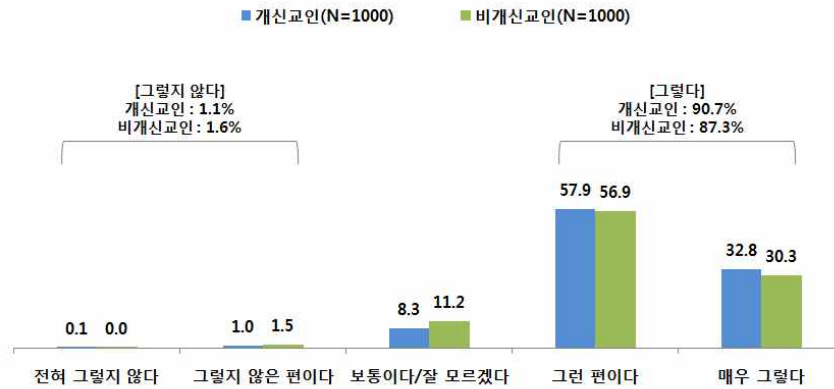
[그림10] 기후 변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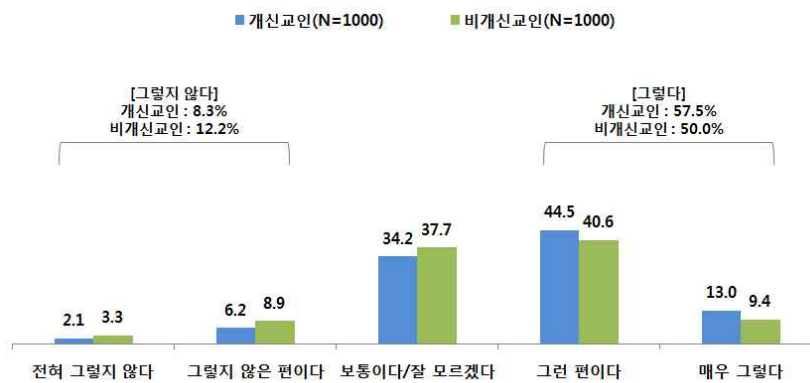
[그림11] 환경 보호 이유

또한, 환경 파괴 및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압도적인 의지(개신교인 90.7%, 비개신교인 87.3%, [그림12] 참조)는 이러한 실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덜 압도적인 의지(개신교인 57.5%, 비개신교인 50.0%, [그림13] 참조)로 인해 완화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인의 환경과 기후에 대한 위기의식이 급진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증이다.





[그림12]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실천 의향



[그림13]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비용 감당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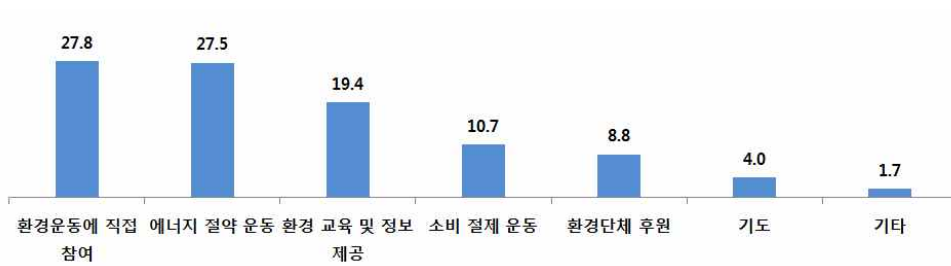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의 논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한국사회에서는 탈성장을 기반으로 한 환경 파괴 및 기후위기 대처 운동이 전개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기후 변화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 리스트에서 의료와 세금 다음 항목에 추가하면 되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기후 변화는 문명의 경종이며 …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구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 우리 인류가 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메시지다.”<sup>14)</sup>라는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의 경고가 한층 더 절절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 2) 한국 개신교인은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하길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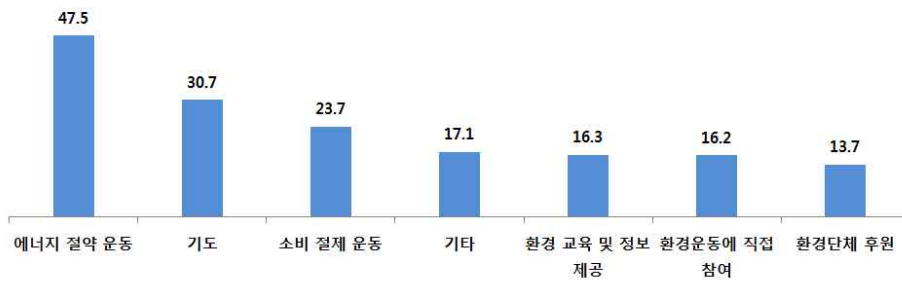
그런데 적어도 한국 개신교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의 논리가 비어있는 지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019년 한국 개신교인의 27.8%는 지구의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 운동에 직접 뛰어든 준비가 되어 있다(그림14 참조). 물론 이와 거의 대등한 비율(27.5%)로 에너지 절약이라는 소극적인 실천에 만족하고자 하는 신자들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가장 흔한 환경운동이 에너지 절약인 반면(47.5%),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교회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16.2%라는 사실(그림15 참조)과 견주어볼 때, 환경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신자들의 비율과 에너

14) 나오미 클라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파주: 열린책들, 2017), 49.

지 절약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는 신자들의 비율이 거의 대등하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한다: 2019년 한국의 개신교인들에게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소극적 실천의 관성보다 환경운동에의 직접 참여라는 적극적 실천의 관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림14] 지구 환경 관련, 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 (개신교인 대상)



[그림15] 출석 교회에서 진행 중인 환경 관련 활동 (개신교인 대상, 중복응답)

문제는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탈성장사회로의 이행 운동과 같은 결을 갖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지점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의 논리가 비어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은 상황이 이미 기울었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환경운동 단체의 새로운 사명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 개신교인 사이에는 후원을 통해 환경운동의 구체적 실천을 환경운동 단체에 맡기는 것(8.8%)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에 직접 뛰어들려고 하는 의지가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환경운동 단체는 단지 후원약정서를 들고 교회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 탈성장사회로 가는 환경 실천의 구체적 내용과 매뉴얼을 들고서 환경운동의 대등한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 교회를 방문해야 한다.

## 2019년, 개신교인의 젠더 인식

송진순  
(이화여자대학교)

### 1. 들어가며

갈등과 혐오.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서 이전에 지역, 이념, 세대 갈등이 사회분열의 원인이었다면, 현재 젠더갈등은 시급한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성 혐오와 성차별적 구조가 고착화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여성대상 범죄, 미투운동, 페미니즘은 젠더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젠더이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종교라는 중층의 구조를 담보하는 공고한 사회 문제이다. 그렇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변화와 실천적 차원의 실행이 절실히 요청된다.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젠더 이슈로 진통 중이다. 이에 대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이슈의 보편화·대중화 시대에 대한 전망도 우세하다.

그러나 대중들, 특히 개신교인도 같은 수준의 젠더 의식을 공유하고 있을까? 성별 고정관념과 남성중심적 시각에 대한 비판, 성평등 사회로의 요청과 정책들이 시행된다고는 하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젠더갈등은 더욱 첨예하고 극단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사는 젠더 이슈에 관한 개신교인의 인식 지형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비개신교인과 비교하여 개신교인들은 성차별과 혐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기독교 신앙은 젠더 인식에 어떤 영향력을 갖는가?하는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었다. 이에 따라 개신교인의 젠더 인식은 총 15 개 문항 중 다음 네 개 항목으로 진행되었다.

- 1) 한국사회의 남녀 성평등 인식과 해결방안(3문항)
- 2) 낙태 관련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2문항)
- 3) 동성애 관련 인식과 태도(6문항)
- 4) 성 이슈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식(4문항)

설문조사에서는 첫째, 한국 사회의 성차별 정도와 인식, 이에 시급하게 시행될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둘째, 구체적으로 ‘낙태죄 헌법불일치 판결’(2019. 4. 11)안과 관련하여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종교별 인식 차이에 주목하고자 했다. 셋째, 개신교와 동성애 혐오의 긴밀한 관계를 집중 조명했다. 혐오가 개신교의 정체성이 되고, 교회가 다른 존재, 다른 소리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각 개신교인들의 다양한 인식의 스펙트럼과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교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개신교가 대학 커리큘럼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사상을 정죄하며 이단시하는 현실에서 본 조사는 교회 내 다양한 소리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교회 내 성 문제와 그 해결방식을 물음으로써 교회의 성 담론과 실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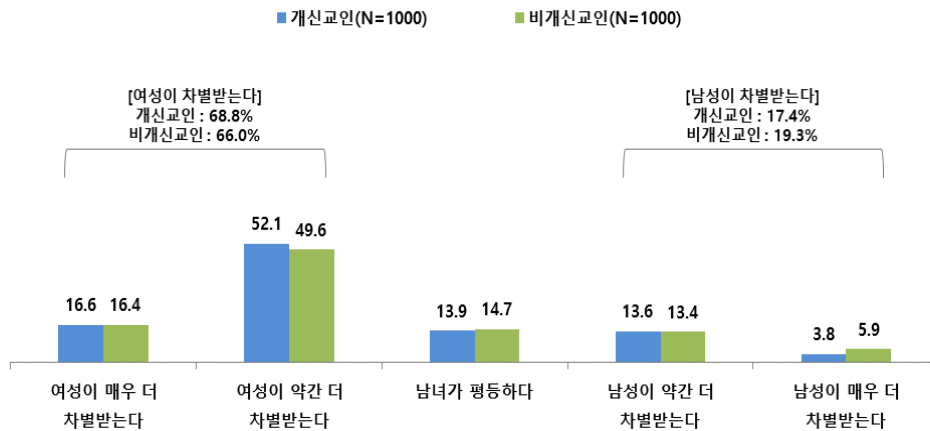
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와 관련 해석을 제시했다.

## 2. 젠더영역 설문조사 결과

### 1) 한국사회의 남녀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 여성차별적 현실에 대해 종교 간 인식 차이 거의 없으나 성별 간 차이 존재

한국사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차이는 없었다. 본 질문에 대해 개신교인 16.6%, 비개신교인 16.4%가 “여성이 매우 더 차별받는다”고 생각했고, 절반에 해당하는 개신교인(52.1%)과 비개신교인(49.6%)이 “여성이 약간 더 차별받는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개신교인 68.8%, 비개신교인 66%가 “여성이 차별받는다”라고 인식했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인식(개신교인 13.9%, 비개신교인 14.7%)과 “남성이 약간 더 차별받는다”는 인식(개신교인 13.6%, 비개신교인 13.4%)은 종교 유무에 관계 없이 같은 수준에서 답변되었다. 이는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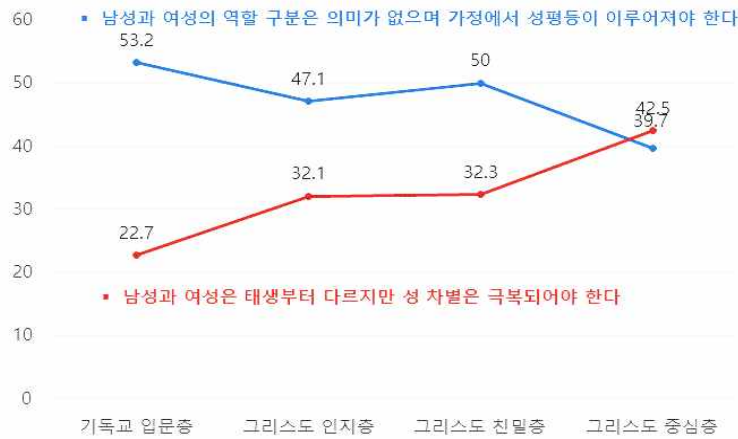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사회의 성평등 수준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 68.8%, 불교 63.6%, 천주교 65.8%, 무종교 67.9%가 “여성이 차별받는다”라는 답함으로써 종교 간에도 여성 차별에 관한 인식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신교인 남자 47%, 비개신교인 남자 41.2% 반면, 개신교인 여자 85.8%, 비개신교인 여자 85.7%가 여성차별적 인식에 동의함으로써 성별 간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당수 남성들(개신교인 32.4%, 비개신교인 36.8%)이 “남성에 대한 차별”에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같은 답변에 대한 여성의 응답률(개신교인 5.6%, 비개신교인 5.4%)에 비교해볼 때 성차별적 인식이 남녀 간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인정하면 서도 현재 사회에서 일고 있는 여성적 시각과 움직임이 남성에게는 역차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 질문으로 여성차별적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정 내 성평등”에 대해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가정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률이 48%대로 가장 많았다(개신교인 48.4%, 비개신교인 48.5%).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은 태생부터 다르지만

성차별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개신교인 31.4%, 비개신교인 25.4%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신교인 내에서는 신앙의 정도, 즉 신앙이 깊고 직분이 높을수록 앞의 두 답변이 역전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현재 성차별적 구조에 대해서는 신앙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고정관념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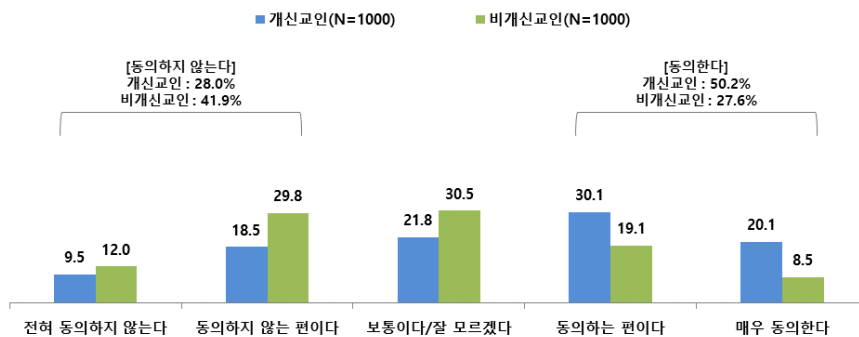


[그림 2] 가정 내 성 평등 인식과 신앙의 정도

## 2) 낙태 관련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 개신교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는 태아의 생명권에 더 큰 관심 보여

낙태 이슈에 대해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뺏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개신교인 50.2%, 비개신교인 27.6%가 동의했다. 이는 불교 29.5%, 천주교 34.1%, 무종교 23.1%가 동의한 것과 비교해볼 때 개신교인의 동의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의률은 개신교인 중 남성(55.7%)과 60대(62.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신앙도와 직분이 높을수록(목회자 73.9%, 중직자 68.9%)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3]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뺏는 행위’라는 주장

반면,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의 44.8%, 비개신

교인의 58.6%가 ‘동의한다’라고, 개신교인 30.7%, 비개신교인 16.9%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동의율은 개신교인 중 여성과 20대가 50%대로 높게 나타났고,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질문과는 반대로 직분이 낮고 신앙도가 낮을수록 동의률이 높았다. 비개신교인 중에서도 여성과 20대에서 65%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종교별로는 불교 66.3%, 천주교 46.8%, 무종교 61.7%로 타종교에서는 천주교가 낮은 동의률을 보였으나 개신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절반 이상의 개신교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보다는 태아의 생명권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낙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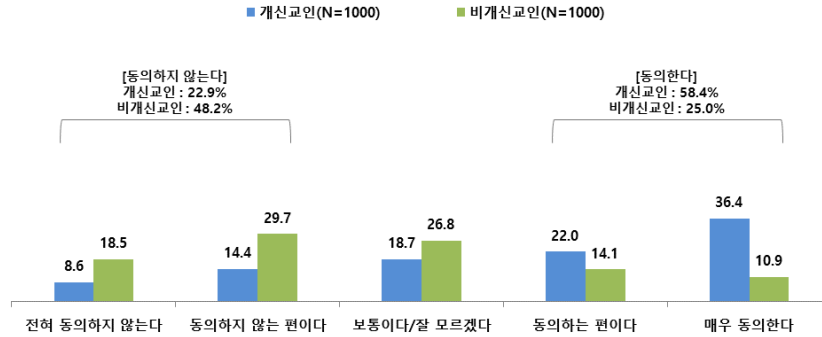
실제 개신교는 낙태가 문란하고 부주의한 성관계와 생명경시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고 반대해 왔다. 그래서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을 문란하거나 무책임한 여성으로 여기고 성서적, 윤리적 차원에서 정죄하고 낙인찍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철저하게 제외되었다. 주목할 것은 임신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상황 역시 간과되었다는 점이다. 사회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성에게 임신, 출산, 육아의 책임을 전담하면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비판까지도 여성의 몫으로 돌리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은 자신과 태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놓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된다.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존중과 건강한 성윤리 담론만큼이나 여성의 기본권과 존엄에 대한 현실적 문제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성의 삶의 맥락을 제외하고 낙태에 대한 논의와 반대를 말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그들을 사회 밖으로 내모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 3) 동성애 관련 인식과 태도

： 절반 이상의 개신교인이 동성애를 죄로 인식, 비개신교인이 동성애자에 대한 예수의 환대에 더 큰 기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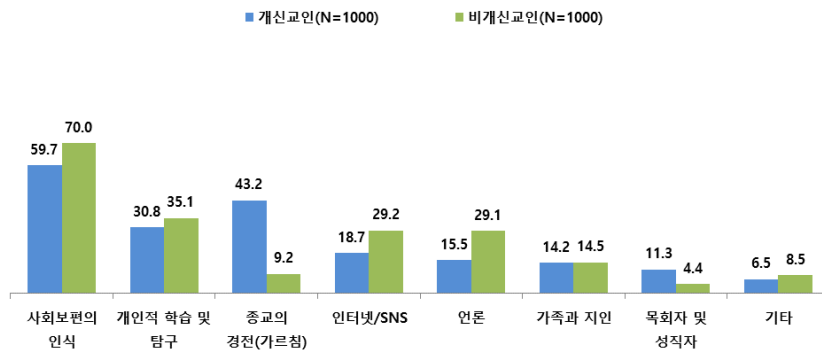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은 동성애에 대한 인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동성애는 죄”라는 주장에 대해 개신교인 58.4%, 비개신교인 25.0%가 동의한다고 답함으로써 33.4%p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비개신교인이 48.2%로 개신교인 22.9% 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개신교인 중 동의률은 연령이 높고, 신앙생활이 활발하며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기독교 입문층이 27.7%, 그리스도 인지층 52.8%, 그리스도 친밀층 77.6% 그리스도 중심층 81.3).

연령별 동의률은 20~30대의 개신교인(41.1%, 58.8%)과 비개신교인(15.5%, 13.9%) 간 차이가 심했다. 심지어 젊은 개신교인의 인식은 노년의 비개신교인과 비슷한 인식 수준이었다. 종교별 동의률은 천주교 38.6%, 불교 26.6, 무종교 17.7% 순으로, 개신교인과 타종교인 간 현저한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신앙관과 관련해서는 성경 무오설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동성애 혐오적 인식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개신교인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주류의 목소리와 달리 교회 내부적으로 유보적 입장(18.7%)이나 비동의를 입장(22.7%)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림 4] 동성애에 대한 죄 인식 비율

그렇다면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사회보편의 인식’을 가장 많이 꼽았고(개신교인 59.7%, 비개신교인 70.0%), 그 다음으로 개신교인은 ‘종교의 경전’(43.2%)을, 비개신교인은 ‘개인적 학습 및 탐구’(35.1%)를 많이 꼽았다. 비개신교인은 개신교인보다 사회 보편의 인식, 인터넷/SNS, 언론 등 대중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보수적 신앙관을 가질수록 신앙도와 직분이 높을수록 경전에 대한 비율이 50%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본주의적 성향의 보수 개신교가 교인들에게 일방적 방식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것이 동성애 및 외부 세계에 대한 경직된 사고와 배타적 태도를 갖게 하는 원인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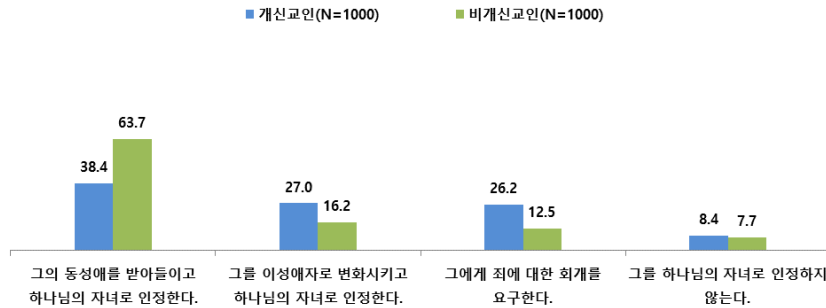


[그림 5] 동성애자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그런데 개신교인의 동성애 혐오적 인식만큼이나 주목을 끄는 결과가 있었다.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개신교인은 ‘그의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가 38.4%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그를 이성애자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27.0%)와 ‘그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한다’(26.2%)는 답변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비개신교인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가 63.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신교 내에서는 신앙생활이 활발하며 신앙도와 직분이 높을수록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변화’시키거나 ‘동성애자에게 회개를 요구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응답률은 목회자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21.4%).

비개신교인들이 ‘예수라면 동성애자를 환대하고 수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이것은 비개신교인이 생각하는 예수 이미지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개신교인보다 비개신교인이 정죄나 배척보다는 환대와 관용의 기독교적 가치관에 더 가깝게 응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예수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신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혐오에 내재된 도덕적 우월감이나 계몽의식을 떠나 한 인간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환대하는 것, 이는 현재 개신교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림 6] 동성애자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추측

#### 4) 성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식

: 전문 기관보다는 교회 자체적 해결에 의존하는 경향

“교회 내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신교인 6.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응답률은 성별과 연령, 직분, 신앙도와 관련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목회자의 높은 응답률(20.8%)은 교회 현장에서 성문제가 은폐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던 교회의 폐단을 보여준다.

후속 질문에서 “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묻은 결과, ‘당사자의 사적 해결’(25.9%)과 ‘공적 논의의 해결’(24.5%)이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됐고, ‘주요 직책자의 중재’(18.2%)가 뒤를 이었다. 그 외 ‘모르는 척하고 있다’ ‘이야기가 없어졌다’(16.8%)와 ‘경찰서나 성폭력센터 같은 전문기관에서 해결했다’(14.5%)고 답변됐다. 교회 내 성문제는 전문 기관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높았고, 해결 과정은 공적 논의와 남성 권위자들에 의해 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회 통치구조에서 공적 논의 역시 남성 권위자들에 의한 해결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40% 이상 내부 논의로 성문제를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 이슈에 대해 보수적인 이유”로는 ‘성경의 가르침’이 36.7%로 가장 많이 꼽혔고, 그 다음으로 ‘한국 교회의 전반적 분위기’ 27.5%, ‘기독교의 전통적인 인식’ 25.5% 순으로 나타났다. ‘목회자 설교’는 5.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응답률은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한국 교회 전반의 분위기’는 일반 교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3. 나가며

성차별 이슈와 해결책에 대해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 유의미한 인식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낙태



와 동성애 이슈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절반 이상이 개신교인이 낙태와 동성애에 대해서는 근본주의적 신앙관에 입각하여 부정적이거나 배타적 태도를 취했다. 이는 타종교인들의 인식과 태도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기존의 한국 교회의 가부장적 권위 구조와 보수적 신앙관은 여성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면서 성차별적 인식을 더욱 강화해왔다. 이러한 교회 문화에서 낙태의 책임과 비난은 오롯이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는 동성애자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확산됐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라는 교회의 일관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보여준 동성애에 대한 혐오는 사회 내 개신교 혐오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개신교가 누군가의 존재를 지우고 있는 만큼 개신교의 존재 역시 지워지고 있음으로 통렬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

율법과 정결례에 근거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인간을 존재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교회는 그들만의 권위 구조에서 누군가의 삶을 부정하고 다른 소리를 정죄하며 획일화된 방식을 강요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존중하고 다른 소리들이 기꺼이 소통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젠더 이슈에 관한 개신교인의 배타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타자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인식의 스펙트럼을 꾸려 가는 개신교인들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성 목회자 중심의 위계적 권위 구조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수평적 구조로의 전환, 그리고 교회에서 젠더 담론이 개방적이고 유쾌하게 이야기되는 문화를 이루어 가려는 과정 그 자체로 우리는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 하나님 나라, 그 불가능의 가능성을 꿈꿔볼 수 있을 것이다.



## 제 3 부. 논 찬

---



## 개신교인의 정치의식 (극우정치와의 관련성)

이 삼 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1. 개신교 신자든 아니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대답하는 태도는 대체로 중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이나 재산을 묻는 경우에도 상류와 하류는 절대 소수이고 중산층, 중간층이라 답하는 사람이 60 내지 70 % 이상인 경우가 많다. 정치적 성향을 묻는데선 중도가 50 %전후이고, 약간 진보와 약간 보수를 합치면 94%에 이르는데, 과연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90% 이상)이 중도 내지 약간 보수나 약간 진보에 속할까?

매우보수와 매우진보를 싫어하는 경향 때문에 자기 성향을 주관적으로 중도라고 평가하는것 같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 기준을 보다 엄밀히 만들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와 진보의 기준을 경제문제, 북한과 통일 문제, 자유민주주의 문제에 따라 나눈다면 입장들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분해서 물어야할 것 같다. 경제문제에서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선 매우 보수적일 수 있다.

2. 난민에 대한 물음에서 인권보장 차원에서 보호를 찬성한 25%가 진보 이며, 반대한 23%와 임시 보호 후 추방을 택한 51%를 합쳐 본 74%가 보수라고 볼 수 있다.

6.30 한, 북, 미 정상회담의 평가에서 보면 중도(53%임)와 보수(18%+14%=32%)를 합하면 85%가 남북관계와 평화문제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며 평화협정을 기대하는 12.8%만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진보 성향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3. 개신교인의 정치성향 분석에서 극우정치와의 관련성을 지적하고 위험성을 주시한 이상철 박사의 평가는 정확했다고 생각한다.

5.18 왜곡 금지법에 대한 의견과 전광훈 목사의 대통령 하야발언에 대한 의견, 태극기 부대 참여에 대한 평가 등을 살펴보면 극우 성향의 입장들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태극기부대 참여를 개신교인 74%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전광훈 목사의 대통령 하야 발언에 72%가 동의하지 않으며, 5.18왜곡 금지법 제정에 62%가 찬성하는 것은 개신교인 절대다수가 극우성향의 정치세력을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의 발언에 동의하며(10%) 좌경화를 저지하겠다는 전 목사의 입장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적극 지지하겠다는 세력(3.3%)을 합친 13.4%를 극우세력에 치우친 위험 그룹으로 본 이상철 목사의 분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는 여기에 5.18 왜곡 금지법을 반대한다는 17.4% 개신교인과 잘 모르겠다는 20.2%를 합한 37.6%의 개신교인이 모두 극우정치 (남북화해 반대, 흡수통일 주장)에 동조할 위험 요소로 간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전광훈 목사의 대통령 하야발언에 동의하거나(8.8%), 잘 모르겠다고 반대표시를 하지 않은 개신교인(19.3%)을 합친 28%의 개신교인도 위험 그룹이다.

또한 태극기부대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며(7.5%), 모른다고 반대하지 않는 개신교인 (18.1%)을 합친 25%도 잠재

적 극우세력 지지층으로 볼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기독교인을 바탕으로 둔 극우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위험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개신교인의 정치의식 (평화 통일 분야)

1. 남북통일과 평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유의할 점은 통일에 대한 입장과 평화에 대한 입장이 병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화의 지지자들이 통일에 대해선 부정적일 수가 있다. 그것은 평화적 통일이 아닌 경우엔 전쟁이나 갈등의 심화기 생김으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흡수 통일에 부정적인 평화주의자가 많다.
2.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개신교인이나 비교인들이 대체로 서두르지 말고 여건의 성숙을 기다려 하자는 의견, 즉 현상 유지론이 65%로 다수이다. 통일문제가 시급하니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25% 정도이고, 관심도 필요도 없다는 의견이 10% 정도이다. 진보와 보수의 비율은 대체로 25%대 75%로 국민의 4분의 1만이 적극 지지론자라고 할 수 있다.
3. 그러나 현 정부의 평화체제수립을 통한 통일추진정책에 대해서는 40% 정도가 지지하고 있으며, 적극 반대는 28% 정도이며 32%가 성과를 관망 하겠다는 입장이다.  
평화적 통일에는 70% 이상의 국민들이 찬동하지만, 북한을 위협시 하며 평화적 통일이 불가하다고 비판하는 층, 남북화해나 통일은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보아 반대하는 층이 28% 정도라고 볼 수 있다.
4. 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인식은 개신교인과 비교인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일방식이나 체제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남한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에 대한 집념은 개신교인(48.4%)이 비개신교인(39.7%) 보다 훨씬 강하다. 양 체제공존이나 절충 가능성도 개신교인들이 비교인 보다 낮게 보아 개신교인의 입장이 더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5. 개신교인들의 보수적 통일관의 배경에는 북한의 종교적 탄압과 전쟁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의 반공적 신앙과 교회의 설교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과 미디어의 영향도 크지만 교회의 설교와 교육이 북한을 신앙적으로 비판해 왔기에 개신교인들의 평화 통일 의식은 매우 보수적이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화해나 통일은 불가하다고 보는 것 같다.  
교회의 평화교육과 화해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한국 개신교인의 경제의식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논평

최 현 종

(서울신학대학교)

본 보고서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주)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한국인의 사회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 중 ‘경제의식’에 관한 부분이다. 보고자의 표현대로 정치와 문화의 영역에서 개인이 주체적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함에 반하여, 경제적 영역에서는 ‘소비의 주체’로서만 자신을 실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일반과 특히 개신교인의 경제의식을 조사하여 비교해 보는 일은 매우 의미있다 할 것이다.

보고자는 조사 내용을 크게 성장-분배, 개인-구조의 틀에서 비교 분석하며, 나아가 개신교인의 신앙과 경제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2개의 틀에서의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신앙과 경제관’에서 분석한대로, 적어도 ‘경제’분야에 관해서는 한국 개신교가 과거와 같은 경쟁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자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사실 한국갤럽의 일련의 종교의식조사에서도 확인되는 바로, 개인 생활 속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1984년 68%에서, 2014년 52%로 감소하였다(한국갤럽, 2015:37). 본 조사에서 드러난 보다 구체적인 경제관에의 영향(그림 7)은 이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는 종교가 점차 삶의 주변적 위치로 밀려나, 전체 삶을 조립하는 요소들 중의 하나로만 작용하고, 종교가 구속력을 점차 잃어가는 종교의 ‘주변화’를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독교 신앙 및 교회의 가르침이 경제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양가적인 응답(그림 9)도 이를 어느 정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경제의식에 차이가 없다고 확실하게 결론짓기 전에 몇 가지 조사 및 분석 방법에서의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조사가 실시한 ‘온라인 조사 방법’의 문제이다. 온라인 조사는 대면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현대 사회의 특성상, 대안적인 조사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의 사용이 국민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과연 온라인 응답자가 조사대상자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마치 과거의 정치 의식조사가 지역전화만 실시함으로써 보수적으로 편향된 결과를 낳은 것과 상반될 수 있다. 즉, 좀 더 진보적일 수 있는 온라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개신교인이 응답자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응답자 특성을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각각의 특성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도 실제적인 차이를 가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종교인의 경우 종교인에 비해, 남성,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동일하게 만들 경우 이러한 특성에 따른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차이가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한 비교를 위해서는 무조건 응답자 특성을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각 종교의 인구학적 특성에 맞추어 응답자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비개신교인의 종교별 비율도 전체 인구 구성과 맞지 않는다. 2015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전

체 인구 중 불교인은 15.5%, 가톨릭은 7.9%, 무종교는 56.1%를 차지한다. 이와 비교할 때, 본 조사의 응답자는 무종교인 및 불교인을 과소표집하였고, 반면에 가톨릭 성도는 과대표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비개신교인의 의견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와 연결하여, 응답을 단순히 개신교-비개신교인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개신교-불교-가톨릭-무종교를 함께 비교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단순한 응답자 비율의 제시에 그치지 말고, 이러한 차이 정도가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 주는 통계적 검증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단순히 평균 차이에만 의존하지 않고, 표본 수, 표준 편차 등 다른 요인에도 좌우된다. 물론 평균 차이가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통계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간다면, 단순히 종교적 요인에 따른 비교가 아니라, 이러한 종교적 요인과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종교인-비종교인의 비교에서 우리가 통제해야 하는 대표적인 중요 변수는 '연령'이다. 작금의 '태극기'와 '촛불' 집회의 분열에 있어서도, 연령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생각되고 있는 바, 단순히 개신교-비개신교인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연령이 갖는 의미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설적으로 생각하면, 젊은 세대의 개신교인의 생각은 비개신교인(혹은 무종교인)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개신교인에서 차지하는 나이 든 세대의 상대적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조사결과가 '일부 개신교 목회자/지도자들의 주장과 사뭇 다른 결과'라는 보고자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개신교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목회자,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특수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즉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에 더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 있는 이들의 보수적 경향이 전체 개신교인을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신교 전체에 대한 보수적 프레임을 해명하기 위해서도, (개신교에 대한 일방적 보수 프레임의 탈피를 위해서도) 종교적 요인과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관계를 밝히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교회 위기와 생태 위기 앞에서

정 경 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

한국 개신교 그리스도인의 ‘신앙관’과 ‘생태 위기’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신익상 박사의 분석에는 동시대를 호흡해야 할 교회의 의미와 목적을 근원적으로 성찰하게 해주는 묵직한 화두들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조사 통계와 분석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신익상 박사가 제기하는 몇 가지 중요한 통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사유 없는 신앙’에서 ‘사유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첫째, 개신교인의 신앙관 조사 결과는 한국교회에서 근본주의 교리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익상 박사가 “어정쩡하게 완화된 근본주의”라고 진단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근본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있지만 아직 대안적 신앙으로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근본주의 신앙으로부터는 ‘탈(脫)’하고 있지만 새로운 신앙으로의 ‘향(向)’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과도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뒤로 돌아가려는 이들과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한국 그리스도교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신익상 박사가 말하는 “내용 없는 근본주의”를 비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내용 있는 신앙과 신학’의 모색과 확산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은 사유 없는 맹목적 신앙에서 사유하는 비판적, 성찰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둘째, 이번 신앙관 조사는 한국교회의 종교적 배타성이 완화되고 있음도 보여준다. 그리스도교 하면 배타주의부터 떠올리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통념과 달리 응답자 중 이웃종교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들의 비율이 꽤 높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종교다원사회인 한국에서 이웃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그동안의 대결에서 대화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현상일 수 있다. 그래서 신익상 박사도 이를 오늘의 한국 개신교인들이 포용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신앙관 조사 결과와 실제 교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신앙 행태 사이에는 온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 교회 현장에서는 이웃종교에 대한 배타주의적 태도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마도 교회의 목소리를 다수 평신도의 목소리가 아니라 소수 목회자의 목소리가 과잉대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열린 사적, 공적 공간에서 이웃종교인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평신도들은 이웃종교에 대한 포용주의적 태도를 취하지만, 그것을 닫힌 교회 공간에서는 나눌 기회를 갖기 어렵다. 교회 강단을 배타주의적 입장의 목회자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성에 대한 평신도의 인식 조사와 함께 목회자의 인식에 대해서도 특화된 후속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주요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외부의 적”인 진화론,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 등에 대한 개신교인의 반감과 공격성이 교회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신익상 박사의 분석은 타당하다. 내부의 문제를 해결



하는 가장 쉬운 길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의 타자화와 그들에 대한 혐오는 이 시대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와 정비례할 것이다. 문제는 그 결과가 교회 위기의 극복이 아닌 교회 위기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이미지는 더 이상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혐오의 종교’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대 퇴행적이고 결과적으로 반(反)그리스도교적인 타자혐오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작동하는 방식-예를 들면,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여전히 과반의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성서문자주의적 신앙 행태와 신학 내용 등-에 대한 더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신앙관 조사는 오늘의 한국교회에서 이성과 관련된 진화론에 대한 반감은 줄어들었지만 이념과 관련된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교회에서만 나타나는 종교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현상이다. 국제사회는 탈냉전 시대에 들어선 지 오래인데, 유독 한반도에서만 칠십 년 넘게 남북 간 남남 간 정치적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반공주의가 비개신교인들에 비해 개신교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는 통계가 말해주듯, 교회가 냉전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지속시키는데 복무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신앙전력화(信仰戰力化)’를 대가로 ‘전군(全軍)의 신자화’를 특혜로 누리온 반공 그리스도교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분단과 전쟁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교회와 사회 안에 치유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이 반공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대한 참회와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 없이는 한국교회는 한반도 최후의 냉전 세력으로 남을 것이다.

다섯째, 신앙관 조사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간직하지만 교회에는 더 이상 소속하지 않는(believing without belonging) 그리스도인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준다. 이는 현대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탈종교화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한 보다 치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정재영 박사의 ‘가나안 신자’ 현상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근본 이유가 “기존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반발”보다는 “교회라는 틀 자체를 불편해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개인주의적 신앙 또는 종교의 사사화(私事化)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 시대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가 윤리의 위기를 넘어 의미의 위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윤리적 변화 노력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하는 동시대적 신앙과 신학의 탐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길이다.

### ‘녹색 그리스도인’의 급진적 사유와 구체적 행동

첫째, 생태위기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는 개신교인이 위기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의 ‘절박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는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고, 더 정확히 말하면 지구 생태계에 끔찍한 상처를 주고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언젠가”가 정확히 어느 때인지 모르기에-또는 알고 싶지 않기에-불안을 애써 지우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태를 반영한다. 여기에는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종교인, 비종교인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교의 근본 문제다. 세계를 창조주 하느님의 선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조차 생태 감수성과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윤리의 문제 이전에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상의 예시여야 할 교회가 세상만큼이나 또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라는 것, 그것이 생태위기가 드러내는 교회위기다.

물론, 생태적 관심과 책임에서 세상과 아무런 차이도 나타내고 있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문제지만, 그리스도인조차 그렇게 만들어버린 한국사회의 마음이 더 근본 문제일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생태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집단공모와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한 집단부정은 범종교적, 초종교적 사회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들 중 하나는 최근의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연구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면 사람들이 민주주의, 인권, 생태와 같은 탈물질주의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기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한국사회에서만 예외라고 한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가 전쟁과 IMF 금융위기 등 역사적, 사회적 재난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게 이념이 되어버린 생존주의 사회의 불안감이 현재의 생태위기에 대한 감수성과 미래의 파국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신익상 박사가 진단한 것처럼 오늘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성장사회에서 탈성장사회로의 전환과 같은 극적인 실천”을 기대하긴 어렵다 해도, 생태위기 극복과 사회위기 극복이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대안사회, 대안문명의 핵심인 종교와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닐까?

둘째, 탈성장사회로의 전환을 회피하면서도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하려는 개신교인의 의지가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와, 이로부터 “한국 개신교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의 논리가 비어있는 지점을 찾을 가능성”에 대한 신익상 박사의 분석이 중요하다. 이는 현재의 경제모델에서 누리는 풍요를 급진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그것을 계속 누릴 수 없게 하는 생태위기에 대해서는 우려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실천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기보존의 이기적 욕구를 공존의 동력으로 전환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어떻게’일 것이다.

이번 조사의 일차적 목적은 현실 파악이지만, 신익상 박사의 진단과 분석은 생태적 사유와 실천을 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해준다. 하나는 생태위기를 직시하고 새로운 사회모델을 상상하게 해주는 급진적 사유이고 다른 하나는 그 파국을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이다. 이 두 과제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회현장에서 더 시급하고 또한 가능한 것은 후자의 과제다. 지속가능한 세계의 이상을 위해서라도 현실에서 실천가능한 녹색 신앙과 삶의 “구체적 내용과 매뉴얼”을 찾고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것이 ‘해야 하는 것’일 때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일 때 더 적극적으로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연구자이면서 활동가이기도 한 발제자를 포함하여 생태위기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먼저 각성한 녹색 그리스도인들의 급진적 사유와 구체적 행동이 있다면 지구에는—그리고 교회에는—아직 희망이 있다.

## 2019년 개신교인의 젠더 인식 토론문<sup>15)</sup>

장 혜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교수님이 여는 글로 “젠더 이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종교라는 중층의 구조를 담보하는 공고한 사회 문제이다. 그렇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변화와 실천적 차원의 실행이 절실히 요청된다.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젠더 이슈로 진통 중이다. 이에 대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이슈의 보편화·대중화 시대에 대한 전망도 우세하다”의 제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젠더 이슈에 대한 지점과 추세를 정확하게 적시해 주셨다. 작금의 사회에서 젠더는 개인의 정체성과, 차이를 위계로 구성하여 불평등을 만드는 사회적 맥락·체계의 현상 및 문제들을 확인하고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관점으로, 관련한 이슈들이(성 차별과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젠더폭력, 혐오 및 성소수자 인권, 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등) 붓물처럼 터지고 있다. 잠재된 뭉치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전 질서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여성들이 교육자로서 선도자로서, 부르스길라의 경우 아볼로를 직접 가르쳤고 요엘서는 여종들도 예언할 것이라 예언하였으며 (욘2:28-32) 예수님 부활의 최초 증인들도 여자들이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뵈뵈. 유니아 등의 삶은 젠더관계에서 이미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예고하였다. 고린도전서(11:2-16)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남녀관계의 회복을 지향하지만 그 과정은 존중과 배려에 있다고 하였다.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눈을 뜨고 역사는 그 중심에 섰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 흐름을 대면, 소통하지 않고 있다. 교회에서 젠더관련 사회변화와 변화의 맥락에 대한 이성적 이해와 소통을 통한 공론화의 장은 없으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힘으로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어렵게 한다. 교회는 과연 바울이 강조한 대로 질서와 배려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동을 구현할 수 있을까.

현실 사회는 여전히 기존의 패러다임과 틀의 고착화, 관행과 가부장적 문화적 습속이 커다랗게 자리 잡고 이해관계의 다차원적 교차성으로 사람(구체적으로는 여성)이 우선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에도 가부장제의 제도적 관성, 남녀임금격차, 초저출산, 유리천장, 여성폭력, 여성성·남성성에 대한 왜곡 등이 만연하다. 강남대 백소영 교수가 젠더전쟁으로 명명한 최근의 역 사건들은 주체로서의 자기인식과 여성으로서의 문화적 응시사이의 큰 간극, 존재와 세계사이의 불일치와 어그러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한바 있다<sup>16)</sup>. 충돌의 장소, 젠더전쟁이 일어난 역(강남역, 이수역, 혜화역)이 비장소성에서 여성이 연대하는 인류학적 장소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정치지리학자 존 에그뉴의 장소의 요소들인 위치, 현장, 장소감으로 볼 때 그는 위치를 ‘어디에’, 현장은 ‘물리적 환경’, 장소감은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 가지는 주관

15) 본 토론문의 작성에는 목상교재인 「하나님나라QT」(2019.09/10, 씨앗과 숲)와 박경수(2019)의 「인물로 보는 종교 개혁사」(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가 영향을 미쳤다.

16) 백소영(2019), “너의 의미, 젠더 평화의 출발”, 「제60차 KPI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pp.35-56.

적이고 정서적인 연결'로, 장소란 인간의 활동을 통해 인간과 관계를 맺고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가 정서적인 연결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했다<sup>17)</sup>. 비장소적 특성을 가진 역들이 젠더전쟁의 장소가 될 때 장소와의 동일시, 역동일시, 비동일시에 따라 구성원들의 정체성은 더욱 한쪽으로 강화될 수 있어 균형을 이루려는 무엇인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비장소에서 젠더전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을 것은 자명하다.

이미 가정, 직장, 학교는 또 다른 형태의 젠더전쟁 장소이며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다 (여성혐오표현 등). 교계(교회) 역시 젠더전쟁의 장소가 되고 있다. 장신대에서의 동성애 관련 사태는 한 예다. 교회는 전반적으로 젠더 이슈들인 양성평등, 낙태, 동성애가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된다는 교회공동체적 문화적 감수성이 큰 장소이다. 송교수님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목회자, 신앙의 정도, 연령 및 직분에 따라 남성과 여성(일부) 들의 공고한 성별고정관념의 양상들은 여성의 삶에 대한 편견과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을 낳게 하고 있다.

또한 신앙정체성과 현실적 상황에 대한 청소년과 청년세대들의 고민과 갈등의 공론화는 쉽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미전도종족'이라는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젠더 이슈들에 대한 정책적·문화적 변화와 인식의 추이를 보면 국제적으로는 유엔의「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이 있다. 국내적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과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한 관련법들이 제정·개정·시행되고 관련 문제발생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과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뜨거운 이슈들의 하나인 낙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4.11자 결정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현재는 낙태에 대한 전면적·일률적 금지가 임부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이 정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부의 임신중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는 오랫동안 외면된 여성의 관점 및 경험이 반영되었다는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어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본권 행사가 현행법 위반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낙태죄에 대한 전면적 폐지에 대한 논의와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동성애와 관련해서 정책적 지형은 아직 가시적이지 않는 것 같다. 다만 다양한 가족유형으로서의 동성끼리의 결혼이나 동성애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여러 통계적 수치들에서 발견되고 있다.

오랜 기간 여성과 가족, 젠더관계를 연구해온 사회학자로서 본인은 젠더 이슈를 우리 사회에서 모든 관계의 출발이 '나 자신'이 되고 있다는 것에서 조명해 본다. 이것이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든 여타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든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든 관계에서 내가 선택한 관계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나'중심으로의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 등의 영향과 함께 관계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것을 달라지게 하고 IT와 같은 정보화 기술의 변화는 이를 더욱 촉진하거나 보완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청소년 및 청년세대들에게서 더욱 가속화 되고 새로운 소통과 관계는 삶의 현장에서 그 구성원들이 갖는 가치관에 대한 인정과 공존의 삶으로 나타날 것이다. 독립과 통일과 민주화의 역사적 상황에 이어 고령화, 초고령화사회, 합계출산율 1.0미만인 초저출산사회라는 세계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가 젠더 이슈를 통해 새로운 소통과 관계의 모색으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젠더의 문제는 사회구조의 작동방식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복음의 소망과 능력에 뿌리를 두고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한 예로 여전히 결혼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문화가 지배적인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사회학자로서의 젠더 관련 현상에 대한 분석 및 이해(현실 적합성으로 명명할 수 있을지)와 개신교기독교

17) 자세한 내용은 안용성(2018)의 「현상학과 서사공간」(새물결플러스)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교인으로서의 나의 신앙정체성은 종종 충돌하며 선택은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고 경계만을 넘나들고 있는 것 같다. 종교개혁사의 한 인물인 멜란히톤의 삶에 비추어 나의 믿음과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성찰해 볼 때 더욱 그렇다. 교회는 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존의 모든 구분을 뛰어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공동체이다. 기존의 질서와 가치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건강한 교회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귀한 생명을 입은 존재됨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도전이 간과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만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신앙의 궤도 안에서의 삶을 영위해 가며, 차별과 배제, 혐오가 아닌 구분과 구별, 배려와 존중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행동을 하며, 외적 삶의 조건이 아닌 삶의 내용의 중요성에 가치를 두며 이 땅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믿는다.



## 부록 1. 설문응답 및 그래프

---







# 1. 자연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 1) 환경 문제 및 기후 변화의 심각성 인지

Q

귀하께서는 환경 문제 및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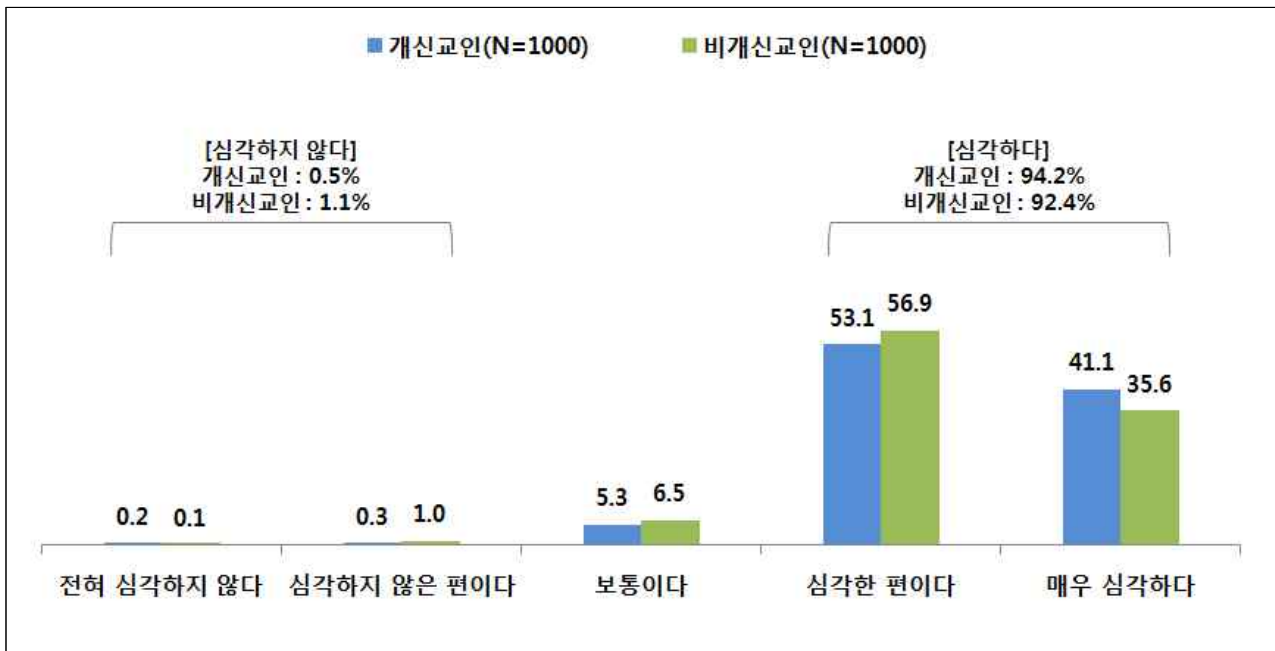


환경 문제 및 기후 변화에 대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차이 없이 모두 심각성을 느끼고 있음. (개신교인 94.2%, 비개신교인 92.4%)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으며,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심각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

[그림1] 환경 문제 및 기후 변화의 심각성 인지

(Base=전체, N=각 1000명, %)



## 2) 환경 문제 관련 정보 획득 경로

Q

환경 문제와 관련된 정보는 어떤 경로로 얻으시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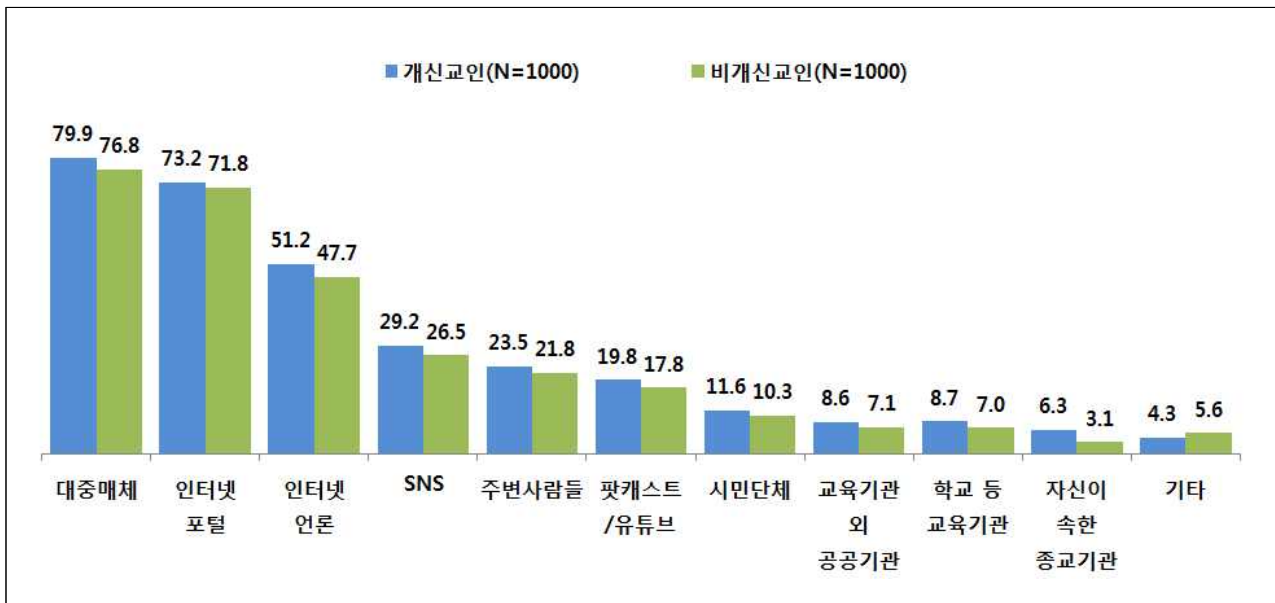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환경 문제와 관련한 정보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포털'을 통해 가장 많이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종교기관'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는 응답률은 개신교인 6.3%, 비개신교인 3.1%로서 낮은 편임.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20대는 'SNS'를 통해, 60대는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음.

[그림2] 환경 문제 관련 정보 획득 경로

(Base=전체, N=각 1000명, %, 중복응답)



### 3) 환경 문제 중 시급한 문제

Q

다음 환경 문제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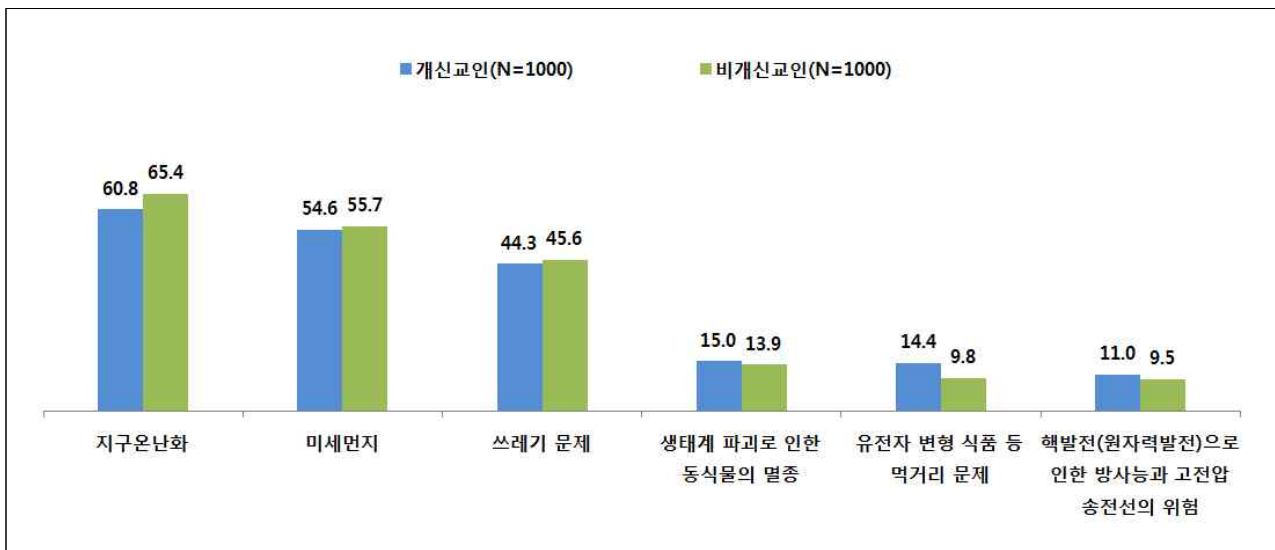


환경 문제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지구온난화'를 가장 많이 꼽음.  
 (1+2순위 기준)

그 다음으로 '미세먼지', '쓰레기 문제'도 시급한 문제로 여김.

[그림3] 환경 문제 중 시급한 문제(1+2순위)

(Base=전체, N=각 1000명, %)



#### 4) 환경 보호 이유

Q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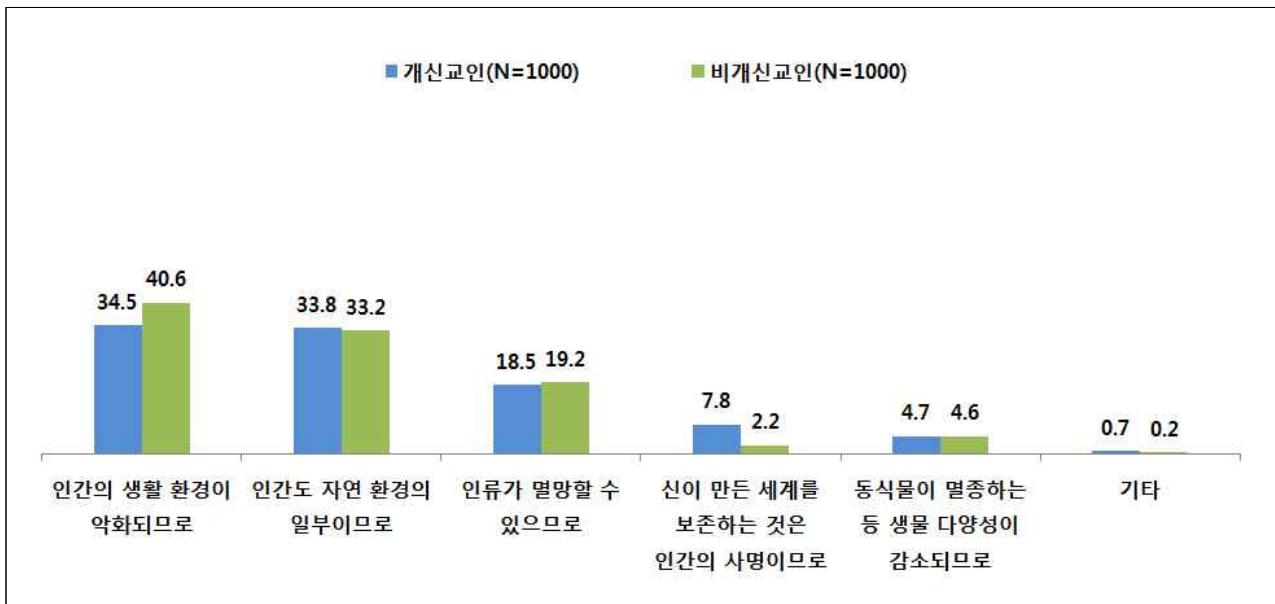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인간의 생활 환경이 악화되므로'를 가장 많이 꼽음. (개신교인 34.5%, 비개신교인 40.6%)

그 다음으로 '인간도 자연 환경의 일부이므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으므로'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신이 만든 세계를 보존하는 것은 인간의 사명이므로'를 응답한 비율은 개신교인 7.8%, 비개신교인 2.2%로 나타남.

[그림4] 환경 보호 이유

(Base=전체, N=각 1000명, %)



## 5)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

Q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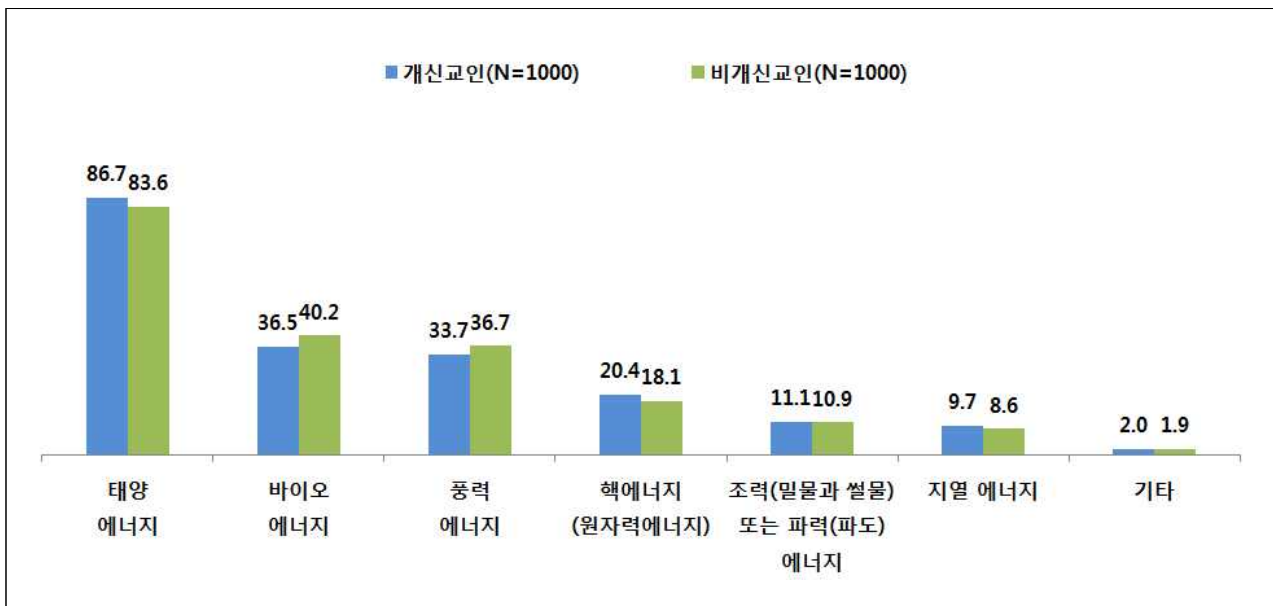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가장 적합한 것은 '태양에너지'가 가장 높게 응답됨. (개신교인 86.7%, 비개신교인 83.6%)

그 다음으로 '바이오 에너지', '풍력 에너지', '핵 에너지', '조력 또는 파력', '지열 에너지' 등의 순으로 응답됨.

[그림5]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

(Base=전체, N=각 1000명, %, 중복응답)



## 6) 이상 기후 현상의 원인

Q

최근 들어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해수면 상승, 한파, 폭서, 쓰나미 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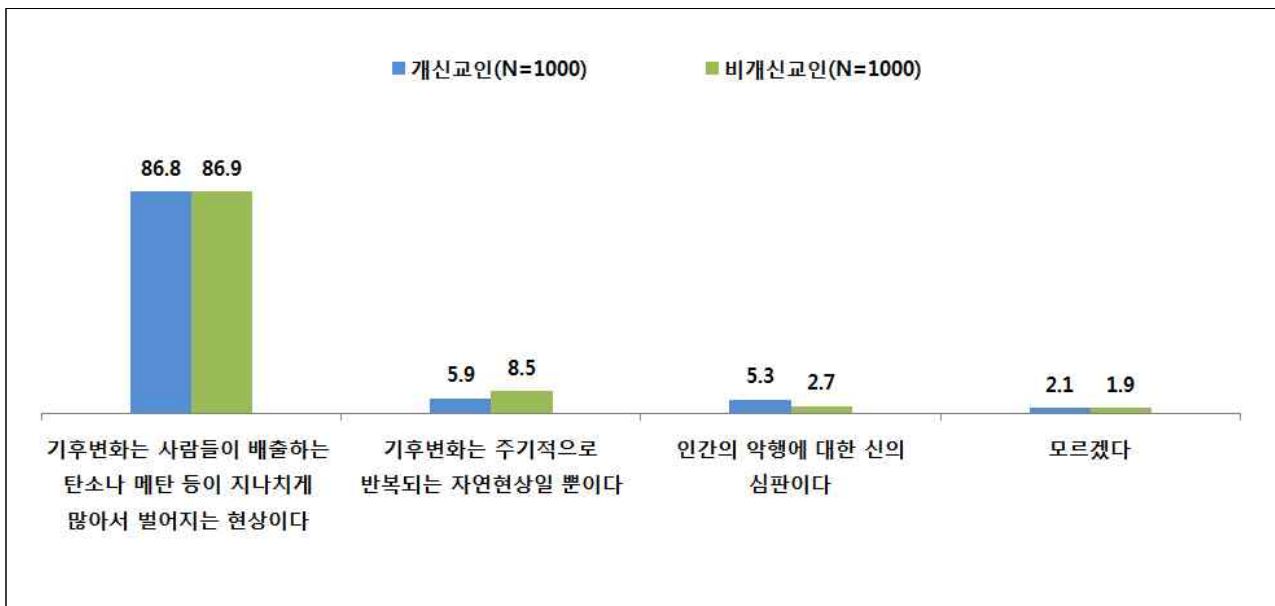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사람들이 배출하는 탄소나 메탄 등이 지나치게 많아서 벌어지는 현상'을 가장 많이 응답함. (개신교인 86.8%, 비개신교인 86.9%)

개신교인이 '인간의 악행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는 응답은 미미한 수준임.

[그림6] 이상 기후 현상의 원인

(Base=전체, N=각 1000명, %)



## 7)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실천 의향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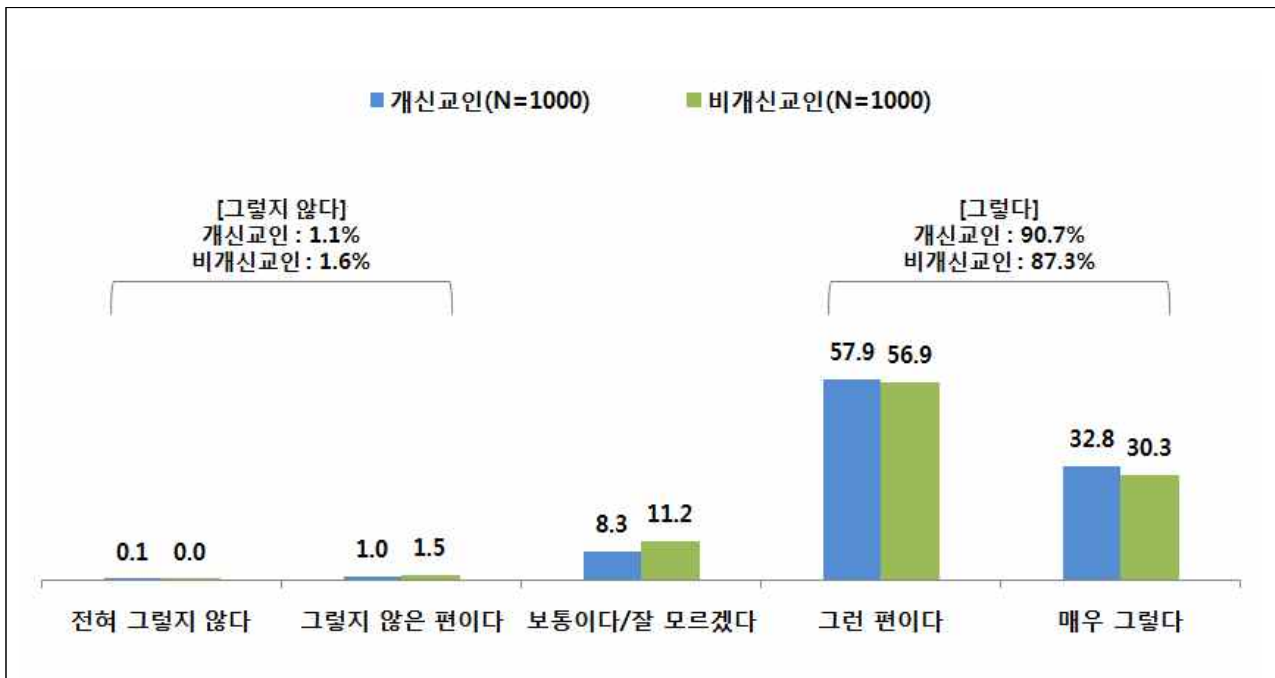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면 다소의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실천으로 옮길 의향이 있으신지요?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해 다소의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실천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음. (개신교인 90.7%, 비개신교인 87.3%)

[그림기]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실천 의향

(Base=전체, N=각 1000명, %)



## 8)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비용 감당 의향

Q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비용(세금, 정기적인 후원금 등)이 들어야 한다면 그 비용을 감당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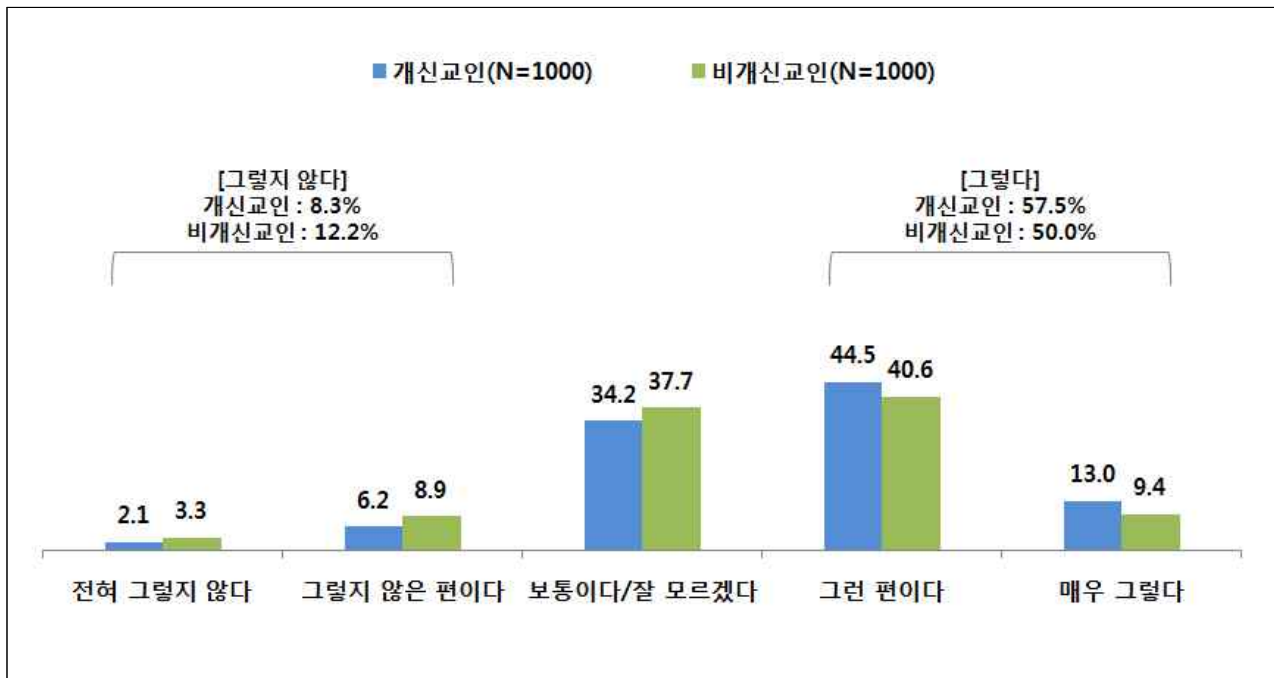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해 비용을 감당할 용의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의 57.5%, 비개신교인의 50.0%가 '그렇다'(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비용 감당 용의가 없다('그렇지 않다') 응답률은 비개신교인이 12.2%로, 개신교인보다 3.9%p 높게 나타나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비용 감당 용의가 '있다'는 응답률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개신교인 중 직분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그림8]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비용 감당 의향

(Base=전체, N=각 1000명, %)





## 9)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비용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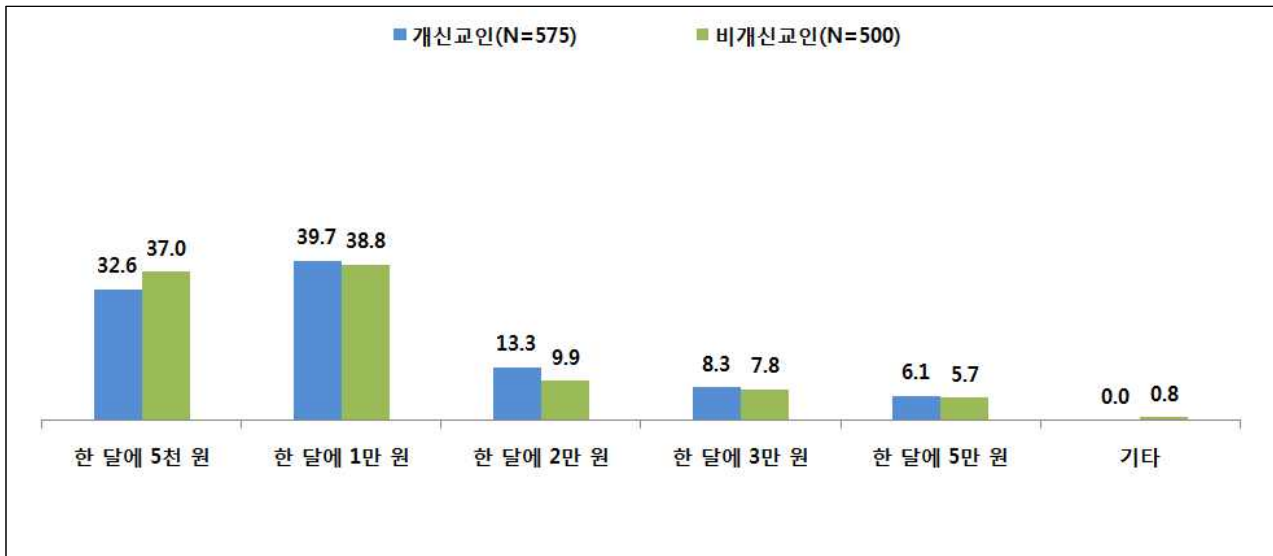
최대 어느 정도의 비용까지 감당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최대 어느 정도까지인지 조사한 결과, '한 달에 1만원'이 가장 많이 응답됐으며(개신교인 39.7%, 비개신교인 38.8%),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전체의 60% 이상이 '한 달에 1만원 이하'를 응답함. '한 달에 5만원' 응답 비율은 개신교인 중 중직자 직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7.4%), 비개신교인 중 불교인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17.2%).

[그림9]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비용

(Base=비용 감당 용의 '있음' 응답자, N=개신교인 575, 비개신교인 500, %)



## 10) 지구 환경 관련, 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 (개신교인 대상)

Q

교회가 지구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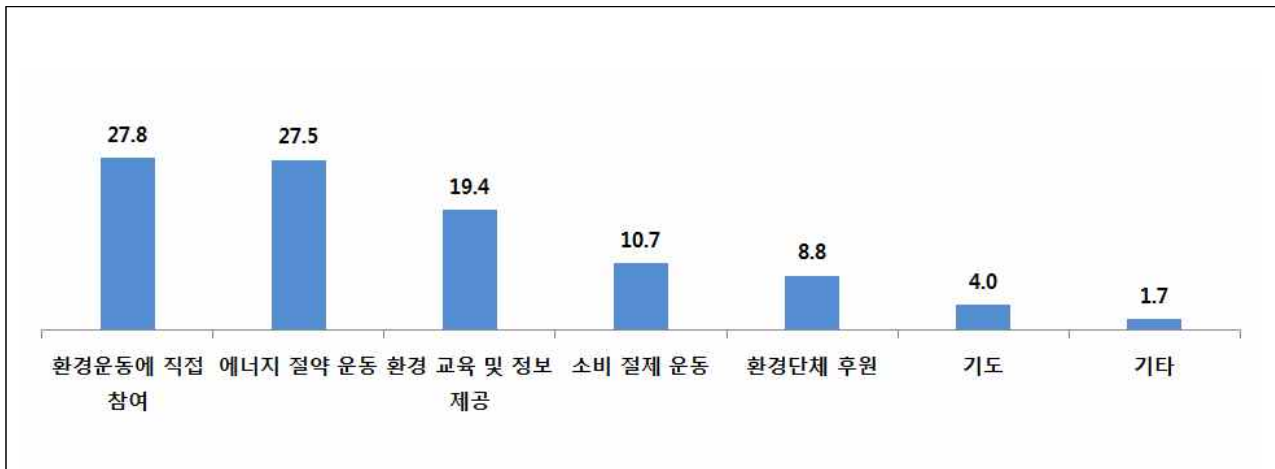


교회가 지구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로는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27.8%)와 '에너지 절약 운동'(27.5%)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환경 교육 및 정보 제공', '소비 절제 운동', '환경단체 후원' 등의 순으로 응답됨.

[그림10] 지구 환경 관련, 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 (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1000명, %)



## 11) 출석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구 환경 관련 활동 (개신교인 대상)

Q

그러면 귀하 교회에서 하시는 지구 환경과 관련된 활동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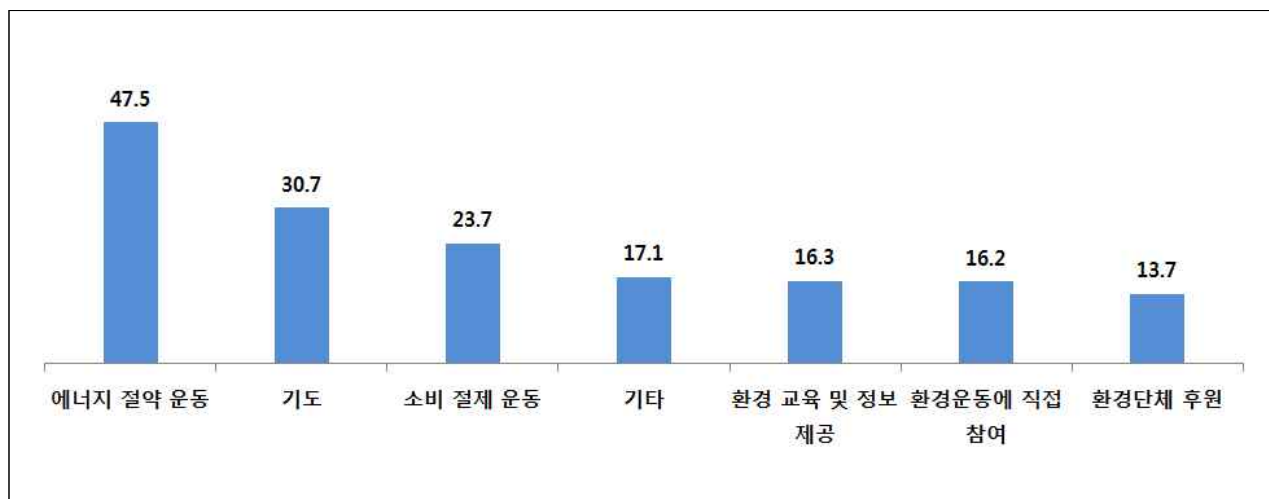


현재 출석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구 환경과 관련된 활동으로는 '에너지 절약 운동'이 47.5%로 가장 많이 응답됐으며, 그 다음으로 '기도'(30.7%), '소비 절제 운동'(23.7%) 등이 응답됨.

'환경단체 후원'은 교인 수 1000명 이상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남.(18.6%)

[그림11] 출석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구 환경 관련 활동 (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1000명, %, 중복응답)



## 2. 정치 분야

### 1) 정치적 성향

Q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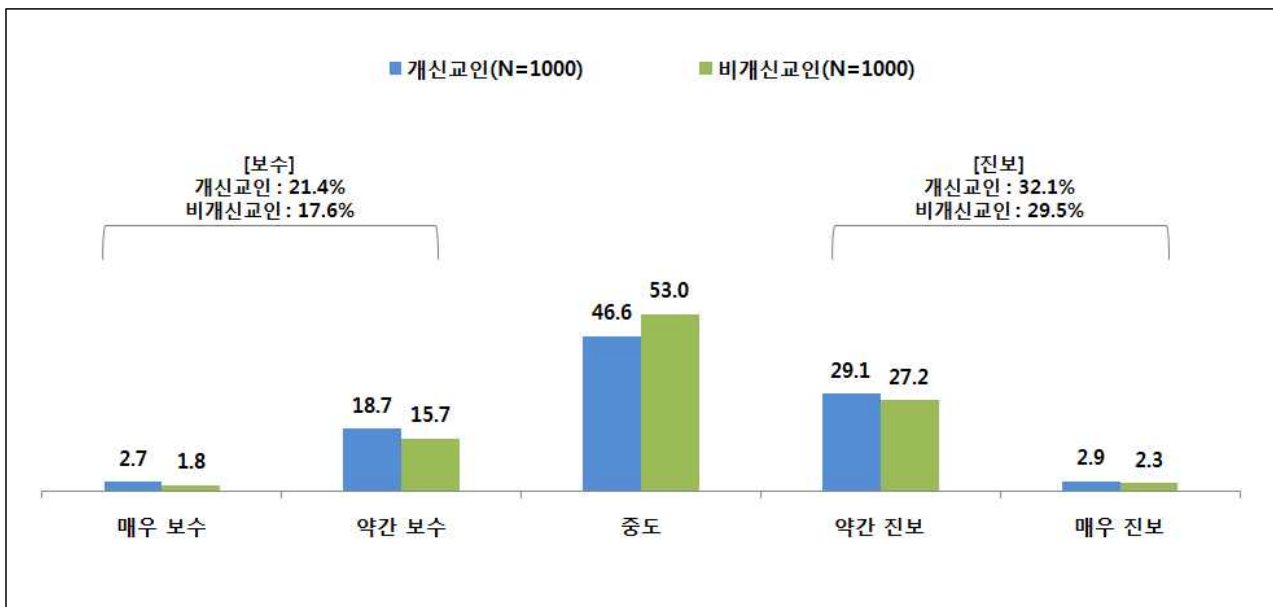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묻은 결과,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됨.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진보와 보수 비율이 모두 3~4%p 높지만 큰 차이없는 수준으로 나타남.

개신교인 중 '보수'를 응답한 비율은 목회자 직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며, 주 3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비개신교인 중 '진보'를 응답한 비율은 무종교인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12] 정치적 성향

(Base=전체, N=각 1000명, %)



## 2)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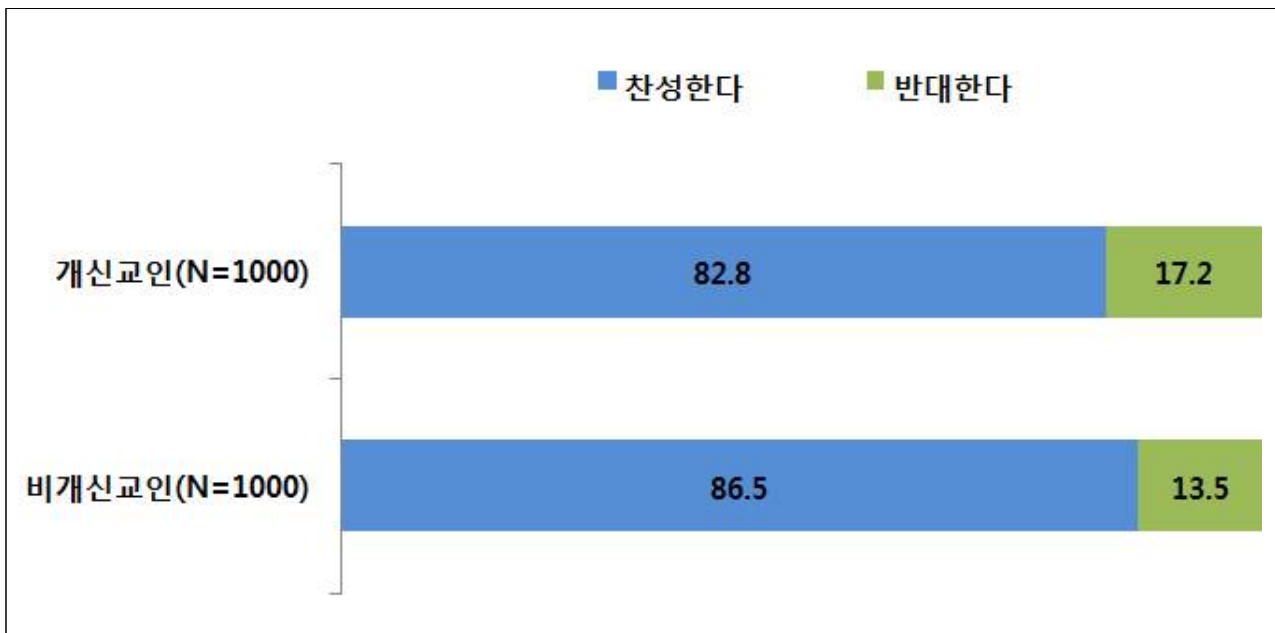
현행 헌법은 198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헌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헌법 개정에 대해 개신교인의 82.8%, 비개신교인의 86.5%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 간에 별 차없음. 개신교인 중 일반성도 및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더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일반성도 85.6%, 교회 안 나가는 개신교인 92.5%)

[그림13]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3) 개헌의 범위

Q

개헌이 된다면 어떤 내용까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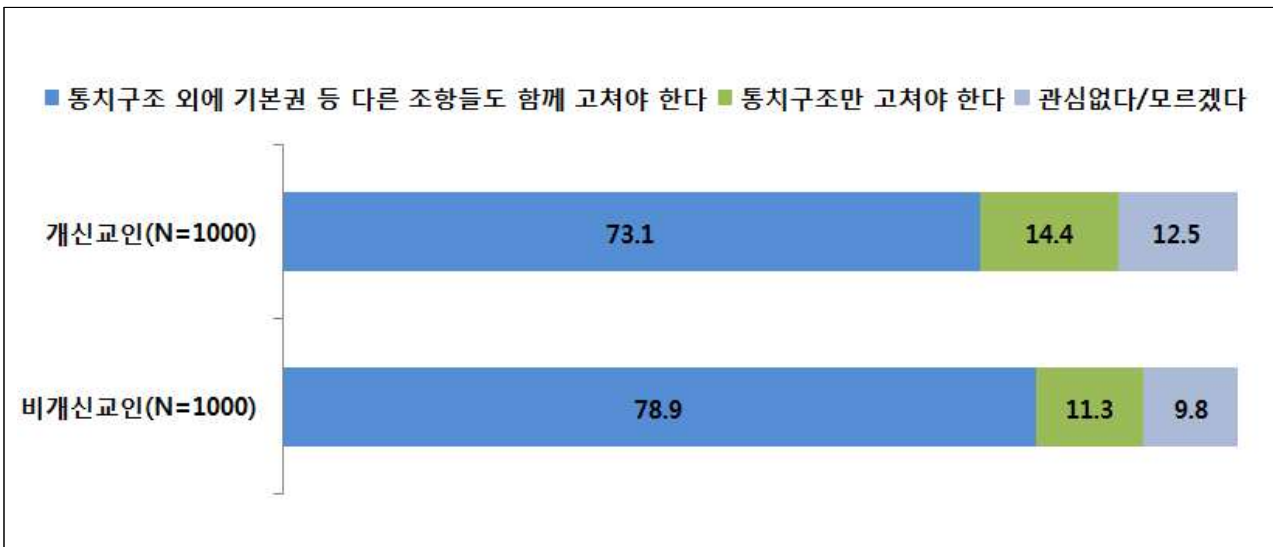
개헌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통치구조 외에 기본권 등 다른 조항들도 함께 고쳐야 한다'를 가장 많이 응답함. (개신교인 73.1%, 비개신교인 78.9%)

'통치구조만 고쳐야 한다'는 응답률은 개신교인 14.4%, 비개신교인 11.3%이며, '관심없다/모르겠다'는 개신교인 12.5%, 비개신교인 9.8%로 나타남.

30~50대가 '통치구조 외에 기본권 등 다른 조항들도 함께 고쳐야 한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고 있음.

[그림14] 개헌의 범위

(Base=전체, N=각 1000명, %)



#### 4) 통치 구조에 대한 의견

Q

귀하께서 선호하는 통치 구조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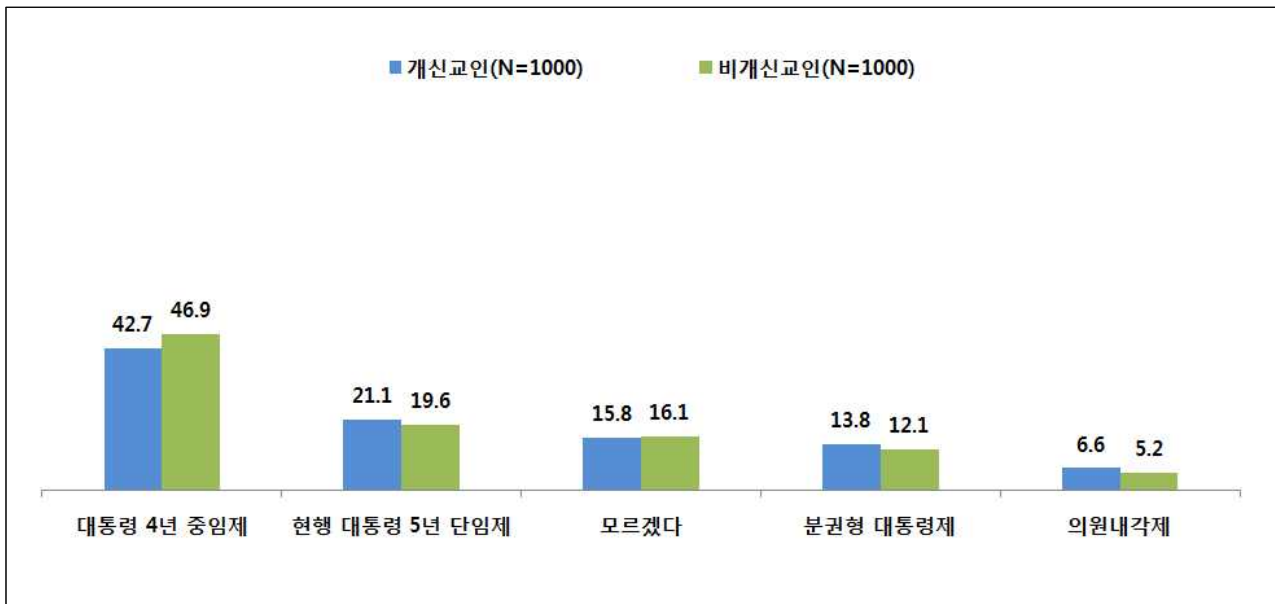


선호하는 통치 구조에 대한 응답률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에서 비슷한 경향으로 응답됨.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으며(개신교인 42.7%, 비개신교인 46.9%), 그 다음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현행)',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에서 각각 15.8%, 16.1%로 나타남.

[그림15] 통치 구조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5)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의견

Q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는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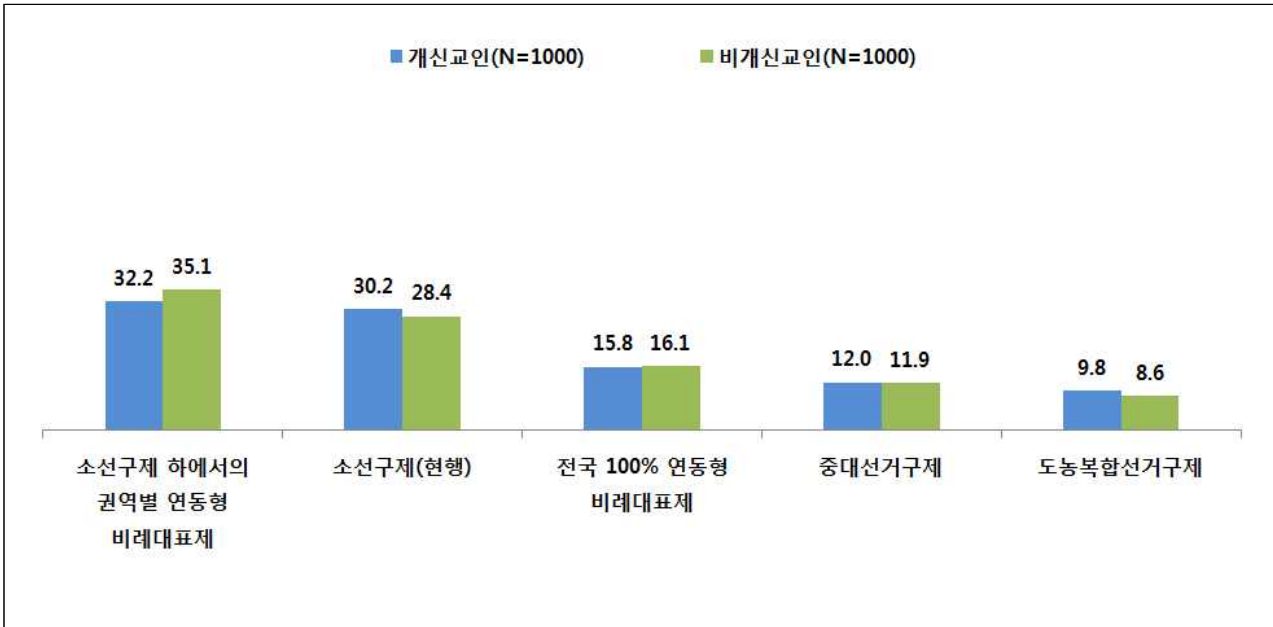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응답 경향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하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소선거제 하에서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다는 응답률이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각각 32.2%, 35.1%로 가장 높음.

현행과 같은 '소선거제'도 개신교인 30.2%, 비개신교인 28.4%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전국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은 선호도가 낮게 나타남.

[그림16]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6) 기본권의 주체 확대에 대한 의견

Q

2018년 3월 청와대는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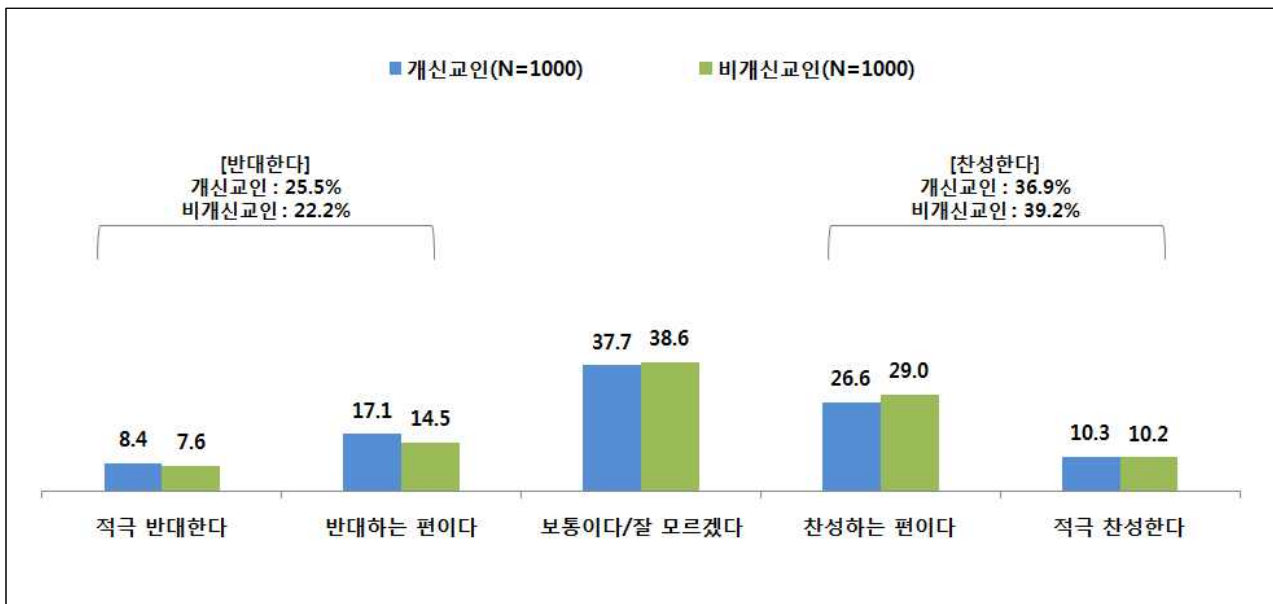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안에 대해서, 개신교인의 36.9%, 비개신교인의 39.2%가 '찬성' 의견을 보임.

'반대'는 개신교인 25.5%, 비개신교인 22.2%로 나타남.

개신교인 중 '반대' 비율은 직분이 높을수록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17] 기본권의 주체 확대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7)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

Q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찰개혁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뜨겁습니다. 쟁점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만 전념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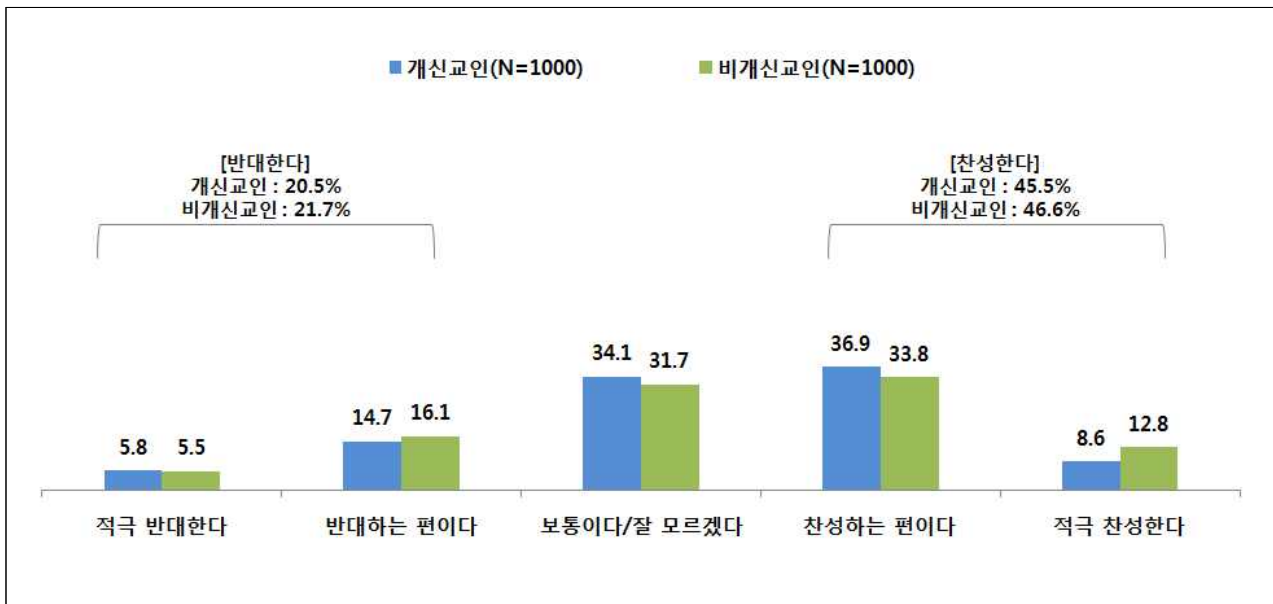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 역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찬성률'은 개신교인 45.5%, 비개신교인 46.6%이며, '반대율'은 개신교인 20.5%, 비개신교인 21.7%로 나타나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40대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임.

[그림18]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8) 특별재판부 구성 및 문제 법관 탄핵에 대한 의견

Q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몇 명의 고위법관들이 부당한 재판개입과 재판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개입 및 재판거래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기존 재판부와 별도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거나 문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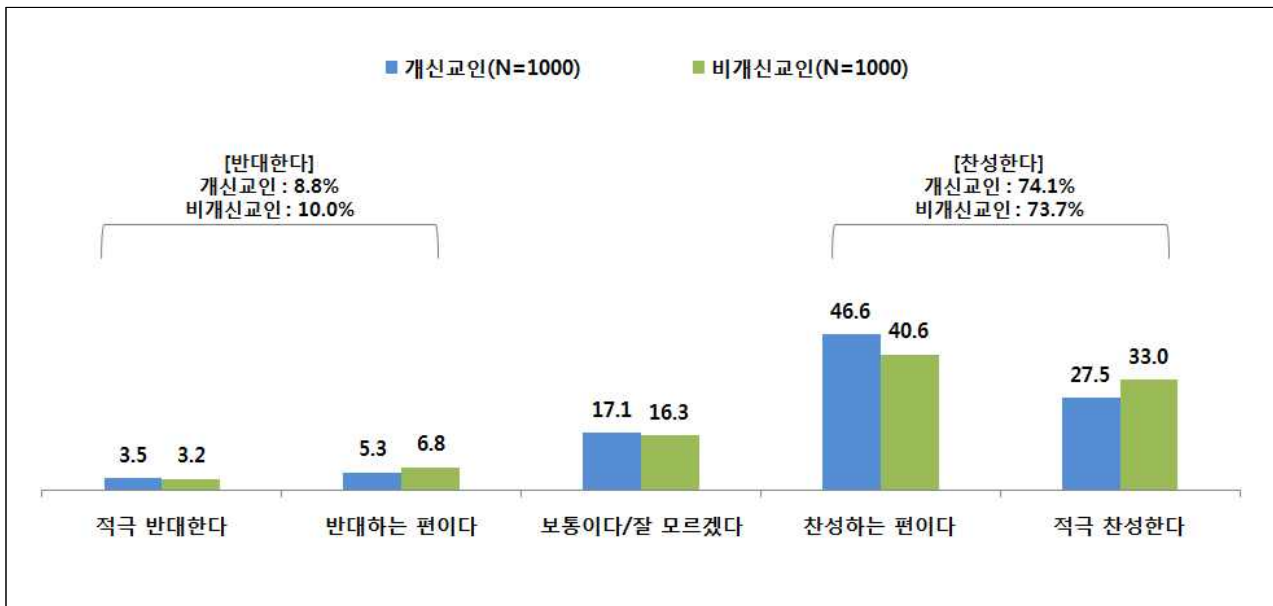


기존 재판부와 별도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거나 문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개신교인의 74.1%, 비개신교인의 73.7%가 '찬성' 의견을 보이고 반대 비율은 10% 이하로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개신교인의 직분별로 보면, 목회자에서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59.0%), 일반성도에서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76.9%).

[그림19] 특별재판부 구성 및 문제 법관 탄핵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9) 난민에 대한 의견

Q

귀하는 난민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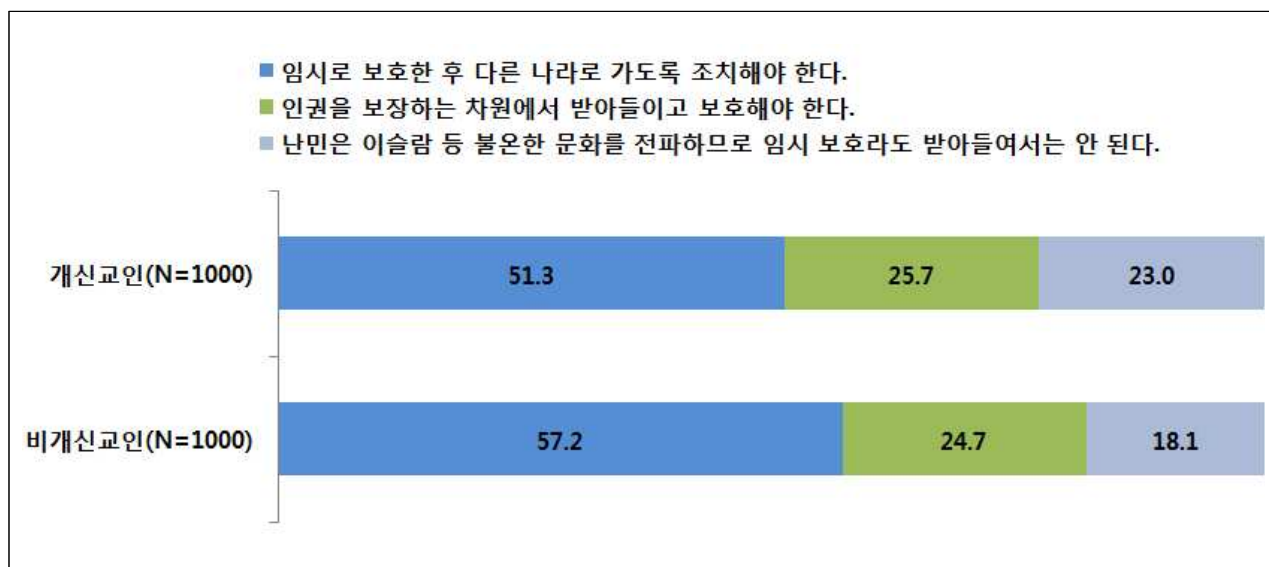
난민에 대해서는 '임시 보호 후 다른 나라로 가도록 조치'가 개신교인 51.3%, 비개신교인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권 보장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보호'가 개신교인 25.7%, 비개신교인 24.7%로 나타남.

'난민은 이슬람 등 불온 문화를 전파하므로 임시 보호도 안된다'는 의견은 개신교인이 23.0%로 비개신교인 18.1% 보다 3.9%p 높게 나타남.

'임시 보호도 안된다'는 응답률은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개신교인 중 목회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28.5%).

[그림20] 난민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10) 건국절에 대한 의견

Q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건국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과 3.1운동 직후에 설립된 임시정부수립일인 4월 11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쪽을 지지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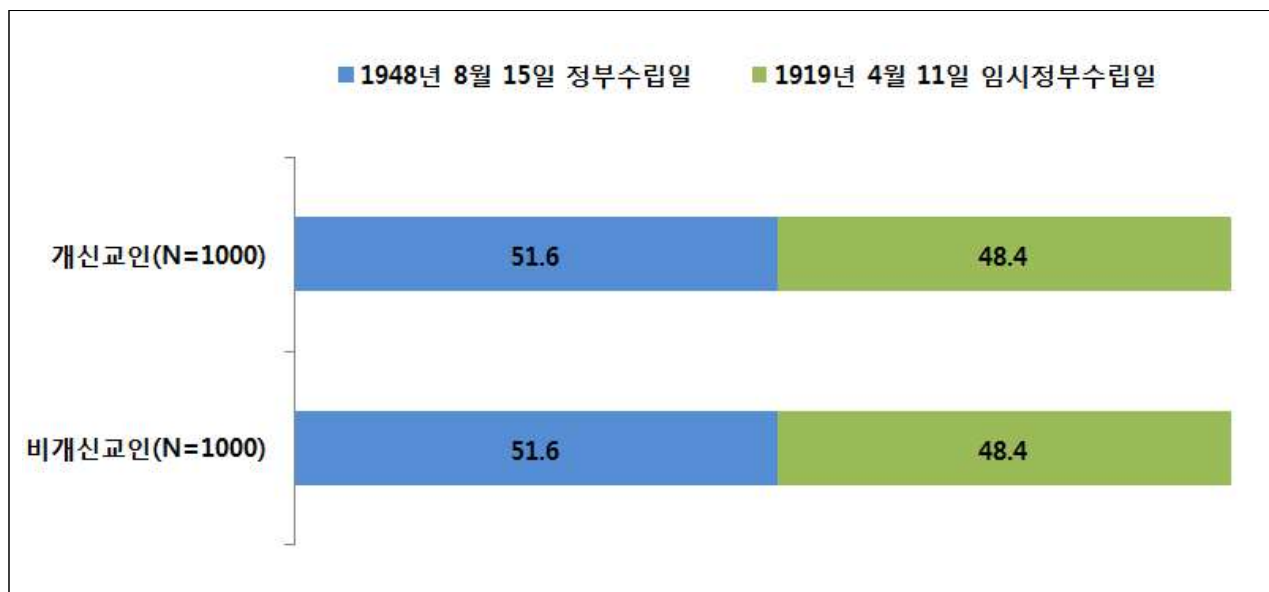


건국절에 대한 의견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에서 동일하게 응답됨.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 지지율이 51.6%로,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일' 지지율 48.4%보다 3.2%p 높지만 별 차이 없음.

[그림21] 건국절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11) 5.18 왜곡 금지법에 대한 의견

Q

근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거나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 비난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5.18 왜곡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발언을 방지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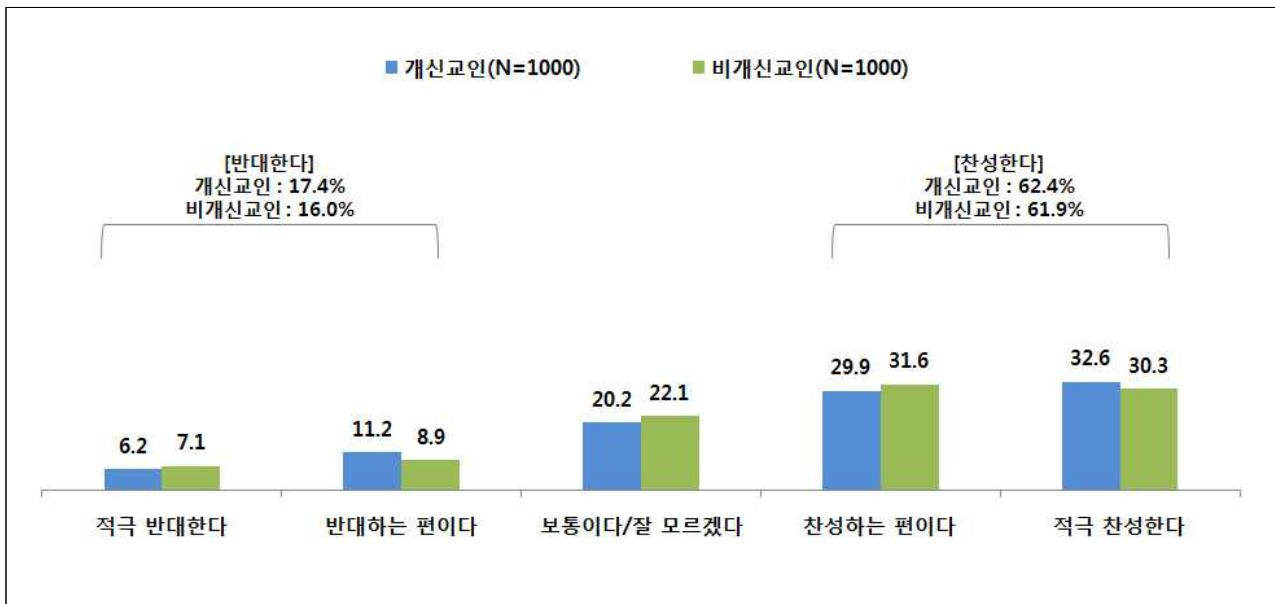


5.18 왜곡 금지법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의 62.4%, 비개신교인의 61.9%가 '찬성' 의견을, 개신교인의 17.4%와 비개신교인의 16.0%가 '반대' 의견을 보여서 찬성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찬성율은 개신교인 중 나이가 젊을수록 높고, 반대율은 개신교인 중 목회자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비개신교인 중 불교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22] 5.18 왜곡 금지법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12) 6.30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Q

지난 6월 30일 한국, 북한, 미국 세 국가의 대통령이 분단의 상징인 DMZ 판문점에서 만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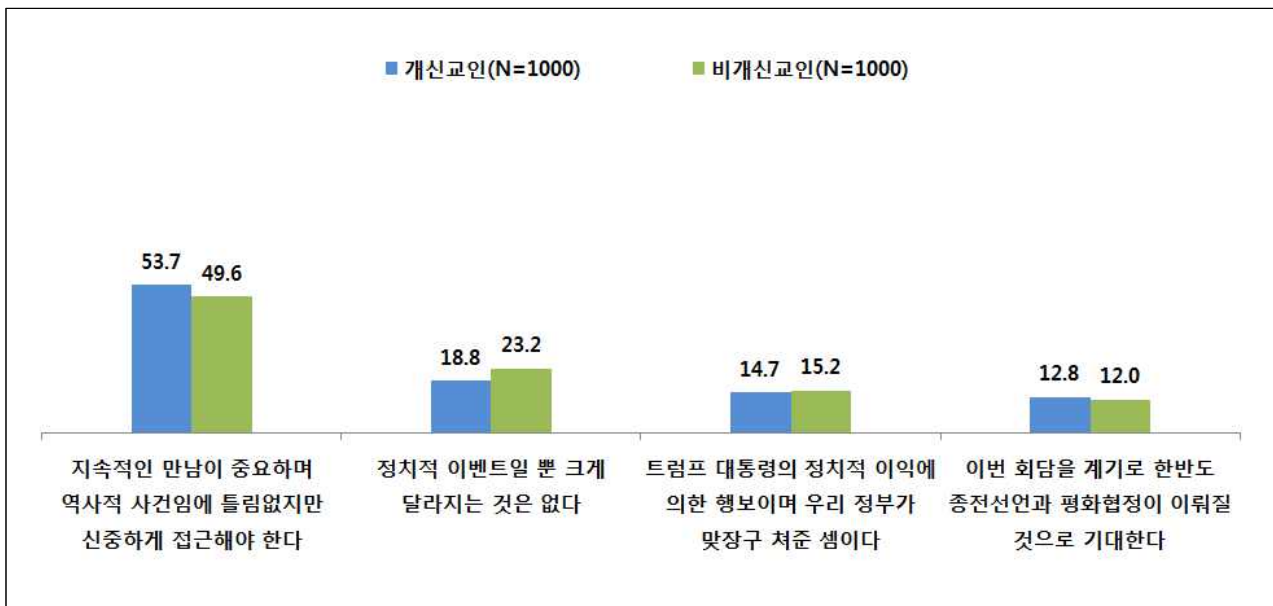
6.30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에서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남.

'지속적인 만남이 중요하며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가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각 53.7%, 49.6%로 가장 높게 응답됨.

그 다음으로 '정치적 이벤트일 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가 각 18.8%, 23.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의한 행보이며 우리 정부가 맞장구 쳐준 셈이다'는 각 14.7%, 15.2%,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각 12.8%, 12.0% 응답됨.

[그림23] 6.30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13)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 예측

Q

귀하께서는 이번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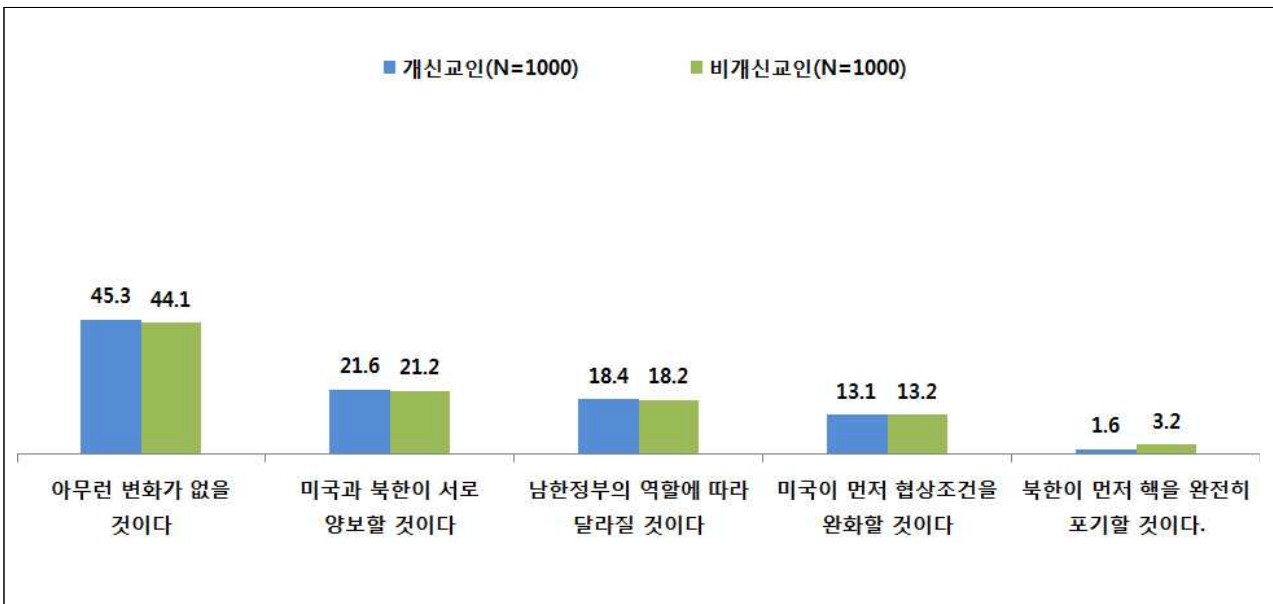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후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5명 중 2명 이상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함.  
(개신교인 45.3%, 비개신교인 44.1%)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할 것이다'는 21%, '남한 정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는 18%, '미국이 먼저 협상 조건을 완화할 것이다'는 13% 수준의 응답률을 보임.

[그림24]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 예측

(Base=전체, N=각 1000명, %)





## 14)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Q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을 창당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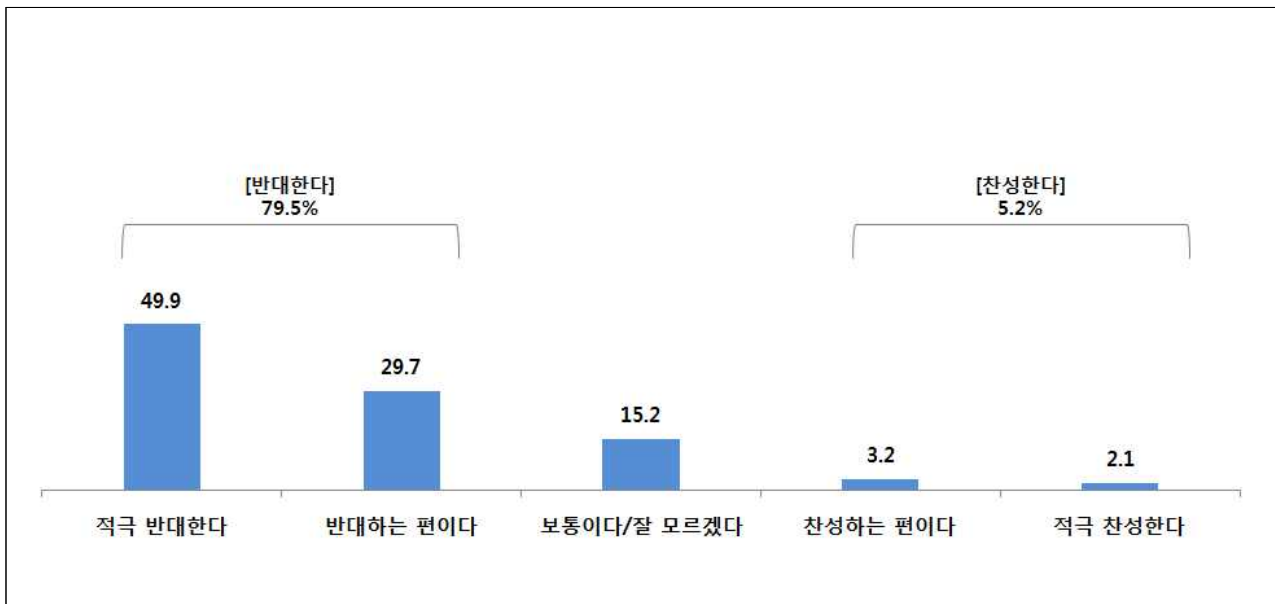
개신교인 5명 중 4명 가까이(79.5%)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을 창당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79.5%, 찬성 5.2%로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

반대율은 50대에서 가장 높고, 자영업과 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직분별로 보면, 목회자에서 찬성률이 가장 높고, 중직자에서 반대율이 가장 높음.

[그림25]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1000명, %)



## 15) 전광훈 목사의 '문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Q

귀하께서는 최근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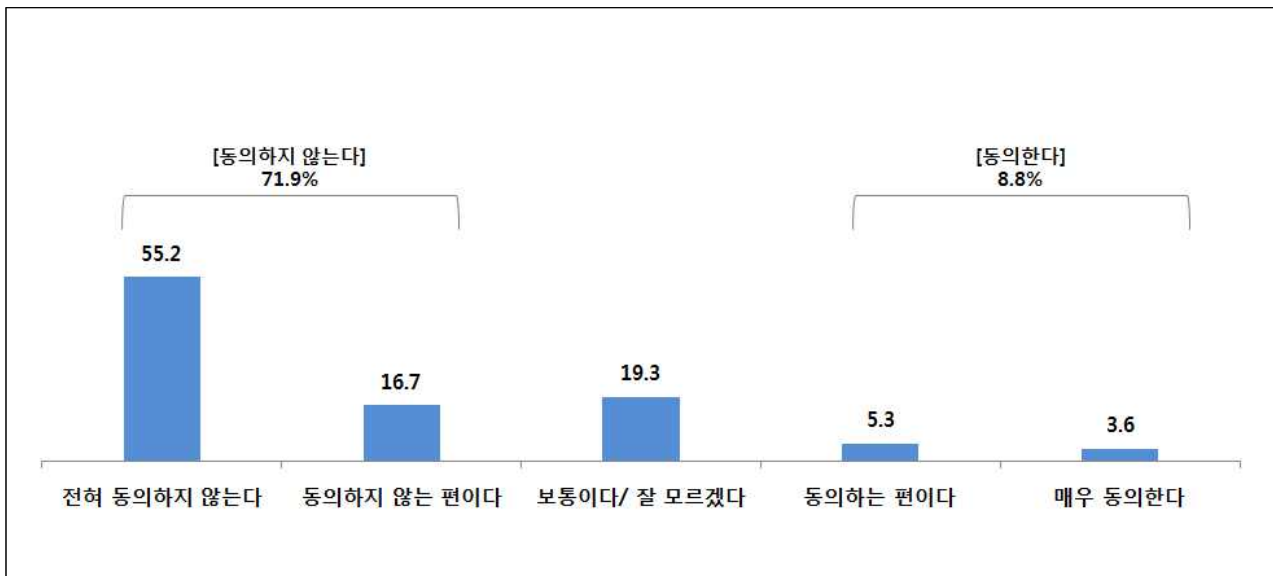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 71.9%의 개신교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동의한다'는 응답률은 8.8%이며, 50~60대에서 높게 나타남.

직분이 높을수록 동의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그림26] 전광훈 목사의 '문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1000명, %)



## 16) 전광훈 목사의 최근 언행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Q

귀하는 전광훈 목사의 최근 언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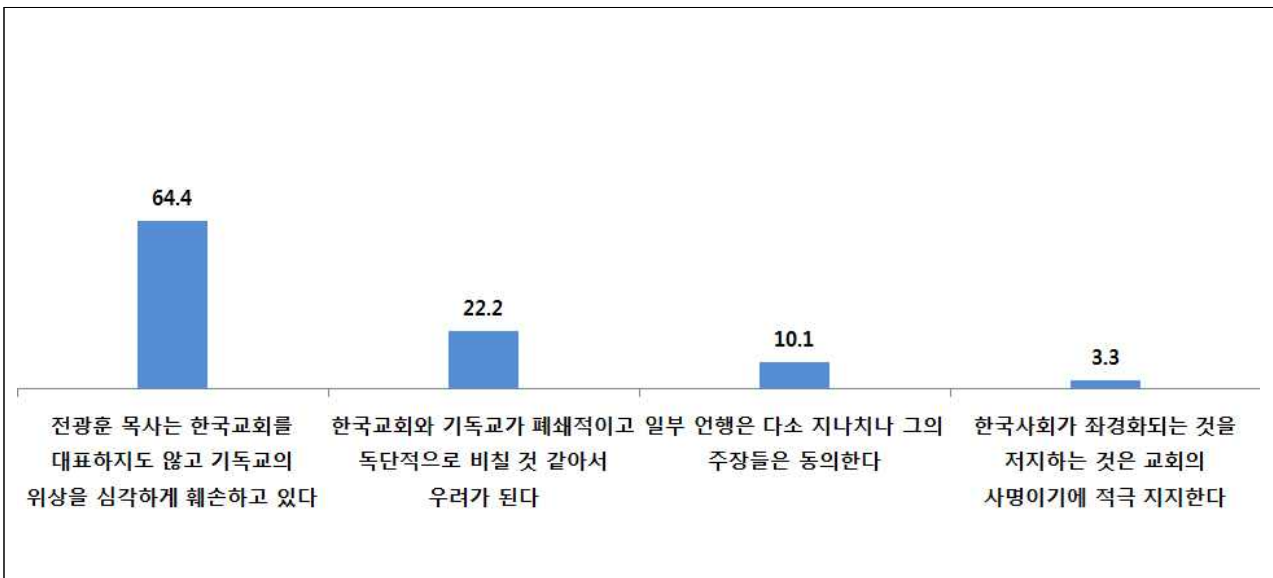
개신교인 3명 중 2명 가까이(64.4%)는 전광훈 목사의 언행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기독교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응답함.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비칠 것 같아 우려 된다'는 응답률은 22.2%, '일부 언행은 다소 지나치나 그의 주장들은 동의한다'는 10.1%, '한국사회가 좌경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적극 지지한다'는 3.3%로 나타남.

'기독교 위상 훼손'과 '한국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시선 우려' 응답률은 직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그의 주장에 동의', '적극 지지' 응답률은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그림27] 전광훈 목사의 최근 언행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1000명, %)



## 17) 태극기부대 집회 참여 경험 (개신교인 대상)

Q

귀하께서는 태극기부대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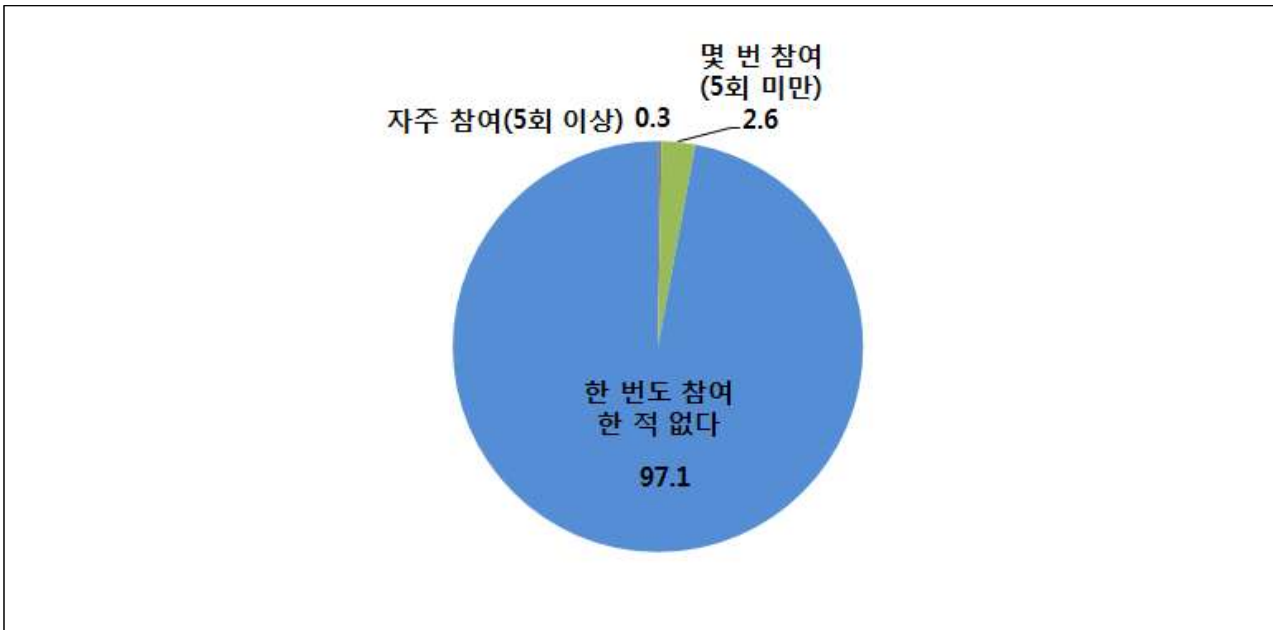


개신교인 중 태극기부대 집회에 참여해 본 경험률은 2.9%이며, 5회 미만 참여가 2.6%, 5회 이상 참여가 0.3%로 나타남.

참여율은 60대와 대구/경북 지역, 그리고 목회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28] 태극기부대 집회 참여 경험 (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1000명, %)



## 18) 기독교인의 태극기부대 집회 참여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Q

태극기부대 집회에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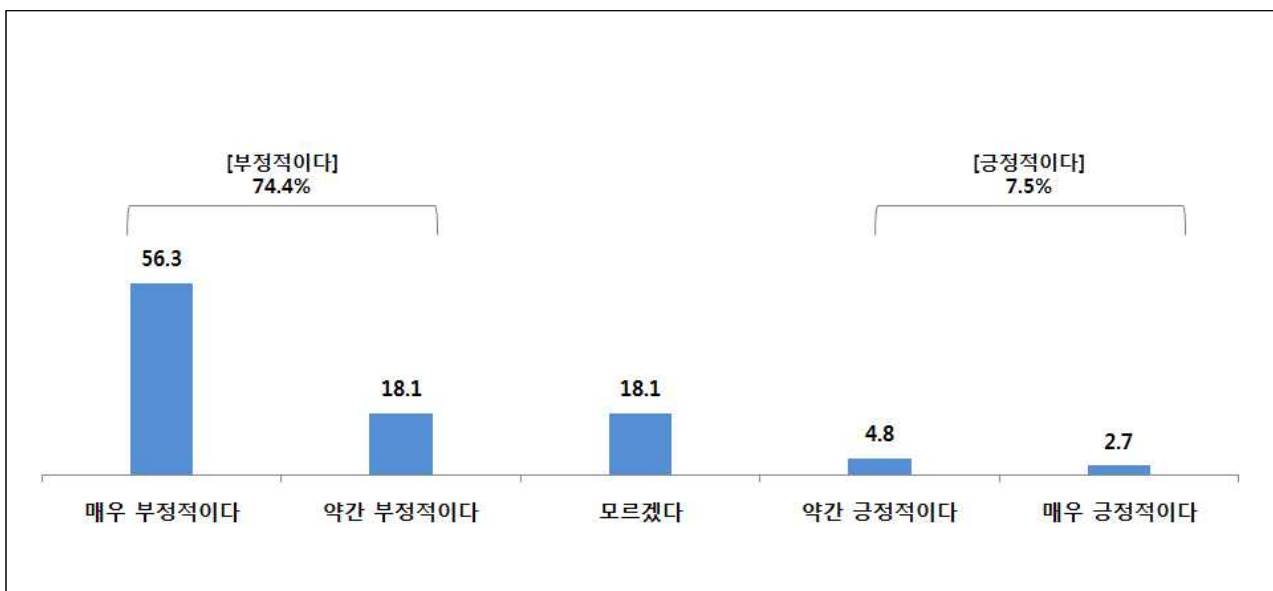


기독교인이 태극기부대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4명 중 3명 가량(74.4%)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7.5%는 '긍정적이다'이라고 응답함.

'긍정적'이라는 응답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29] 기독교인의 태극기부대 집회 참여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1000명, %)



### 3. 경제 분야

#### 1) 경제 분야 중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분야

Q

귀하께서는 다음 경제 분야 중 현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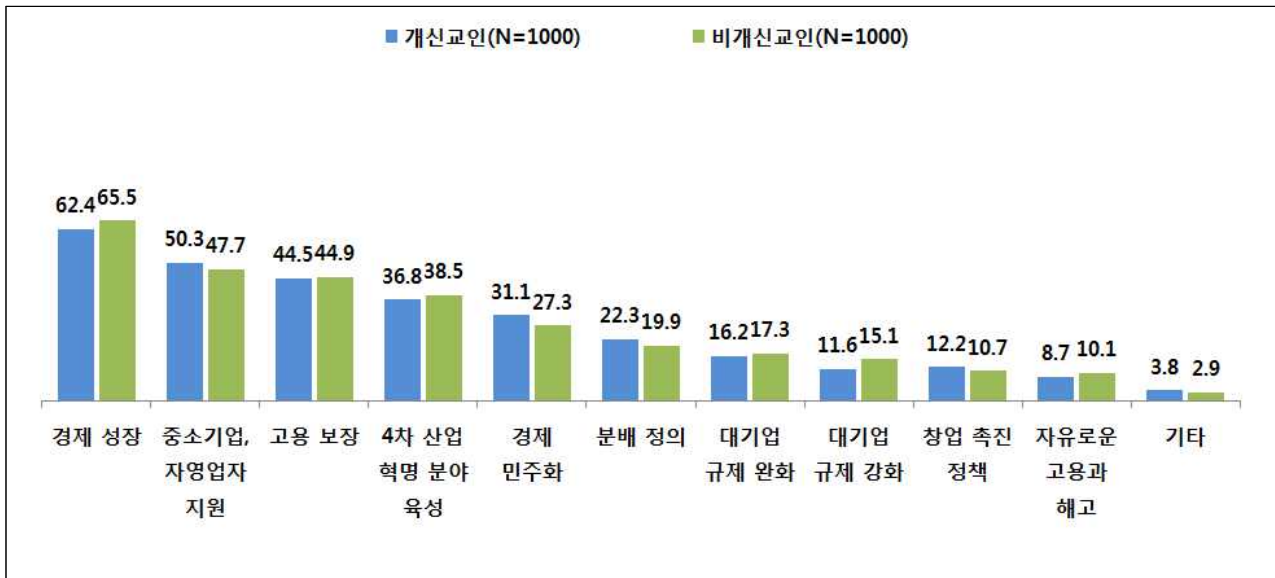
경제 분야 중 현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경제 성장'을 가장 많이 꼽음. (개신교인 62.4%, 비개신교인 65.5%)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응답 추이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경제 성장' 다음으로 꼽은 것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고용 보장', '4차 산업혁명 분야 육성', '경제 민주화' 등의 순으로 응답됨.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노동 유연성 보다는 고용 보장이 시급하다고 인식함.

[그림30] 경제 분야 중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분야

(Base=전체, N=각 1000명, %)



## 2) 성장과 분배

Q

귀하께서는 경제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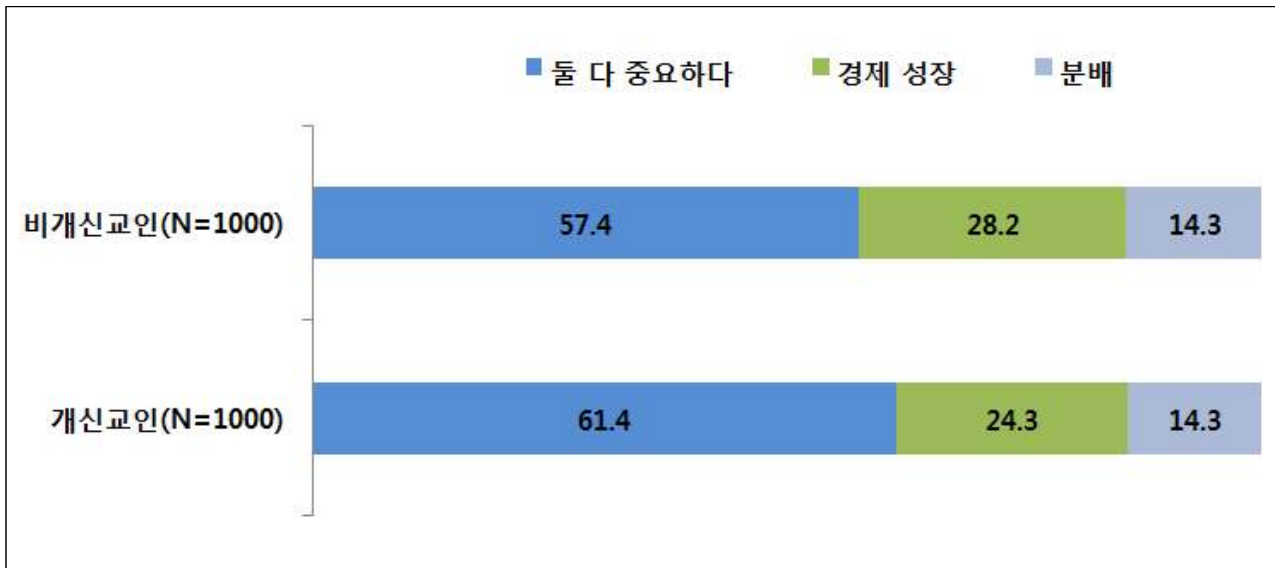


경제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과반이 '둘 다 중요하다'고 응답함.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개신교인 28.4%, 비개신교인 24.3%로 개신교인에서 약간 더 높으며, 목회자와 중직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31] 성장과 분배

(Base=전체, N=각 1000명, %)



### 3)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 수준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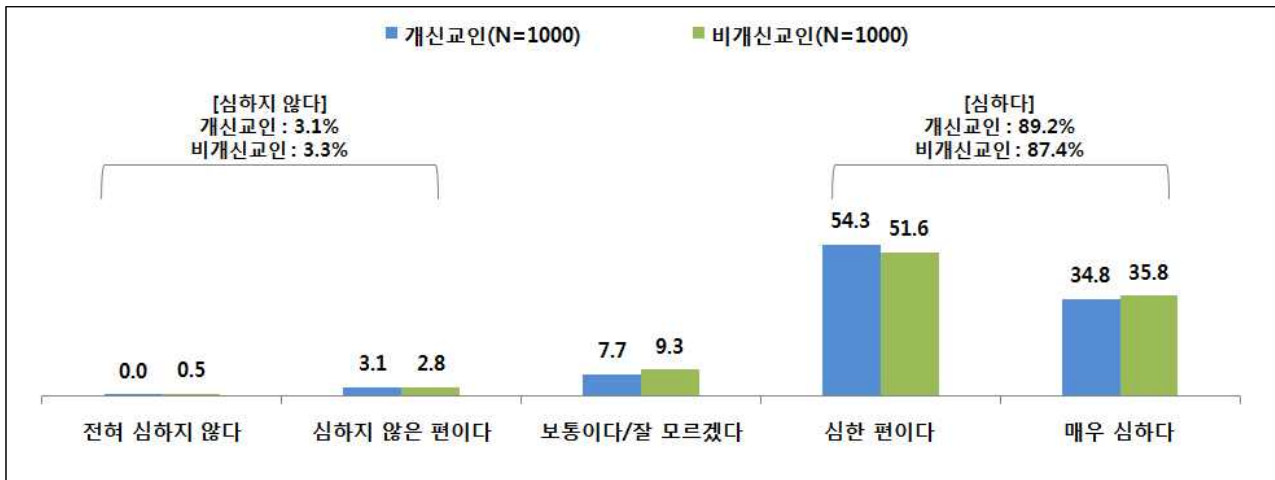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에 대해 개신교인의 89.2%, 비개신교인의 87.4%가 '심하다'고 응답함.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블루칼라 직업군에서 '심하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음.

[그림32]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 수준

(Base=전체, N=각 1000명, %)





#### 4) 가난의 원인

Q

만약 빈부 격차 수준이 심하다면, 가난의 원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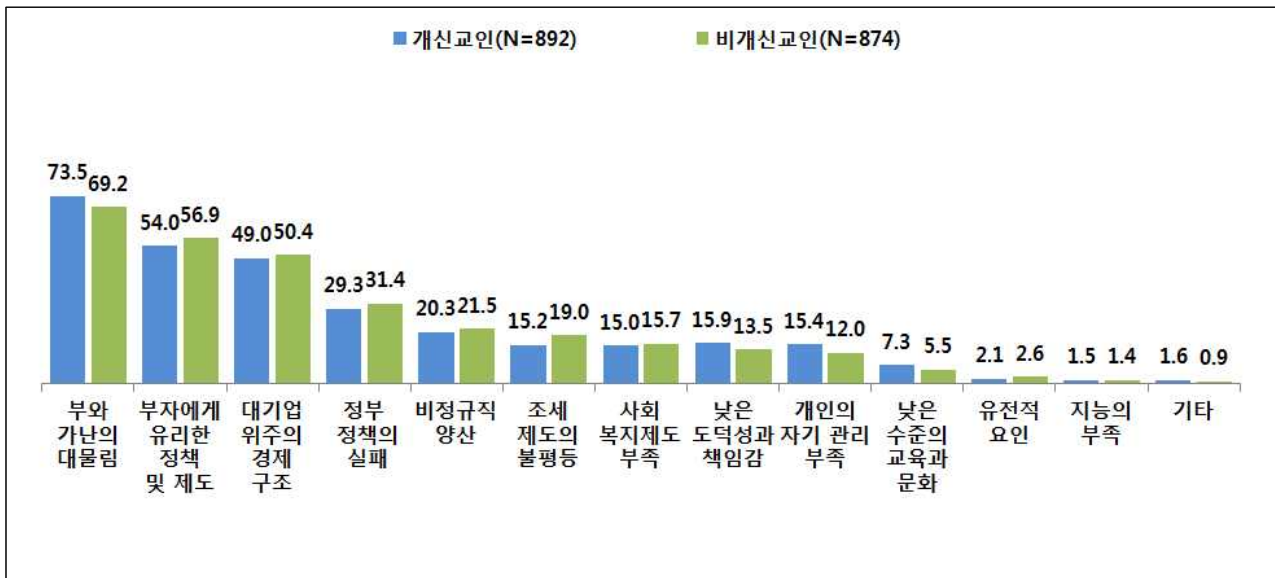
빈부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대상으로 가난의 원인을 물은 결과, '부와 가난의 대물림'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개신교인 73.5%, 비개신교인 69.2%)

그 다음으로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 및 제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 '정부 정책의 실패', '비정규직 양산' 등의 순으로 응답됨.

사회 구조와 정책에 관련된 항목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개인적 요소와 관련된 항목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33] 가난의 원인

(Base=빈부격차 '심하다' 응답자, N=개신교인 892명, 비개신교인 874명, %, 중복응답)



## 5) 현재 노동 조건 만족도

Q

귀하께서는 현재 귀하의 노동 조건(근로시간, 급여, 휴가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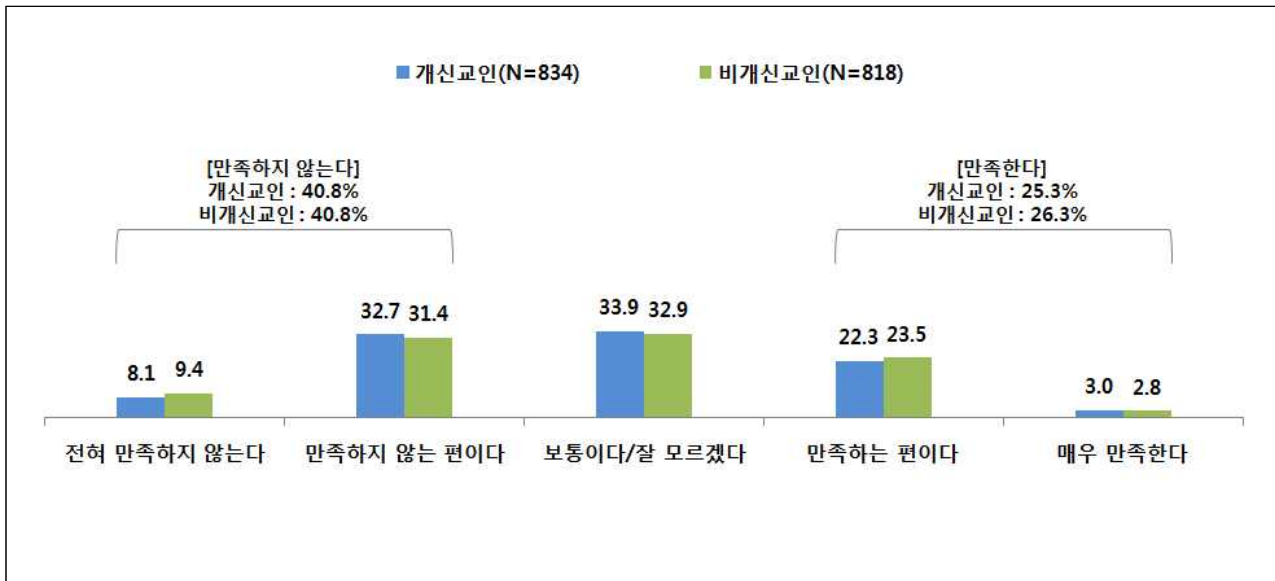


직업활동자를 대상으로 현재의 노동 조건(근로시간, 급여, 휴가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율은 20% 중반대, 불만족율은 40%대로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남자와 자영업자에서 만족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34] 현재 노동 조건 만족도

(Base=직업활동자,  
N=개신교인 834명, 비개신교인 818명, %)



## 6) 지난 주 총 노동시간

Q

귀하의 지난 주 총 노동시간(야근, 휴일 근무 포함)은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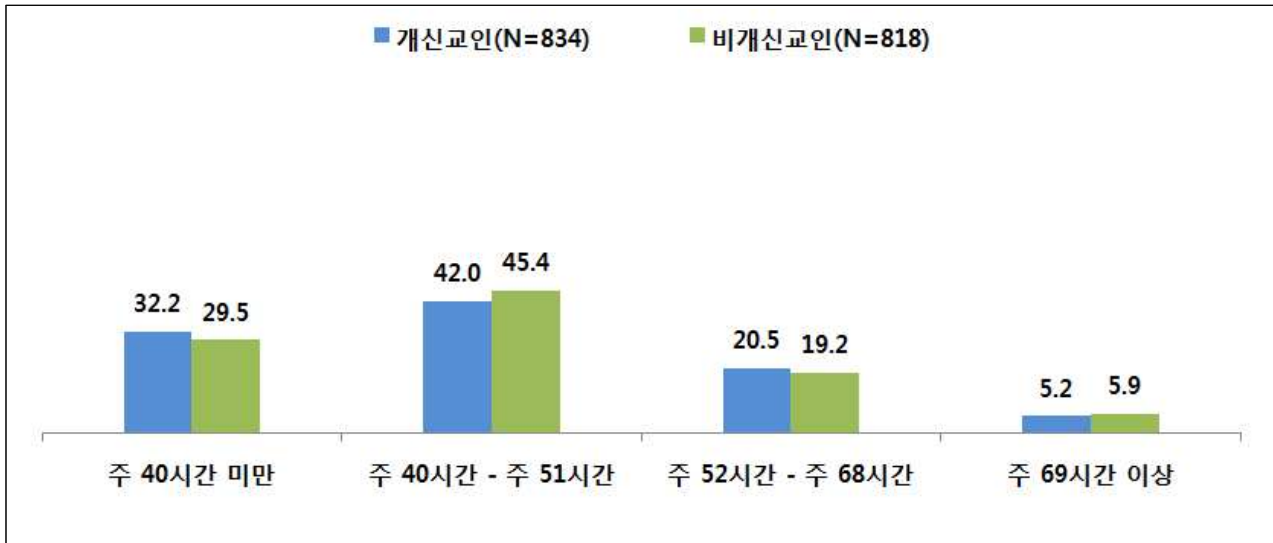
지난 주의 총 노동시간(야근, 휴일 근무 포함)은 '주 40시간~주 51시간' 응답률이 가장 높음. (개신교인 42.0%, 비개신교인 45.4%)

'주 40시간 미만'은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각각 32.2%, 29.5%이며, 여성에서 응답률이 높은 특징을 보임.

'주 69시간 이상' 응답률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자영업 직업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5] 지난 주 총 노동시간

(Base=직업활동자,  
N=개신교인 834명, 비개신교인 818명, %)



## 7) 현재 노동시간의 적절성

Q

귀하의 현재 노동시간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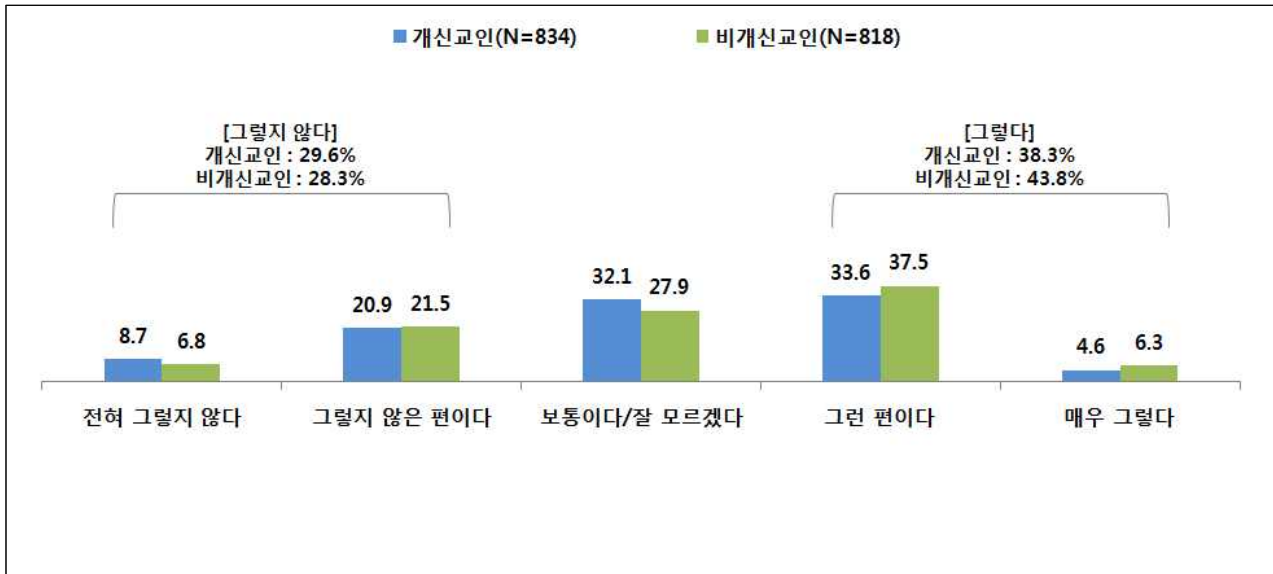


현재 노동시간에 대해 개신교인의 38.3%, 비개신교인의 43.8%가 '적절하다'(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개신교인의 29.6%, 비개신교인의 28.3%로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노동시간이 적절하다는 응답률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화이트칼라 직업군,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모두 블루칼라 직업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6] 현재 노동시간의 적절성

(Base=직업활동자,  
N=개신교인 834명, 비개신교인 818명, %)



## 8)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

Q

귀하께서는 노동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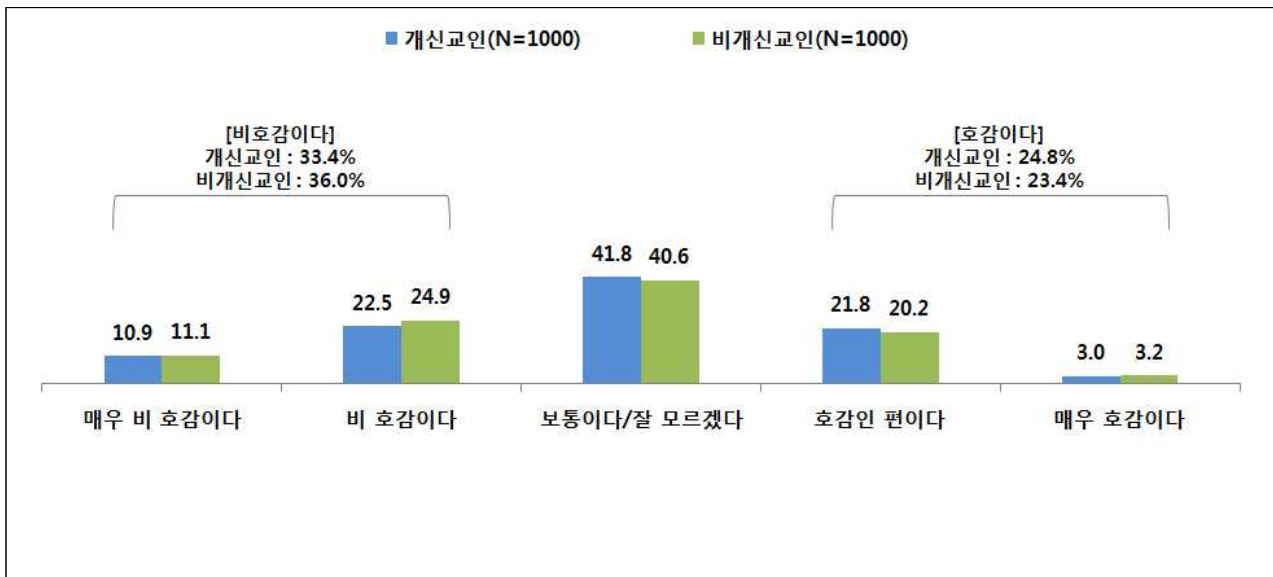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5명 중 2명은 '보통이다/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개신교인 41.8%, 비개신교인 40.6%)

노동조합에 대해 '호감'이라고 응답한 개신교인은 24.8%, 비개신교인은 23.4%로 전체의 1/4 가량이었고, '비호감'이라고 응답한 개신교인은 33.4%, 비개신교인은 36.0%로서 비호감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자영업 직군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비호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그림37]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9)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

Q

기본소득제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사회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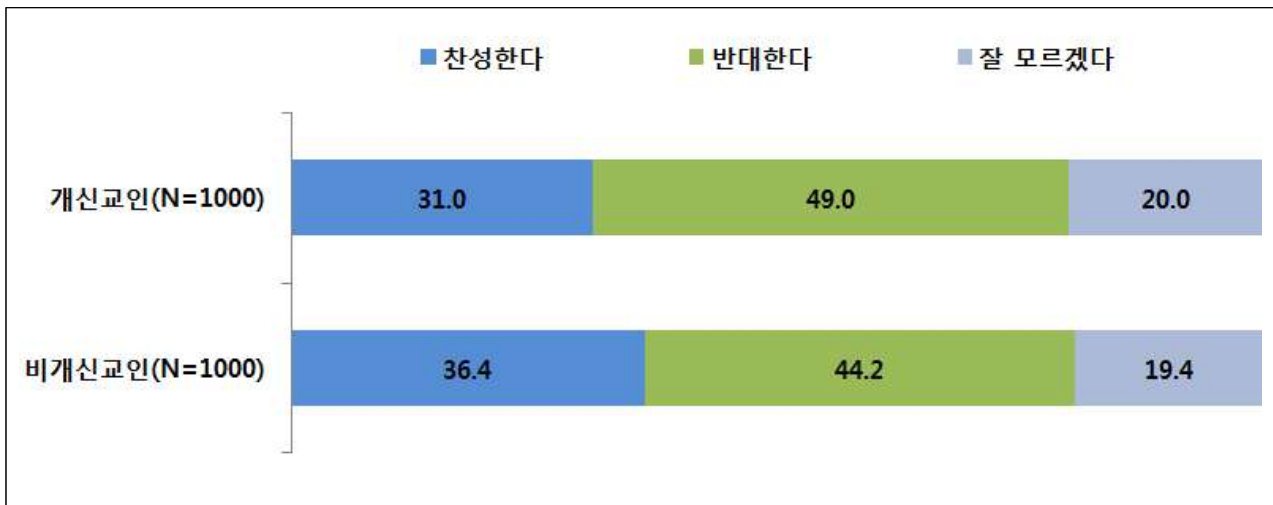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개신교인의 49.0%, 비개신교인의 44.2%가 '반대' 의견을, 개신교인 31.0%, 비개신교인 36.4%는 '찬성' 의견을 보여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더 높은 편임.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8]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10-1)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이유

Q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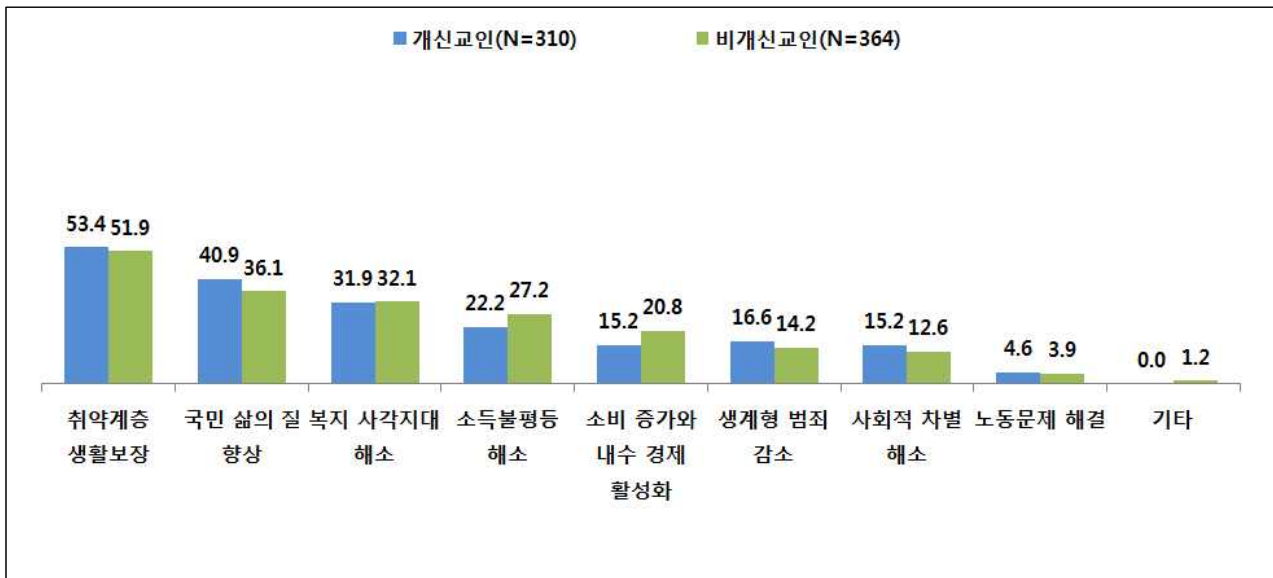
기본소득제 도입의 찬성 이유로는 '취약계층 생활보장'이 가장 많이 꼽힘. (개신교인 53.4%, 비개신교인 51.9%)

그 다음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이 나타남.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찬성 이유는 비슷한 추이로 응답되었으나, 개신교인은 '생계형 범죄 감소', '사회적 차별 해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꼽았고, 비개신교인은 '소득 불평등 해소', '소비 증가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꼽음.

[그림39]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이유

(Base=기본소득제 찬성자, N=개신교인 310명, 비개신교인 364명, %, 중복응답)



## 10-2) 기본소득제 도입 반대 이유

Q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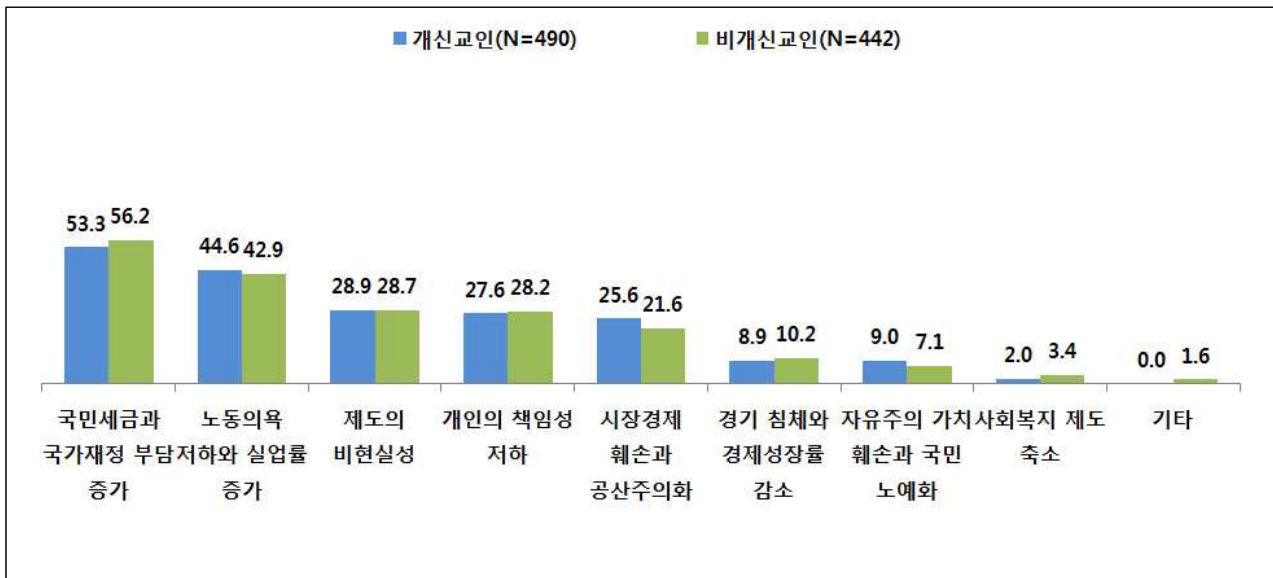
기본소득제 도입의 반대 이유로는 '국민세금과 국가재정 부담 증가'가 가장 높게 응답됨. (개신교인 53.3%, 비개신교인 56.2%)

그 다음으로 '노동의욕 저하와 실업률 증가'도 반대의 주요 이유이며, 그 외에 '제도의 비현실성', '개인의 책임성 저하' 등을 응답함.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응답에 큰 차이는 없으며,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시장경제 훼손과 공산주의화'를 약간 더 많이 응답함.

[그림40] 기본소득제 도입 반대 이유

(Base=기본소득제 반대자, N=개신교인 490명, 비개신교인 442명, %, 중복응답)





## 11) 국가의 경제시장 개입에 대한 의견

Q

경제시장에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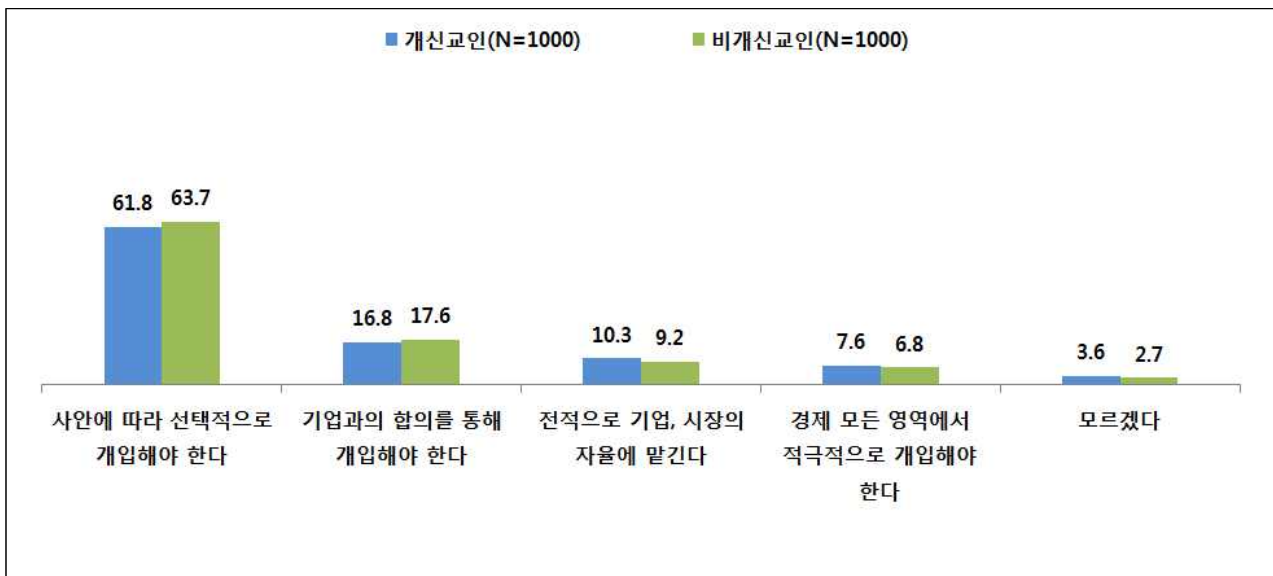


국가의 경제 개입에 대해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가 60% 넘게 응답됨. (개신교인 61.8%, 비개신교인 63.7%)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응답률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40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41] 국가의 경제시장 개입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12)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의견

Q

귀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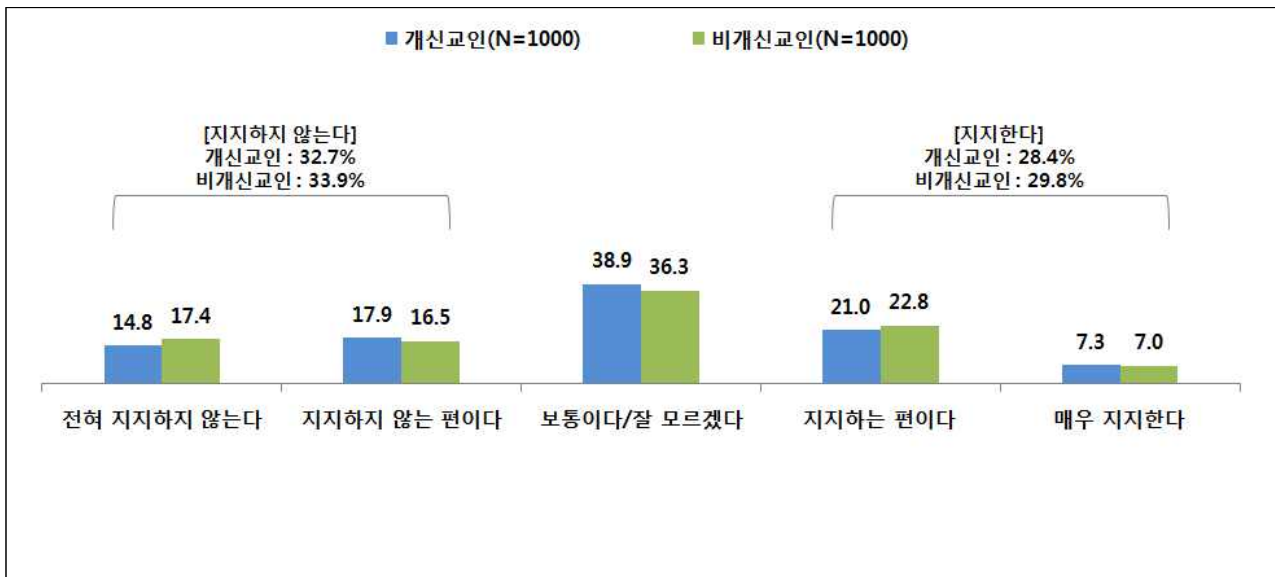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 '지지하지 않는다' > '지지한다'의 순으로 응답됨.

'지지한다' 응답률은 개신교인 28.4%, 비개신교인 29.8%이며, '지지하지 않는다' 응답률은 개신교인 32.7%, 비개신교인 33.9%로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남.

지지율은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40~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2]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13)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

Q

2019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종교인 사례비에 대해 여타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개신교인의 84.2%, 비개신교인의 92.9%가 '종교인 과세는 해야 한다'고 응답함.

'종교인 과세는 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개신교인 중 직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교인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비개신교인 중에서는 천주교에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43]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14)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

Q

현재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중부세: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과반이 '지지한다'고 응답함. (개신교인 51.1%, 비개신교인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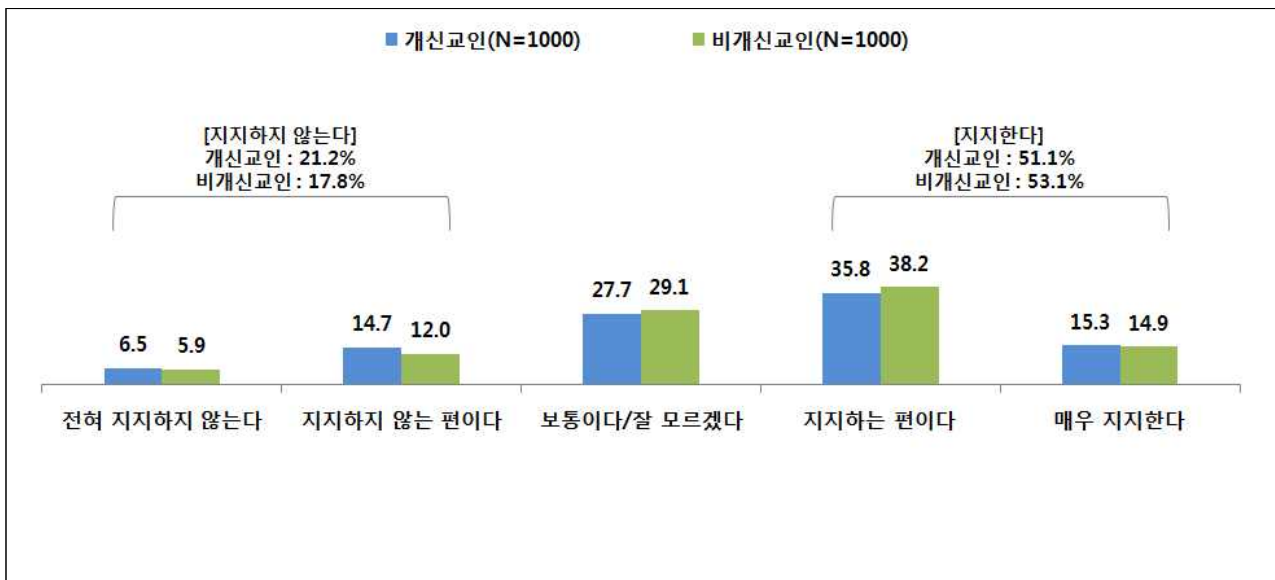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개신교인이 21.2%, 비개신교인이 17.8%로 개신교인의 지지 반대율이 약간 더 높음.

개신교인 중 지지율은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지지 반대율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가구소득 월 700만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44]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15) 기독교/교회의 가르침이 경제관에 미치는 영향 (개신교인 대상)

Q

본인의 경제관에 있어서 기독교/교회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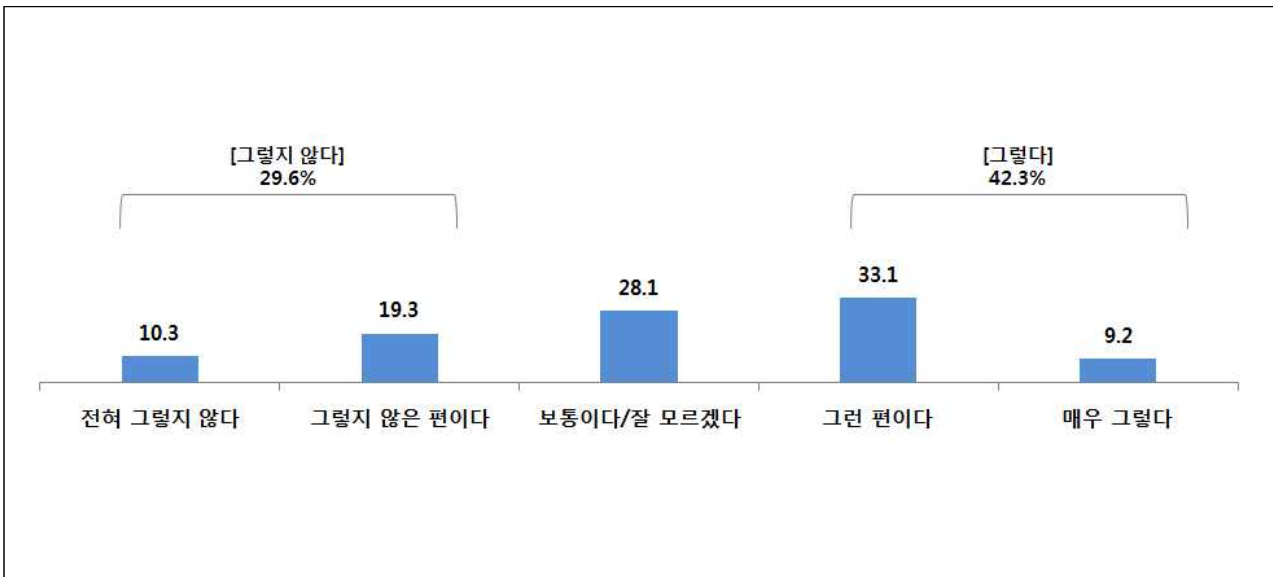


기독교와 교회의 가르침이 경제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률은 42.3%,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29.6%로써 '미쳤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남.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률은 연령이 많을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높고, 가정주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45] 기독교/교회의 가르침이 경제관에 미치는 영향 (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각 1000명, %)



## 16) 경제적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Q

경제적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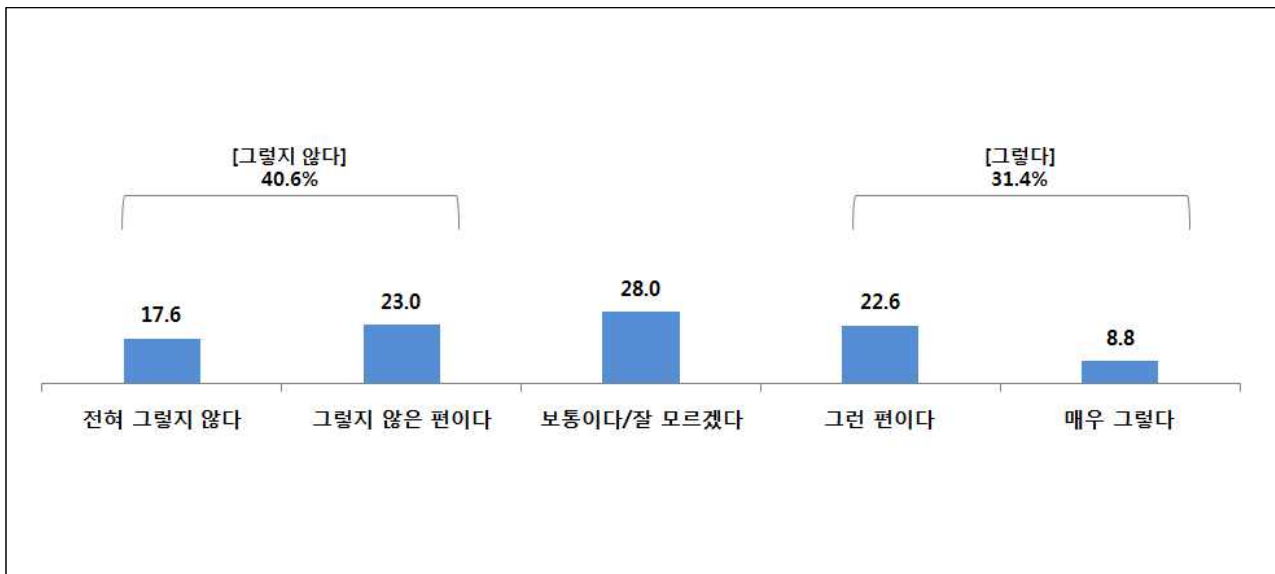


'경제적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40.6%, '그렇다'가 31.4%로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남.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목회자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46] 경제적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각 1000명, %)



## 17) 기독교 신앙 및 교회의 가르침이 경제 정의 실현에 도움되는 정도 (개신교인 대상)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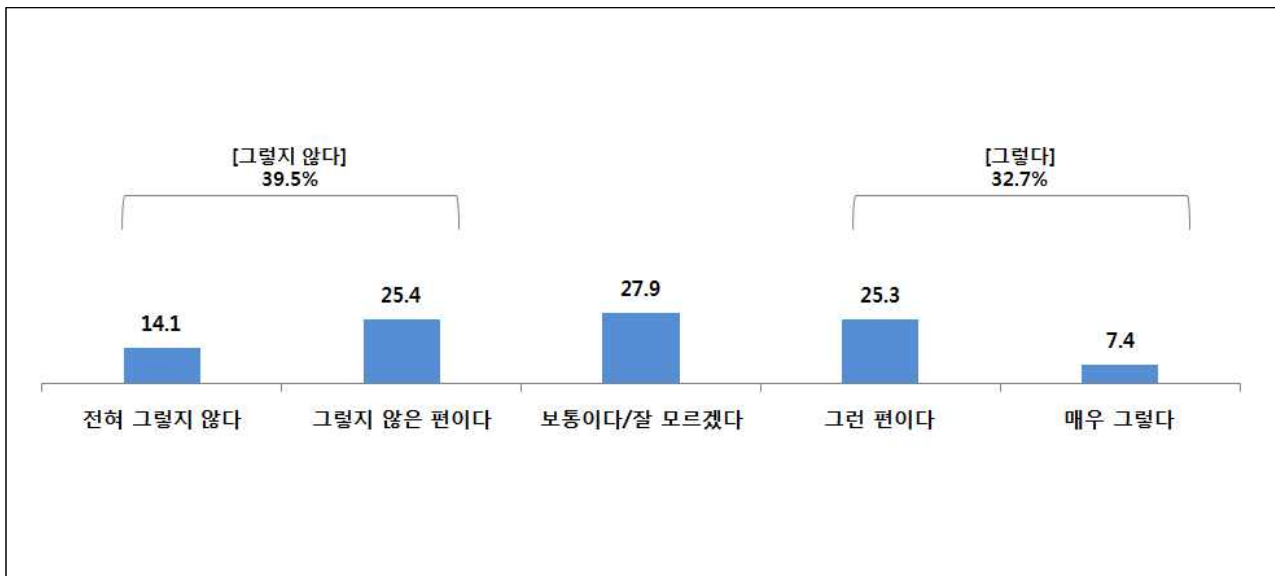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가르침이 빈부격차 해소와 공정한 부의 재분배 등 경제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가르침이 빈부격차 해소와 공정한 부의 재분배 등 경제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가 39.5%, '그렇다'가 32.7%로서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됨.

'그렇다'는 응답률은 50~6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47] 기독교 신앙 및 교회의 가르침이 경제 정의 실현에 도움되는 정도 (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각 1000명, %)



## 18)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의향 (개신교인 대상)

Q

귀하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행동(주식, 부동산 투자 등)이 성경 혹은 교회의 가르침과 충돌할 경우,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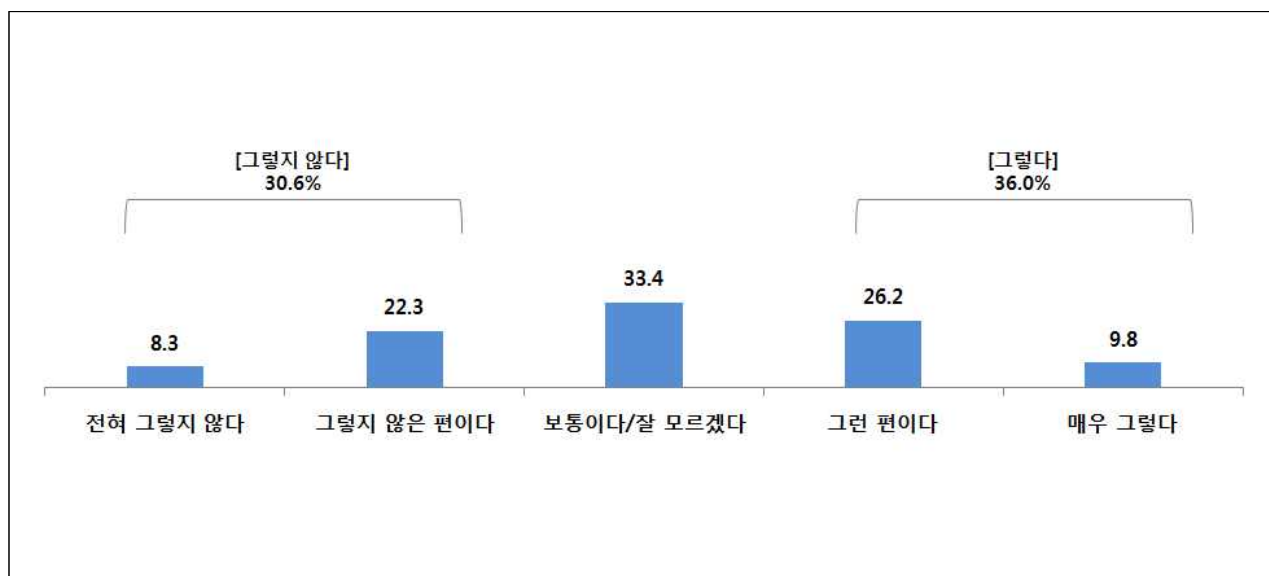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이 성경 혹은 교회의 가르침과 충돌할 경우,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묻은 결과, 개신교인의 36.0%가 '그렇다', 33.4%가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30.6%가 '그렇지 않다'로서 그렇다가 약간 높게 나타남.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기혼자와 화이트칼라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그림48]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의향 (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각 1000명, %)





## 4. 사회 문화 젠더 분야

### 1) 한국사회 남녀 성평등 수준

Q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남녀 성 평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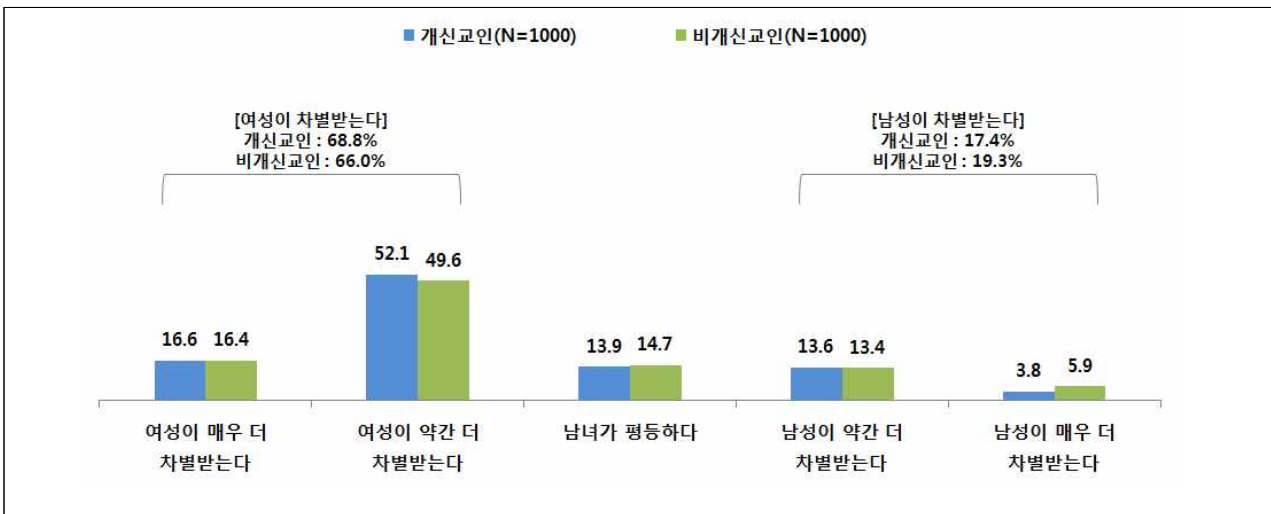


한국 사회의 성 평등에 대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여성이 차별 받는다'고 느끼고 있음. (개신교인 68.8%, 비개신교인 66.0%)

남성 가운데 '남성이 차별 받는다'는 응답은 34.6%, 여성 가운데 여성이 차별받는다라는 응답은 85.7%로 양 성 가운데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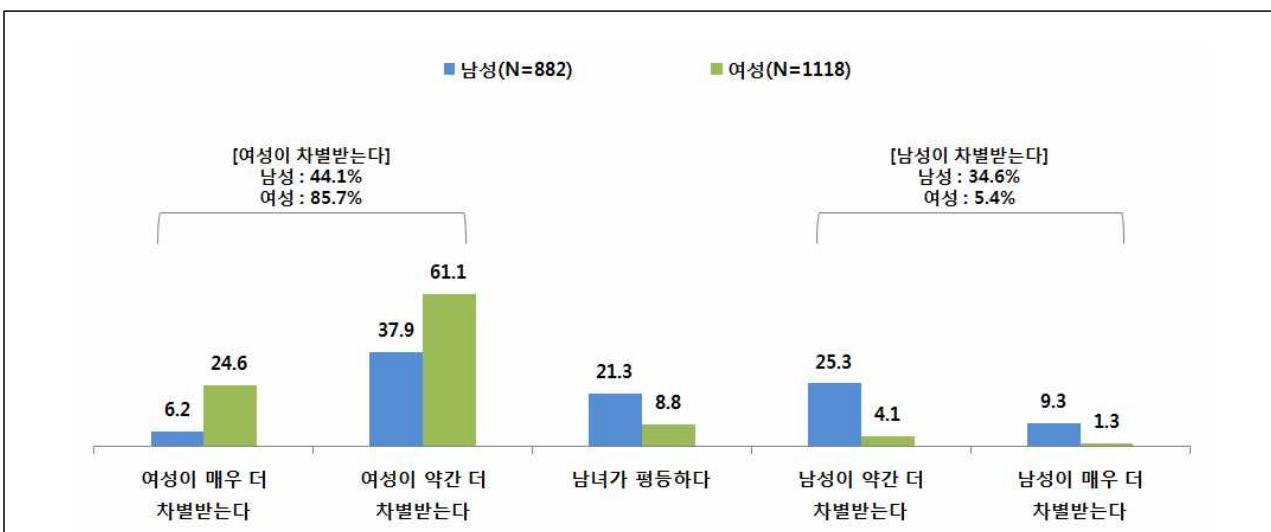
[그림49] 한국사회 남녀 성 평등 수준

(Base=전체, N=각 1000명, %)



[그림50] 한국사회 남녀 성 평등 수준

(Base=개신교인 + 비개신교인 전체, N=2000명, %)



## 2) 가정 내 성평등에 대한 의견

Q

귀하께서는 현재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정 내 성 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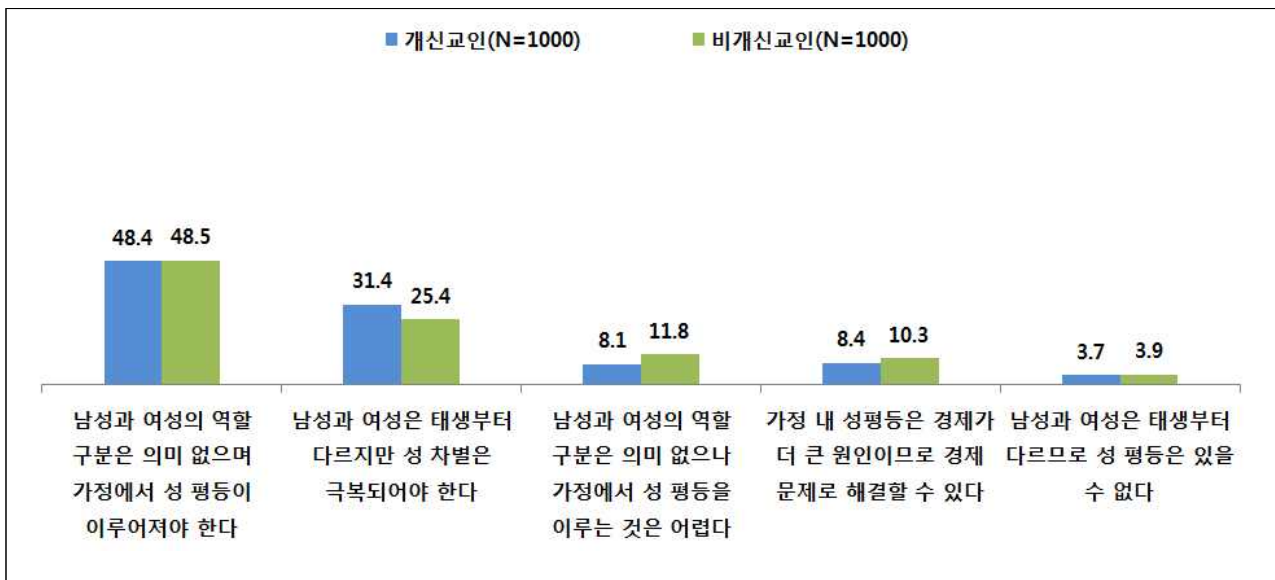


가정 내 성 평등에 대해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은 의미 없으며 가정에서 성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의 응답률이 48%대로 가장 많이 응답됨. (개신교인 48.4%, 비개신교인 48.5%)

'남성과 여성은 태생부터 다르지만 성 차별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개신교인 31.4%, 비개신교인 25.4%로 개신교인에서 약간 더 많이 응답했으며,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은 의미 없으나 가정에서 성 평등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 '가정 내 성 평등은 경제가 더 큰 원인이므로 경제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률은 비개신교인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남.

[그림51] 가정 내 성평등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3) 노동시장의 여성차별 해결을 위해 우선 시행해야 하는 것

Q

귀하께서는 여성의 낮은 고용률, 임금격차, 경력단절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 2가지만 중요한 순서대로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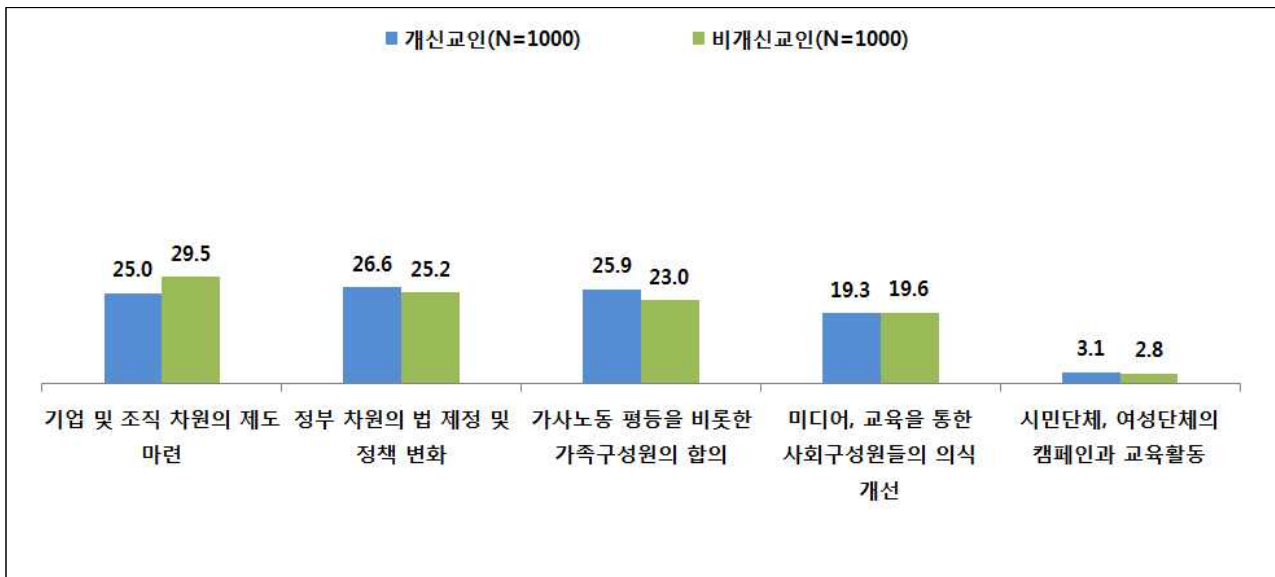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개신교인은 '정부 차원의 법 제정 및 정책 변화'를 가장 많이 꼽았고(26.6%), 비개신교인은 '기업 및 조직 차원의 제도 마련'을 가장 많이 꼽음(29.5%).

개신교인의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가사노동 평등을 비롯한 가족구성원의 합의'(25.9%)이며, 비개신교인의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정부 차원의 법 제정 및 정책 변화'(25.2%)로 나타남.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기업-정부-가정의 3 영역에서의 차별 해결을 모두 원하고 있음.

[그림52] 노동시장의 여성차별 해결을 위해 우선 시행해야 하는 것

(Base=전체, N=각 1000명, %, 중복응답)



#### 4)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뺏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Q

'낙태가 태아의 생명권을 뺏는 행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뺏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율은 개신교인이 50.2%, 비개신교인이 27.6%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이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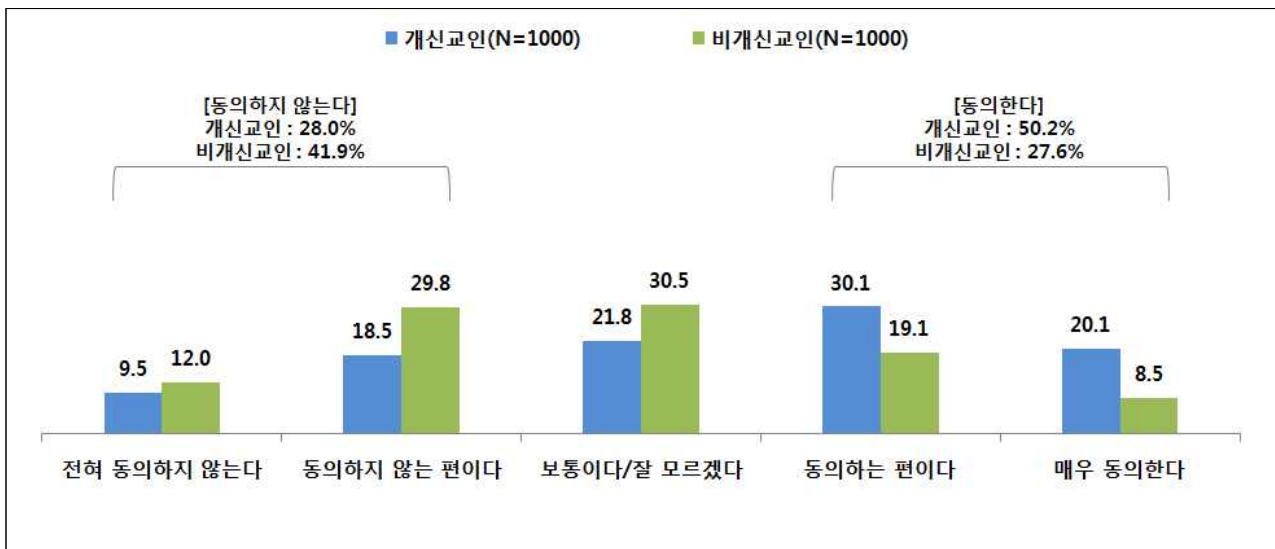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개신교인 28.0%, 비개신교인 41.9%임.

동의율은 개신교인 중 남성과 6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개신교인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있으나 남녀 모두 '동의' 비율이 높은 반면, 비개신교인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53]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뺏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5)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Q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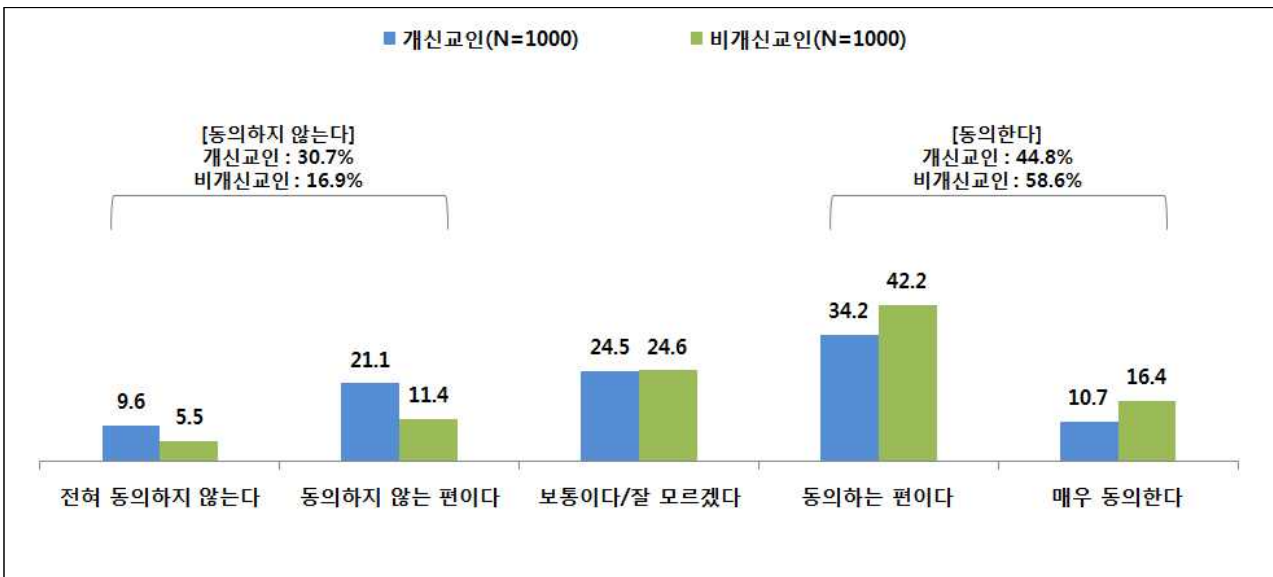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의 44.8%, 비개신교인의 58.6%가 '동의'하여 비개신교인의 동의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동의하지 않는다'는 개신교인 30.7%, 비개신교인 16.9%로 나타남.

동의율은 개신교인 중 여성과 20대, 그리고 직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비개신교인 중에서도 여성과 20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그림54]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6) '동성애는 죄'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Q

'동성애는 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는 죄'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율은 개신교인이 58.4%로 비개신교인(25.0%)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두 집단간의 큰 인식 차이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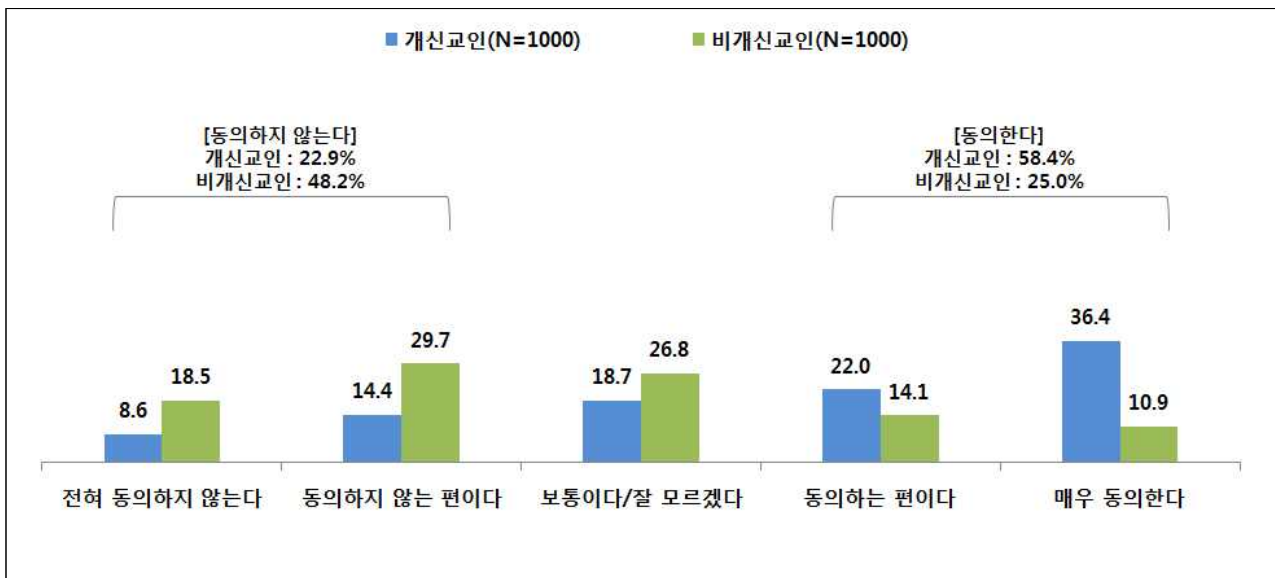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비개신교인이 48.2%로 개신교인(22.9%) 보다 2배 이상 높음.

동의율은 개신교인 중 60대에서 가장 높고,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비동의율은 비개신교인 중 20~30대에서 높고, 종교별로는 기타 종교와 무종교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55] '동성애는 죄'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7)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 미친 것

Q

귀하가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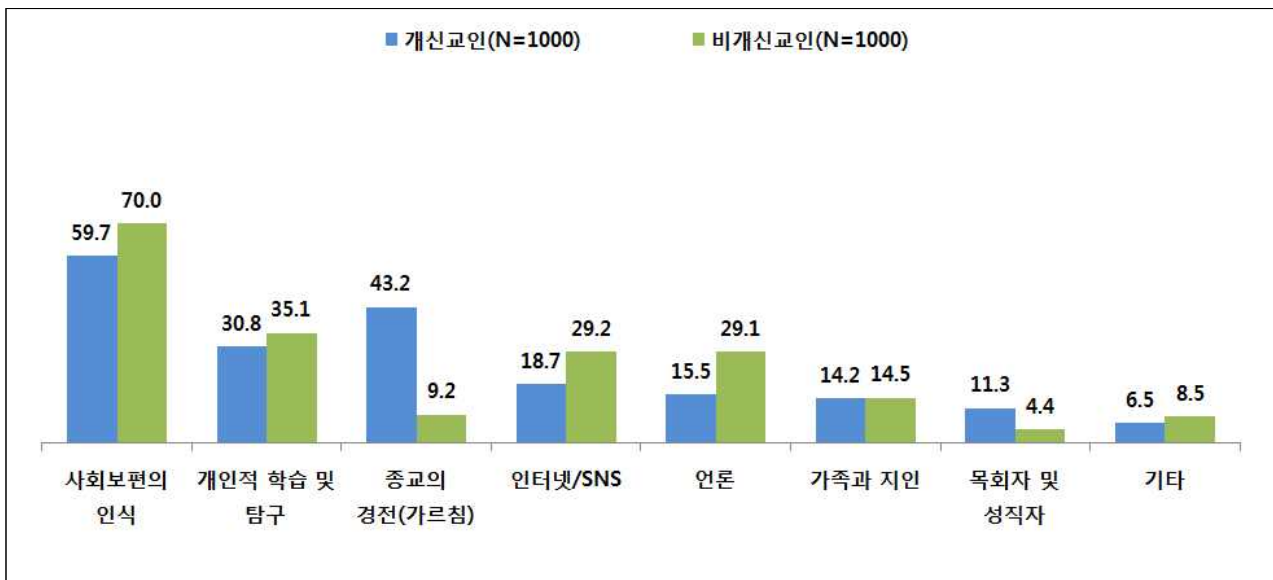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사회보편의 인식'을 가장 많이 꼽음. (개신교인 59.7%, 비개신교인 70.0%)

그 다음으로, 개신교인은 '종교의 경전(가르침)'을 많이 꼽았고(43.2%), 비개신교인은 '개인적 학습 및 탐구'를 많이 꼽음(35.1%).

비개신교인은 개신교인보다 사회 보편의 인식, 인터넷/SNS, 언론 등 대중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56]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 미친 것

(Base=전체, N=각 1000명, %, 중복응답)



## 8) 학생인권조례/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가 많아진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Q

학생인권조례/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어 동성애자가 많아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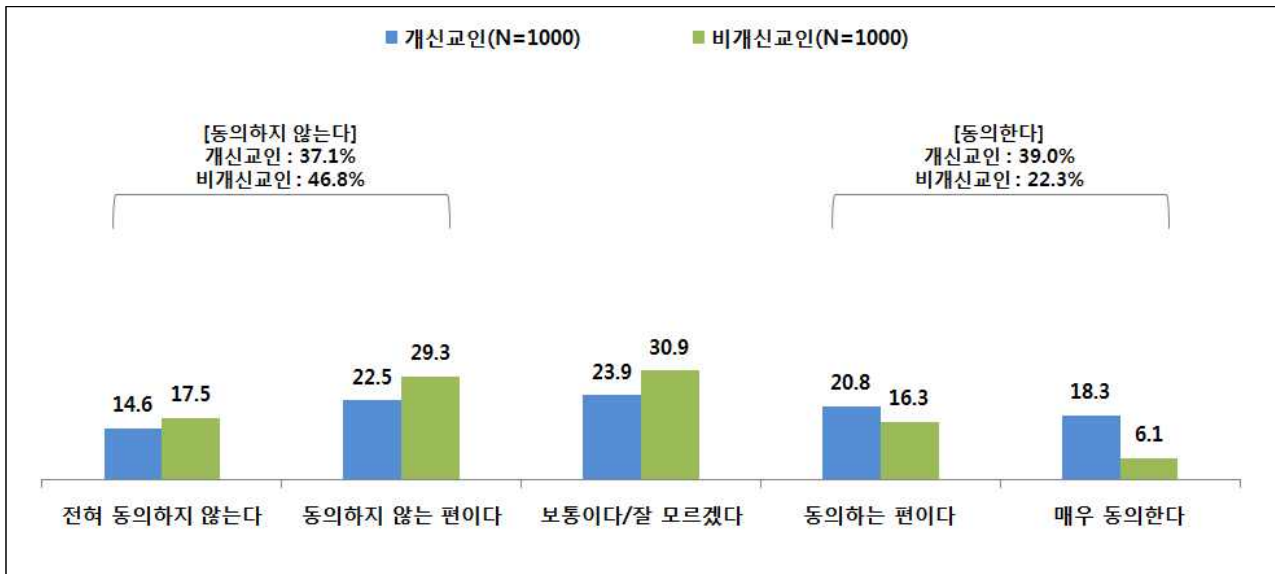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어 동성애자가 많아진다'는 주장에 대해, 개신교인은 동의 39.0%, 비동의 37.1%로 동의와 비동의가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 비개신교인은 동의 22.3%, 비동의 46.8%로 비동의율이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남.

개신교인 중 동의율은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57] 학생인권조례/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가 많아진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9) 지인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했을 때 관계의 변화

Q

귀하와 가까운 지인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하면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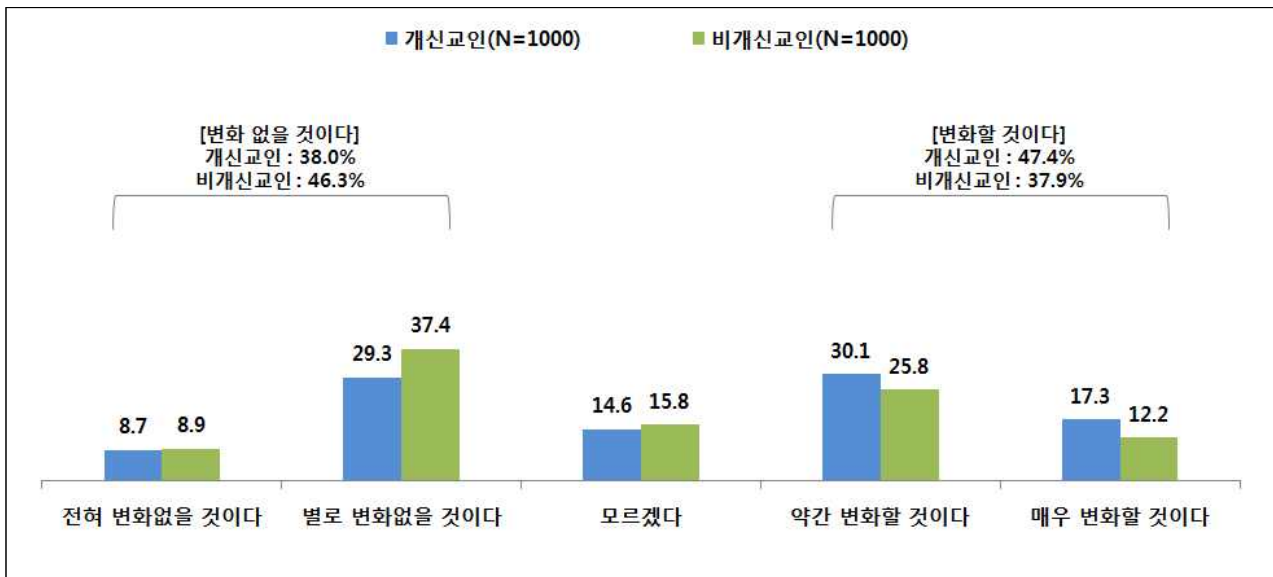


가까운 지인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한다면 관계가 어떻게 될지 조사한 결과, 개신교인은 '변화할 것이다' 47.4%, '변화 없을 것이다' 38.0%로 '변화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약간 더 높았고, 비개신교인은 '변화할 것이다' 37.9%, '변화 없을 것이다' 46.3%로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률이 약간 더 높았음.

개신교인 중 '변화할 것' 응답률은 남성에서 더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직분별로는 중직자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58] 지인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했을 때 관계의 변화

(Base=전체, N=각 1000명, %)



## 10) 예수님은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Q

귀하께서는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개신교인은 '그의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가 38.4%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그를 이성애자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와 '그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한다'가 각각 27.0%, 26.2%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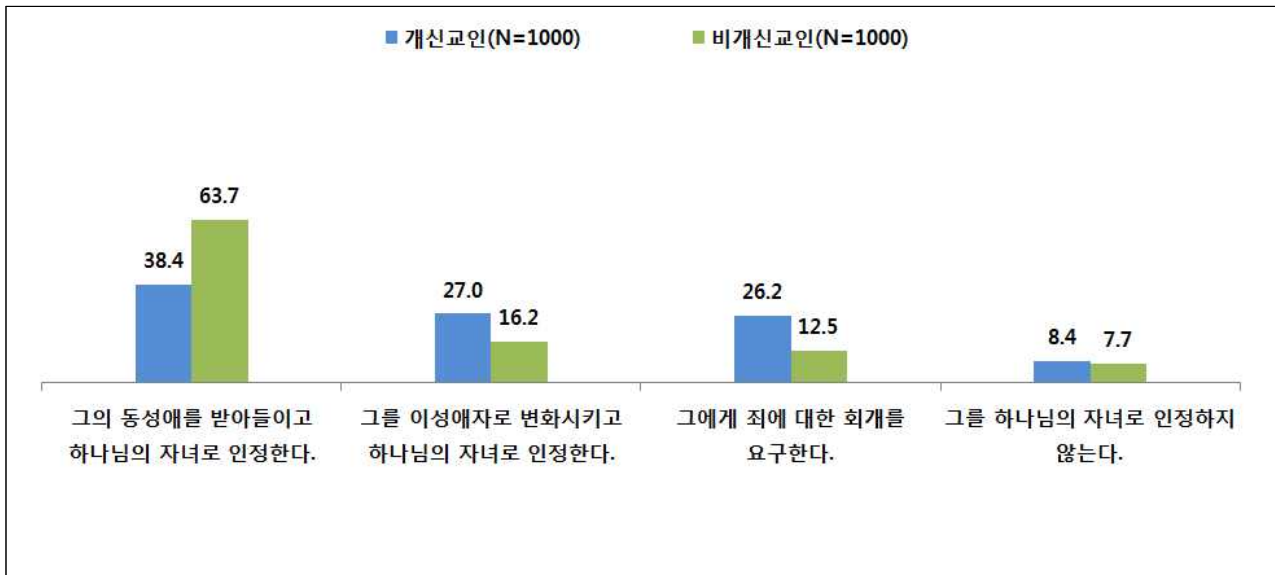
비개신교인은 '그의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가 63.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신교인은 '예수님이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그를 이성애자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 27.0%+그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한다 26.2%+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 8.4%)이 61.6%임. 비개신교인은 '예수님이 동성애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입장 63.7%로 정반대의 의견을 나타냄.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응답률은 개신교인 중 목회자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21.4%).

[그림59] 예수님은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Base=전체, N=각 1000명, %)



## 11) 동성애자 혐오 극복 방법

Q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 혐오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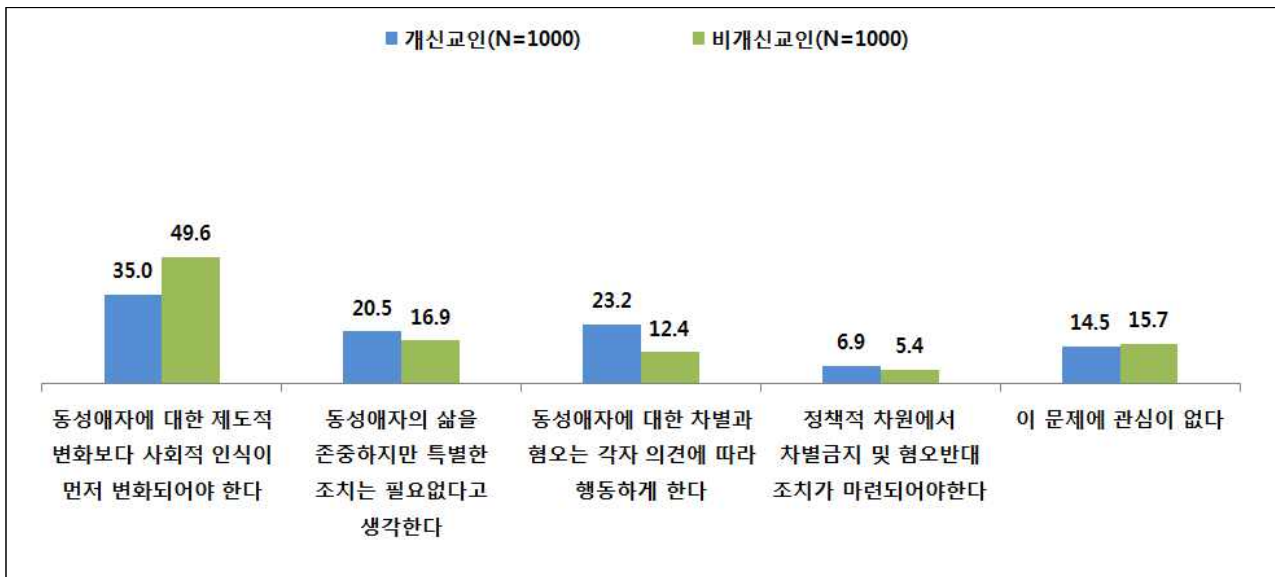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 혐오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변화보다 사회적 인식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개신교인은 35.0%, 비개신교인은 49.6%로, 14.6%p의 차이를 보임.

그 다음으로 개신교인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각자 의견에 따라 행동하게 한다'를 많이 꼽았으며 (23.2%), 비개신교인은 '동성애자의 삶을 존중하지만 특별한 조치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를 많이 꼽음(16.9%).

[그림60] 동성애자 혐오 극복 방법

(Base=전체, N=각 1000명, %)



## 12) 단체/모임(비개신교인) 또는 교회(개신교인)에서 성 문제 발생 여부

Q

(비개신교인) 귀하가 속한 단체/모임에서 성폭력 및 성추행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개신교인)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폭력 및 성추행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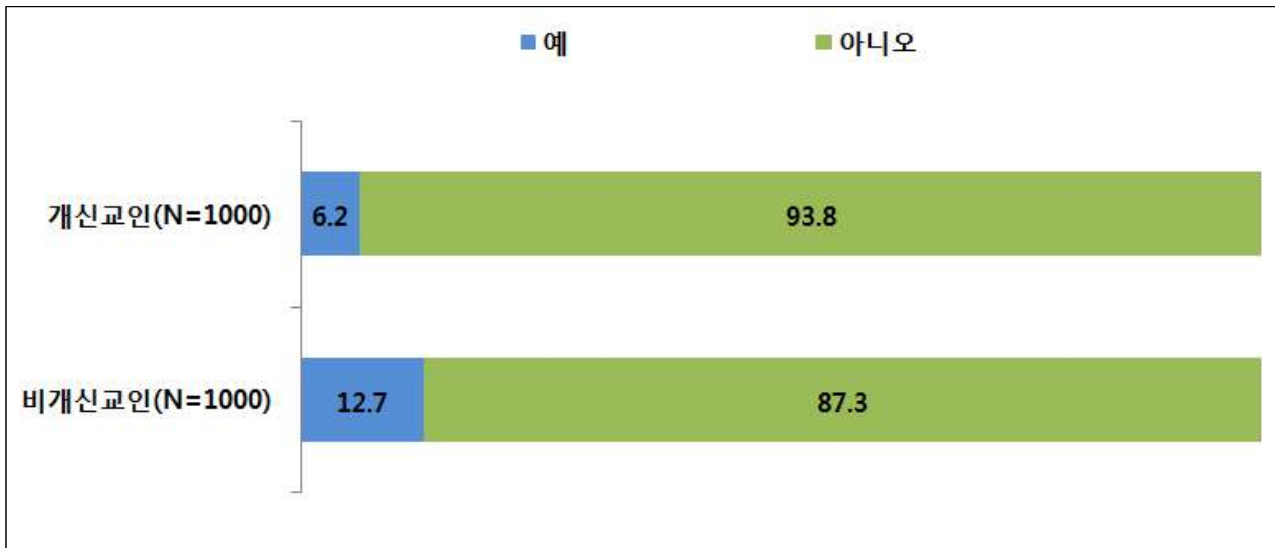


개신교인에게는 출석 교회에서의 성폭력 및 성추행 발생 여부를, 비개신교인에게는 속한 단체나 모임에서의 성폭력 및 성추행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개신교인의 6.2%, 비개신교인의 12.7%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개신교인 중 발생한 적 '있다'는 응답률은 교인수가 많은 교회일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61] 단체/모임(비개신교인) 또는 교회(개신교인)에서 성 문제 발생 여부

(Base=전체, N=각 1000명, %)



### 13) 성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

Q

귀하가 속한 단체/모임 또는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폭력 및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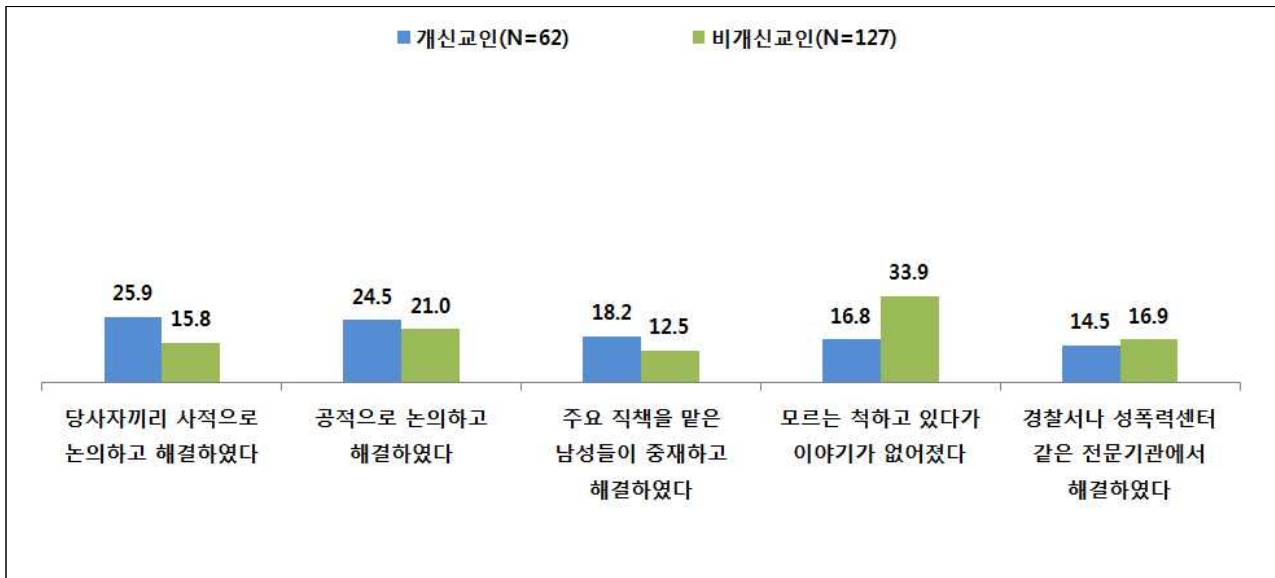


출석 교회(개신교인) 또는 속한 단체/모임(비개신교인)에서 성폭력 및 성추행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은 결과, 개신교인은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논의하고 해결'(25.9%)과 '공적으로 논의하고 해결'(24.5%)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개신교인은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이야기가 없어짐'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주요 직책을 맡은 남성들이 중재하고 해결'은 개신교인에서 약간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경찰서나 성폭력센터 같은 전문기관에서 해결'은 비개신교인에서 약간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62] 성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

(Base=성 문제 발생 '있다' 응답자, N=개신교인 62명, 비개신교인 127명, %)



## 14) 출석 교회 목회자 설교 시 성 이슈 다루는 정도 (개신교인 대상)

Q

귀하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는 설교에서 성이슈(성평등, 혼전 순결, 동성애 등)를 이야기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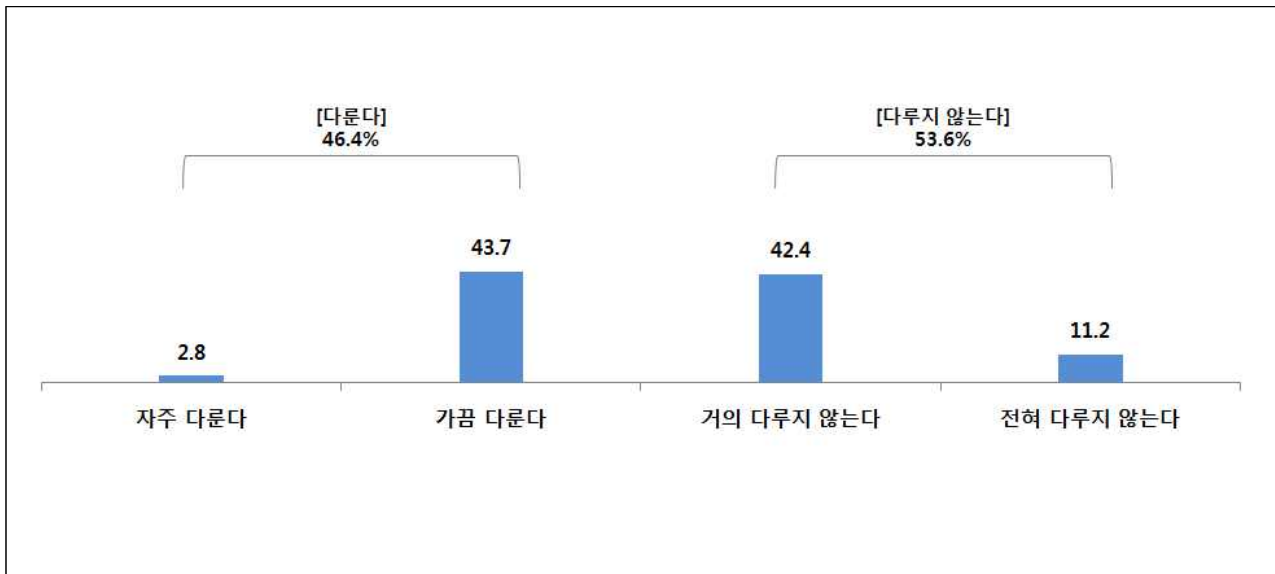


출석 교회의 목회자가 설교에서 성 이슈를 '다룬다'는 응답률은 46.4%, '다루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53.6%로, 설교 시 성 이슈를 다루지 않는 목회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성 이슈를 '다룬다'는 응답률은 목회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다루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중직자, 서리집사/권찰, 일반성도에서 높은 것으로 보아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63] 출석 교회 목회자 설교 시 성 이슈 다루는 정도 (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각 1000명, %)



## 15) 교회가 성 이슈에 보수적인 이유 (개신교인 대상)

Q

교회는 성 이슈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 이슈에 대해 보수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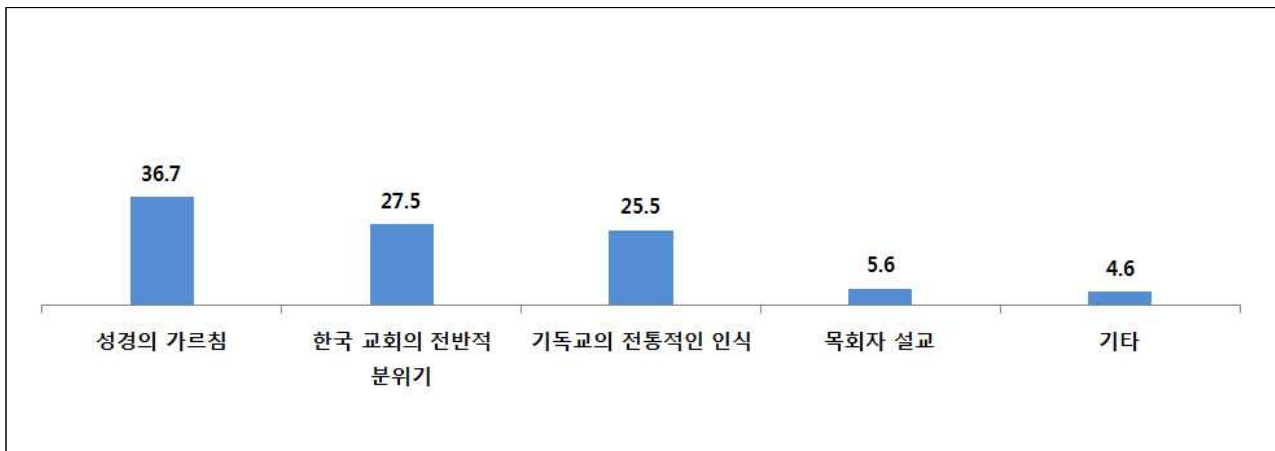
교회가 성 이슈에 대해 보수적인 이유로는 '성경의 가르침'이 36.7%로 가장 많이 꼽혔고, 그 다음으로 '한국 교회의 전반적 분위기' 27.5%, '기독교의 전통적인 인식' 2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목회자 설교'는 5.6%로 미미하게 나타남.

'성경의 가르침' 응답률은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한국 교회의 전반적 분위기'는 일반성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64] 교회가 성 이슈에 보수적인 이유 (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각 1000명, %)



## 5. 통일/평화/동아시아 국제관계 분야

### 1) 남북 통일의 필요성

Q

귀하께서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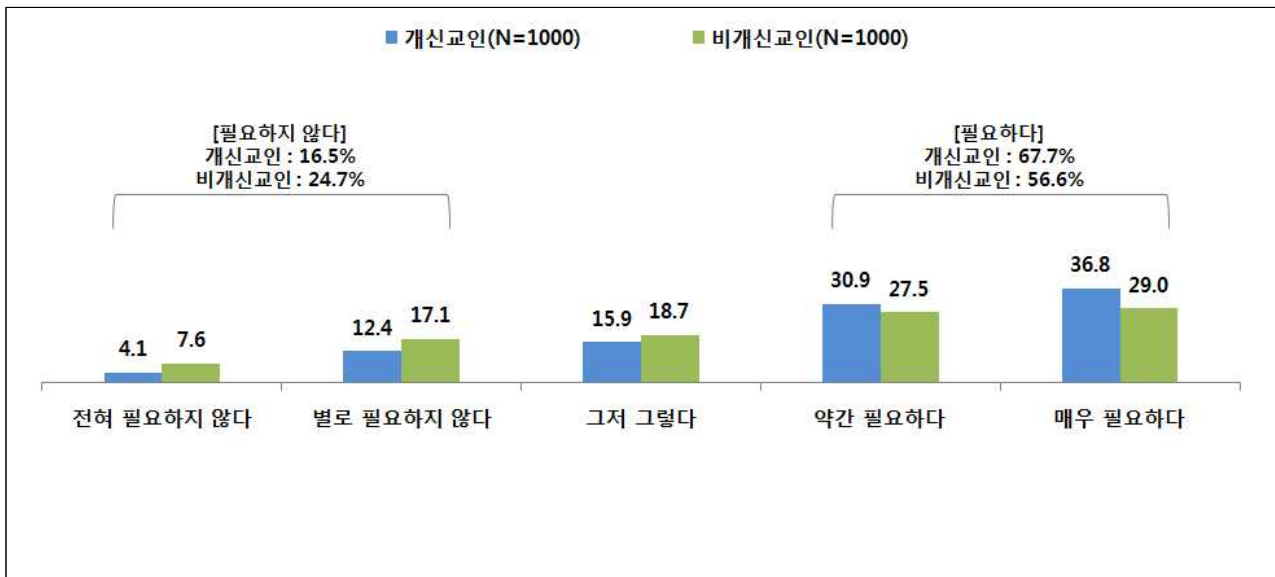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개신교인 67.7%, 비개신교인 56.6%로 개신교인의 통일 필요성 인식이 비개신교인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개신교인 중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남성과 60대, 그리고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교인수가 많은 교회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그림65] 남북 통일의 필요성

(Base=전체, N=각 1000명, %)





## 2) 통일에 대한 의견

Q

통일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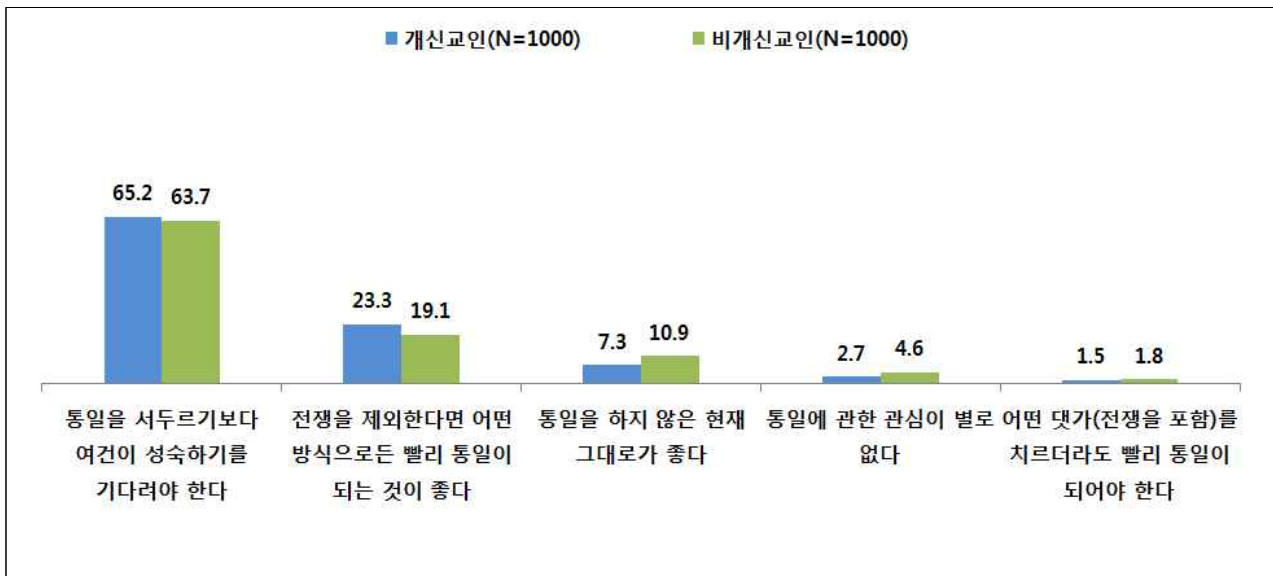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률이 개신교인, 비개신교인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개신교인 65.2%, 비개신교인 63.7%)

그 다음으로 '전쟁을 제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개신교인 23.3%, 비개신교인 19.1%), '통일을 하지 않은 현재 그대로가 좋다'(개신교인 7.3%, 비개신교인 10.9%)의 순으로 나타남.

개신교인 가운데는 4~50대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였으며, 2~30대와 60대는 '전쟁을 제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기함.

[그림66] 통일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3)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시급한 문제

Q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문제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한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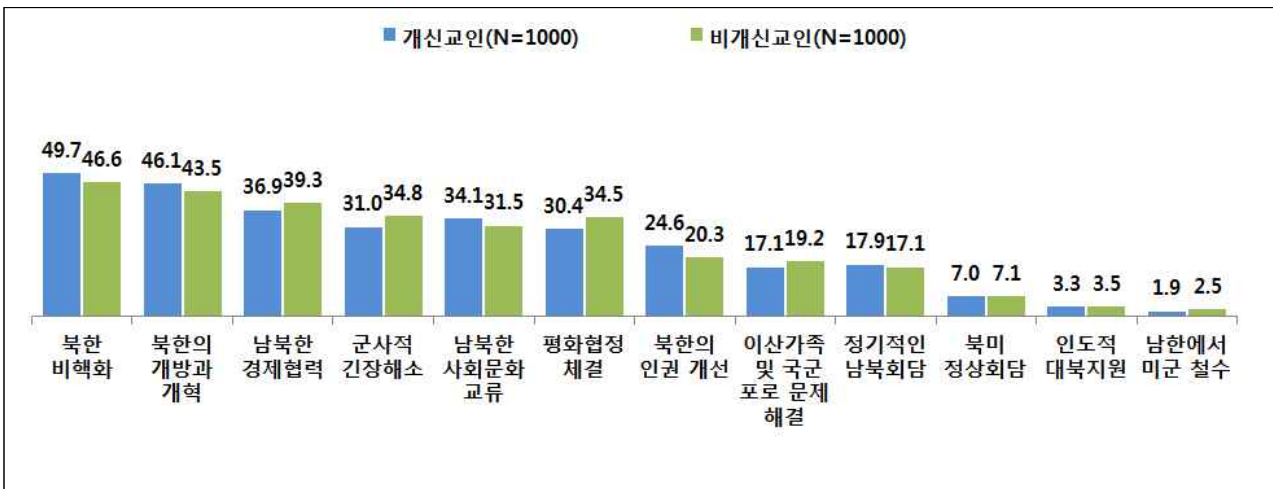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시급한 문제로,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북한 비핵화'를 가장 많이 꼽음. (개신교인 49.7%, 비개신교인 46.6%)

그 다음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 '남북한 경제협력'의 순으로 응답됨.

'군사적 긴장 해소'와 '평화협정 체결'은 비개신교인에서 약간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북한의 인권 개선'은 개신교인에서 약간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67]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시급한 문제

(Base=전체, N=각 1000명, %, 중복응답)



#### 4)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

Q

귀하께서는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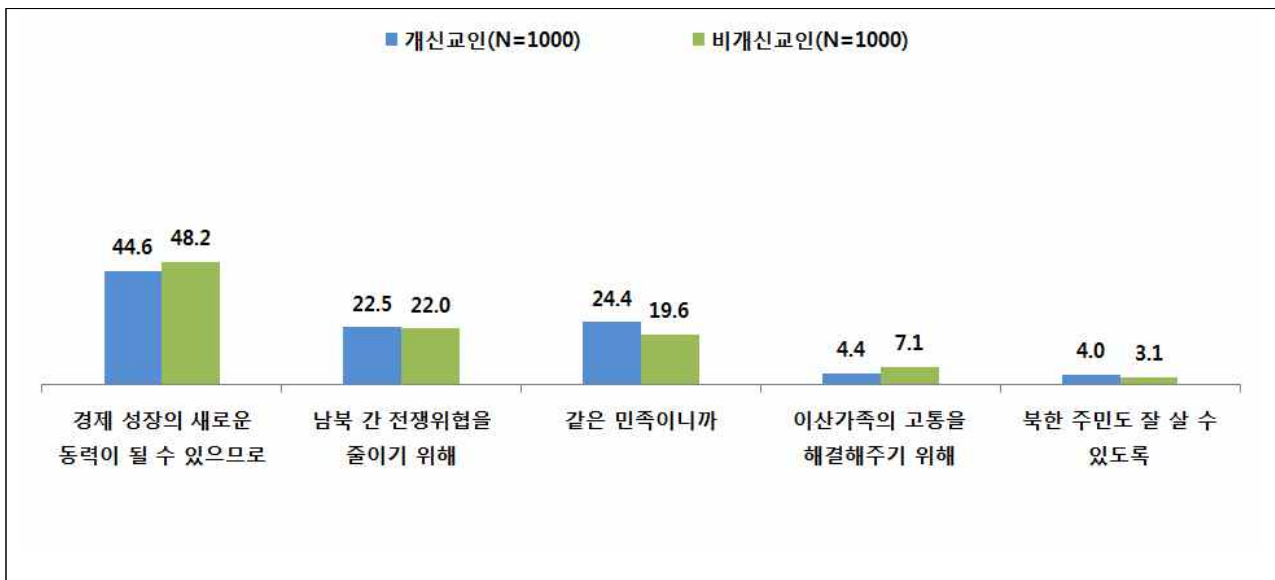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를 가장 많이 꼽음. (개신교인 44.6%, 비개신교인 48.2%)

'남북 간 전쟁위험을 줄이기 위해'는 개신교인, 비개신교인이 비슷한 비율로 응답했으며, '같은 민족이니까'는 개신교인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남.

'경제 성장의 동력' 응답률은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북 간 전쟁위험 감소'는 개신교인 중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그림68]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

(Base=전체, N=각 1000명, %)



## 5)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체제

Q

귀하께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체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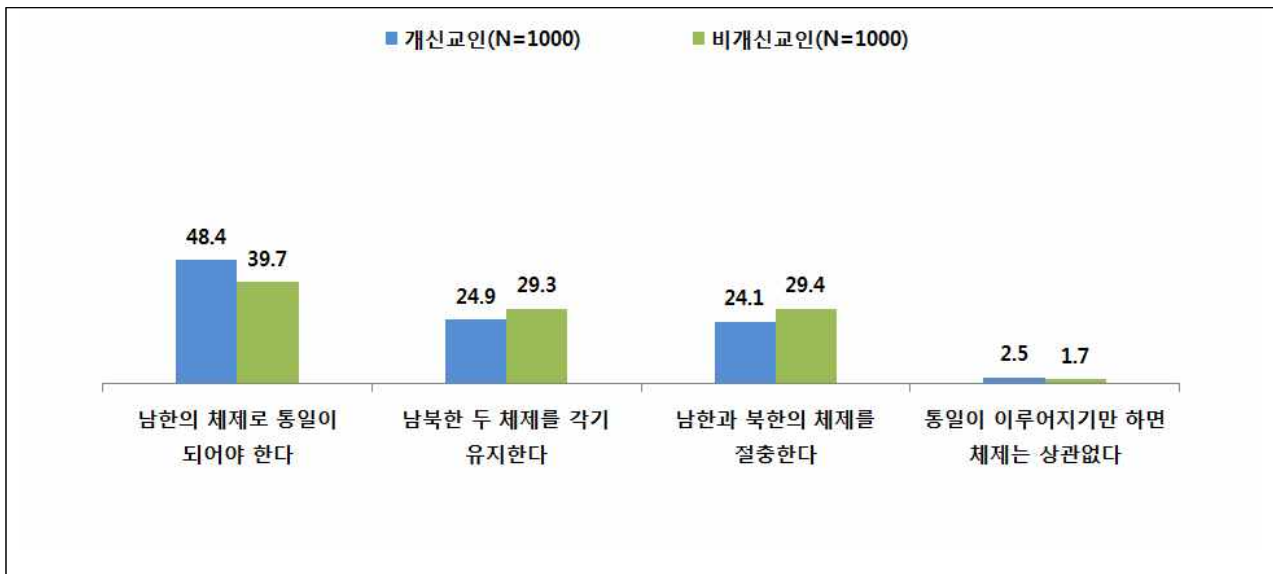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적절한 체제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남한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를 가장 많이 응답했는데 특히 개신교인의 응답율이 높게 나타남. (개신교인 48.4%, 비개신교인 39.7%)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 및 '남북한 체제 절충'은 비개신교인에서 약간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69]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체제

(Base=전체, N=각 1000명, %)



## 6)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견

Q

최근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를 향해 개혁개방을 표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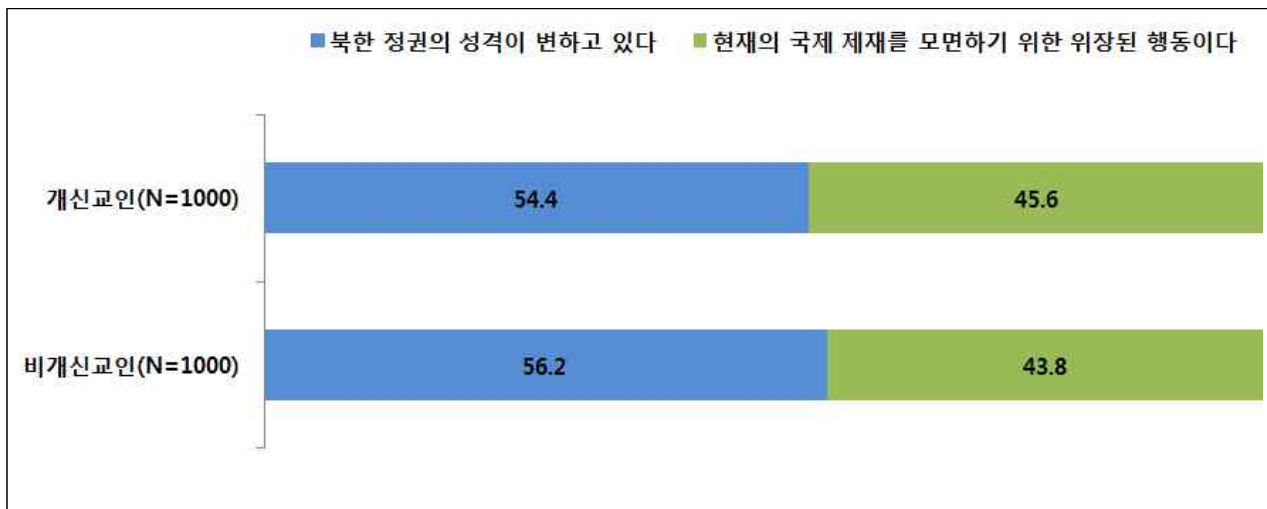


북한의 개혁개방 표방 움직임에 대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과반수 이상이 '북한 정권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고 응답함. (개신교인 54.4%, 비개신교인 56.2%)

'현재의 국가 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위장된 행동이다'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20대와 60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개신교인 중 중직자와 목회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70]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7)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방안

Q

귀하께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방안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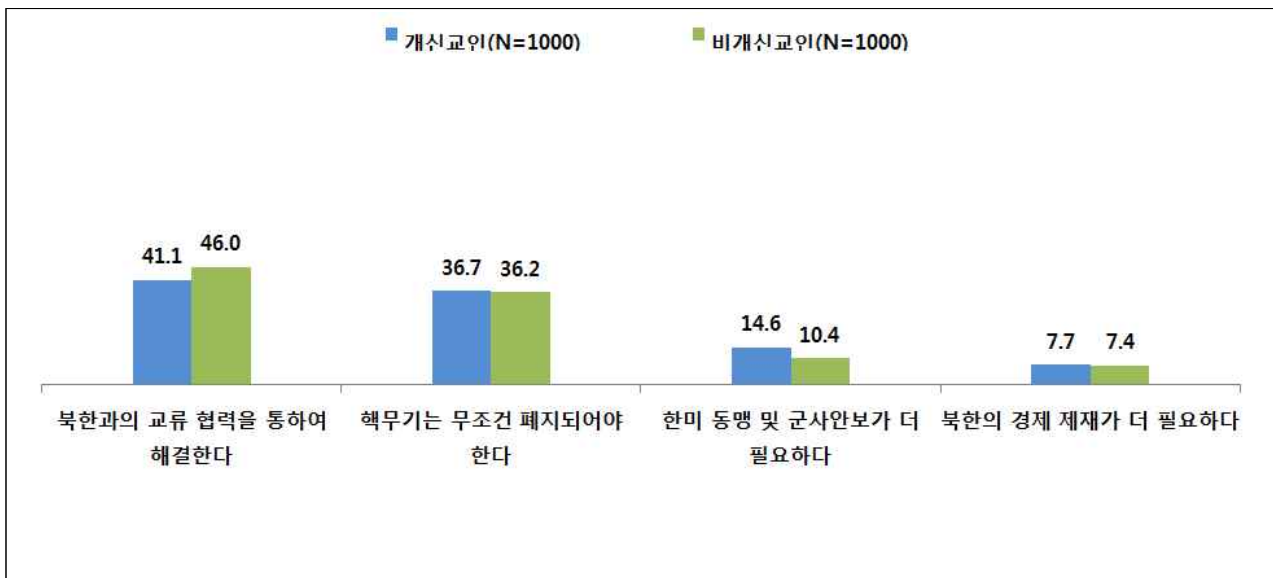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해결'이 가장 많이 응답됨. (개신교인 41.1%, 비개신교인 46.0%)

그 다음으로 '핵무기는 무조건 폐지되어야 함' > '한미 동맹 및 군사안보가 더 필요' > '북한의 경제 제재가 더 필요' 등의 순으로 응답됨.

'교류 협력을 통해 해결'은 개신교인 중 직분이 낮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핵무기는 무조건 폐지'와 '한미 동맹 및 군사안보 필요'는 목회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그림7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방안

(Base=전체, N=각 1000명, %)



## 8)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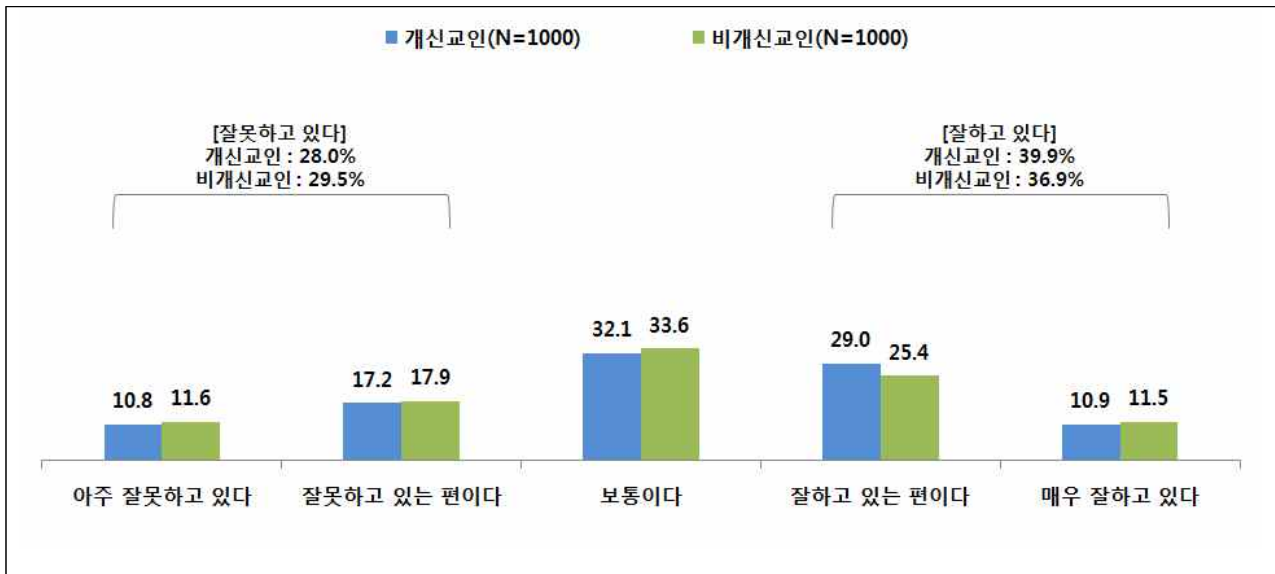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해 개신교인의 39.9%, 비개신교인의 36.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함. '보통이다'는 개신교인 32.1%, 비개신교인 33.6%이며, '잘 못하고 있다'는 개신교인 28.0%, 비개신교인 29.5%로 사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근소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개신교인 중 직분이 낮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72]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9)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

Q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현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 중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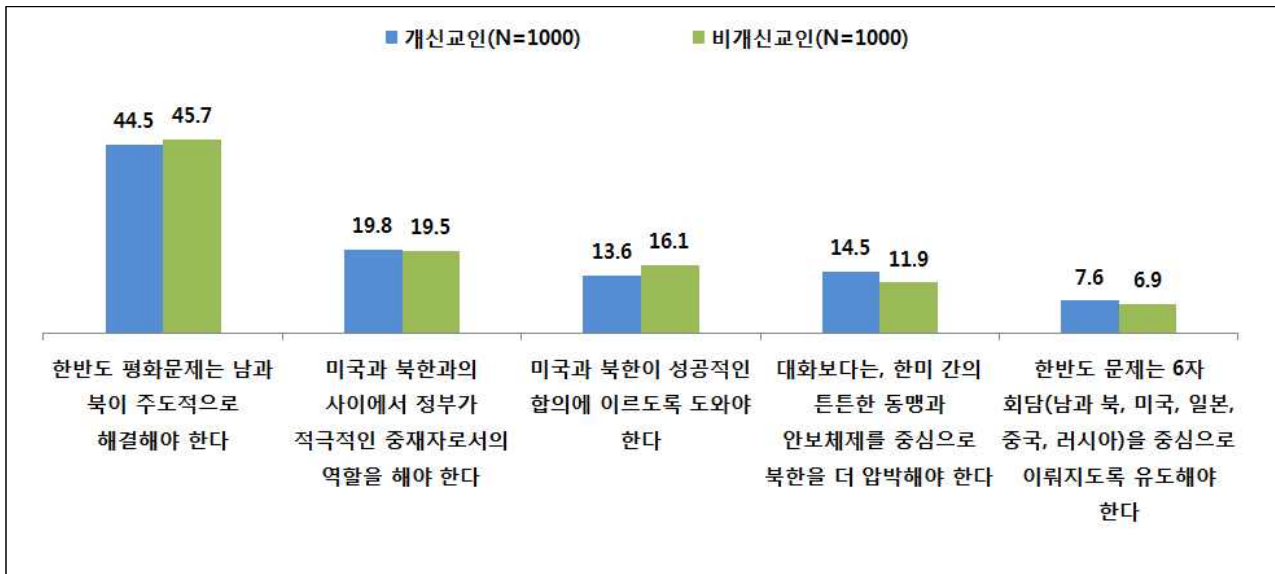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현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를 가장 많이 꼽음. (개신교인 44.5%, 비개신교인 45.7%)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됐으며, '북미간 성공적 합의를 도움'은 비개신교인에서 약간 더 높고, '북한을 더 압박'은 개신교인에서 약간 더 높게 응답됨.

[그림7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10) 탈북자 친밀도

Q

귀하께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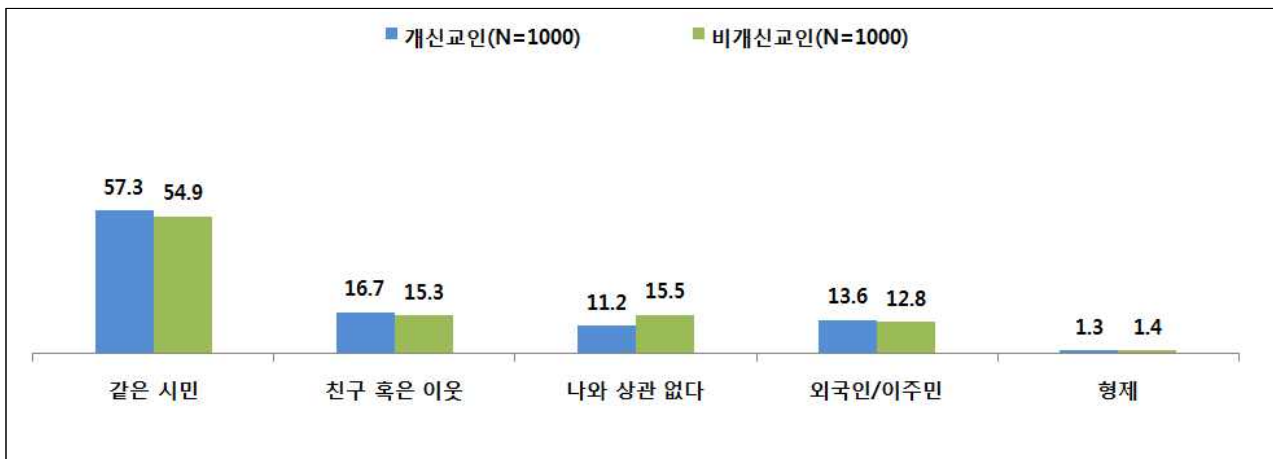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에게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과반이 '같은 시민'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약간 상회함.(개신교인 57.3%, 비개신교인 54.9%)

'같은 시민', '친구 혹은 이웃'과 같이 동질감/유대감을 갖는 비율은 개신교인 74.0%, 비개신교인 70.2%로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나와 상관없다'거나 '외국인/이주민'과 같이 동질/연대감을 갖지 못하는 비율은 개신교인 24.8%, 비개신교인 28.3%으로서 비개신교인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같은 시민' 응답률은 개신교인 50대, 비개신교인 60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친구 혹은 이웃'은 개신교인 중 목회자와 중직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74] 탈북자 친밀도

(Base=전체, N=각 1000명, %)



## 11)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Q

귀하께서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하여 얻습니까? 가장 자주 접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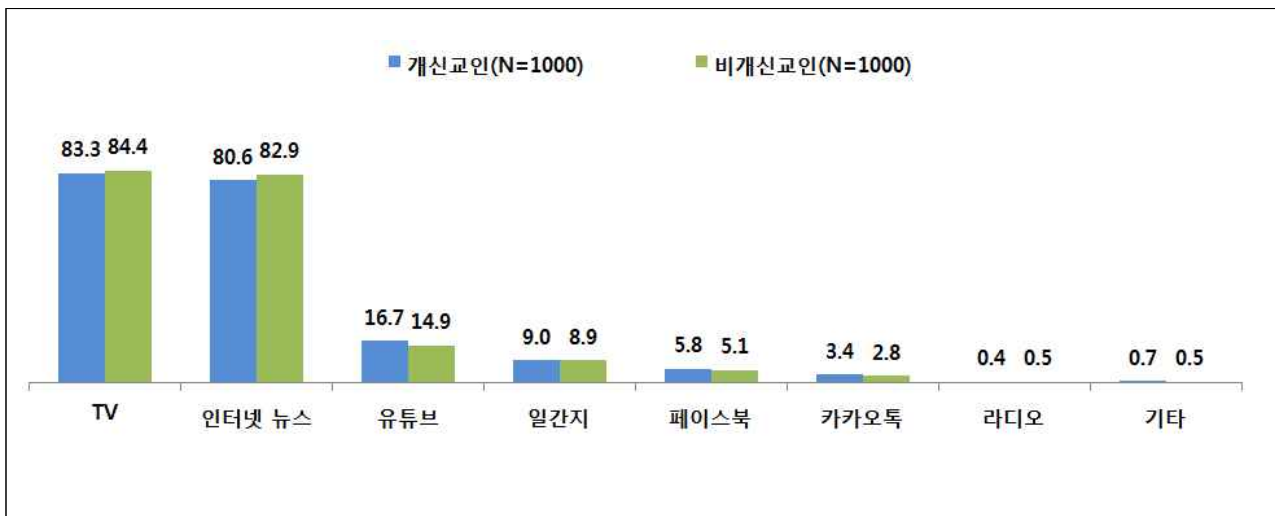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TV'(개신교인 83.3%, 비개신교인 84.4%)와 '인터넷 뉴스'(개신교인 80.6%, 비개신교인 82.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응답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TV', '인터넷 뉴스' 다음으로는 '유튜브'가 높게 나타남.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인터넷 뉴스' 응답률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유튜브' 응답률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그림75]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Base=전체, N=각 1000명, %, 중복응답)



## 12)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

Q

귀하께서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데 어떤 경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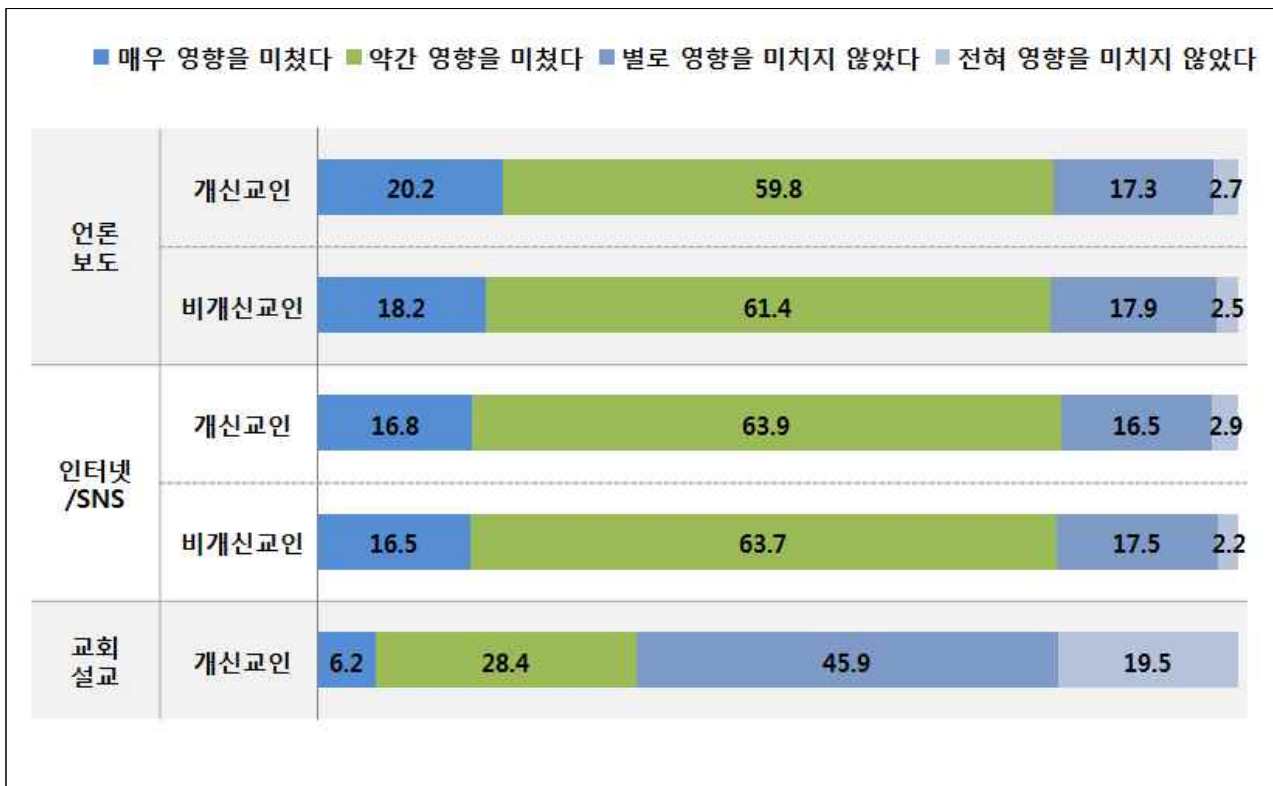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언론보도'와 '인터넷/SNS'의 영향력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에서 비슷하게 나타남.

'언론보도' 영향력은 개신교인 중 여성과 40대, 목회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비개신교인 중 여성과 60대, 그리고 전업주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교회 설교'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개신교인은 34.6%이며, 여성과 60대, 그리고 목회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76]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

(Base=전체, N=각 1000명, %)



### 13) 출석 교회 목회자의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 설교 빈도 (개신교인 대상)

Q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 목회자는 통일 및 남북문제에 관련한 설교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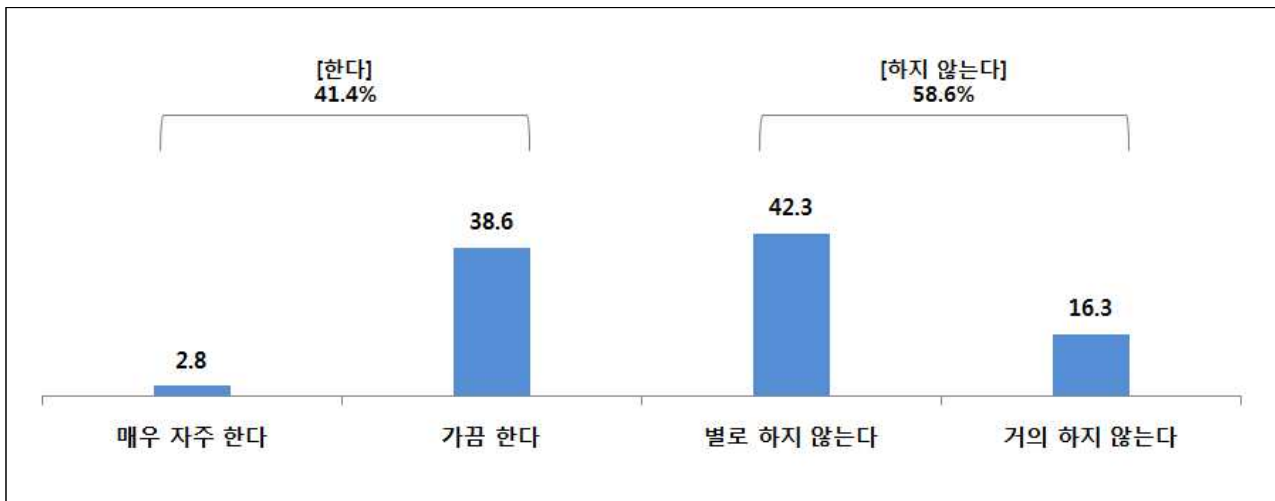
출석 교회의 목회자가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설교를 하는지 조사한 결과, 41.4%가 '한다', 58.6%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목회자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응답률은 목회자 직분에서 가장 높고 그 외 직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음.

교인수별로는 1000명 이상의 교회에서 '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그림77] 출석 교회 목회자의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 설교 빈도 (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각 1000명, %)



## 14) 출석 교회 목회자의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 설교 내용 (개신교인 대상)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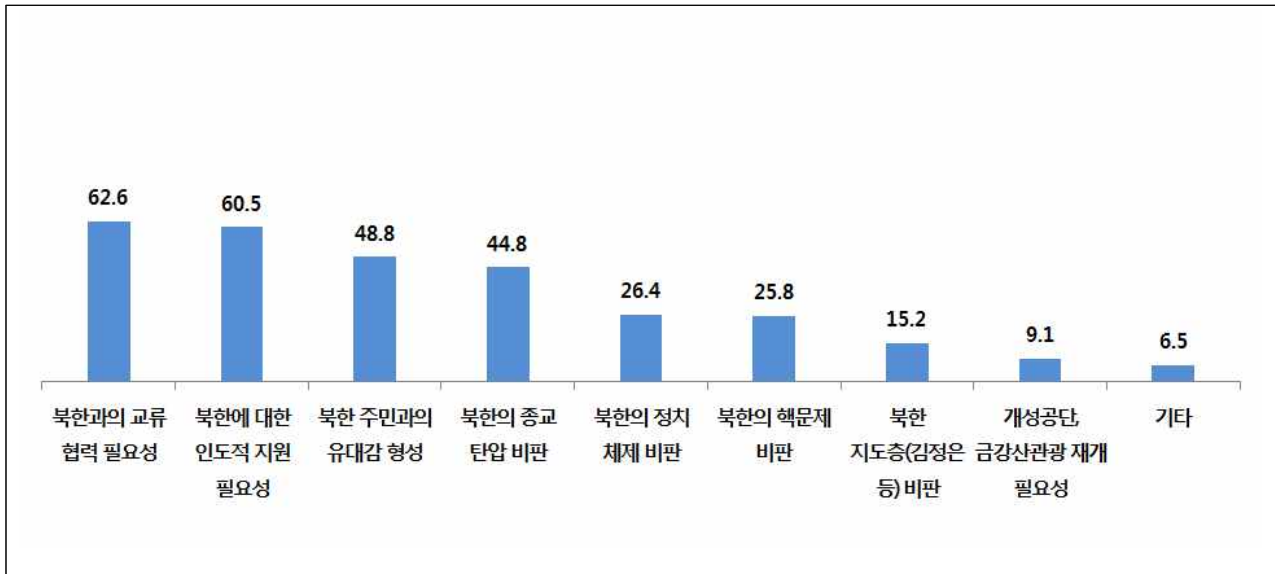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 목회자는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십니까? 가장 자주 설교하는 내용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출석 교회 목회자가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 설교를 '한다'고 응답한 자에게 그 내용을 물은 결과, '북한과의 교류 협력 필요성' 62.6%,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 60.5%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으로 조사됨. 한편 '북한의 종교 탄압 비판'(44.8%), '북한의 핵문제 비판'(25.8%), '북한 지도층 비판'(15.2%) 등 북한에 대한 비판적 설교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78] 출석 교회 목회자의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 설교 내용 (개신교인 대상)

(Base=통일/남북문제 관련 설교 '한다' 응답자, N=414명, %, 중복응답)



### 15) 기독교인이 통일에 대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생각 (개신교인 대상)

Q

귀하께서는 기독교인이 통일에 대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생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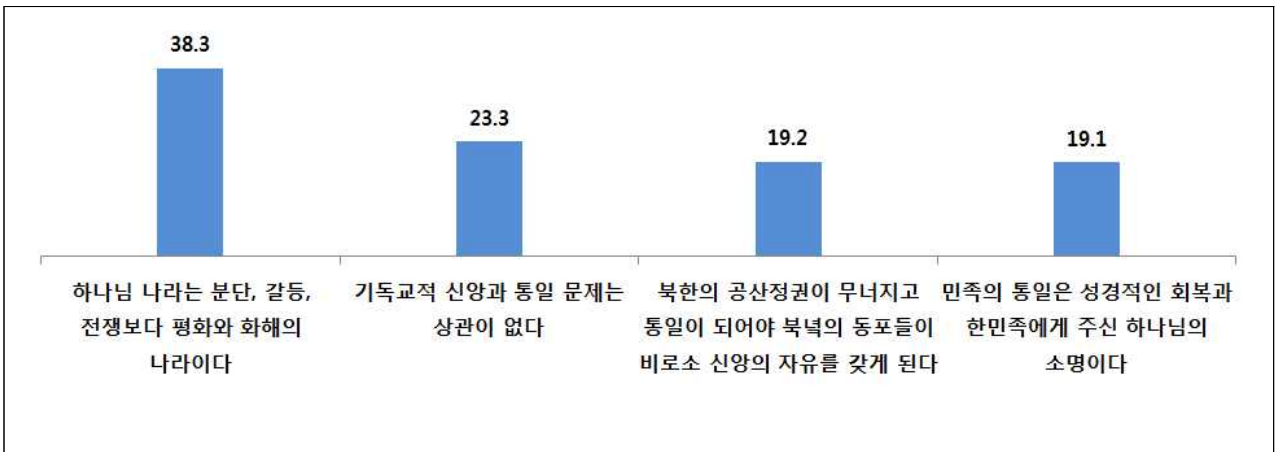
기독교인이 통일에 대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생각에 대해 38.3%의 개신교인이 '하나님 나라는 분단, 갈등, 전쟁보다 평화와 화해의 나라이다'라고 응답함.

'기독교적 신앙과 통일 문제는 상관이 없다'는 23.3%,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어야 북한의 동포들이 비로소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된다'는 19.2%, '민족의 통일은 성경적인 회복과 한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다'는 19.1%로 나타남.

'기독교적 신앙과 통일 문제는 상관이 없다'의 응답률은 연령과 직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그림79] 기독교인이 통일에 대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생각 (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각 1000명, %)



## 6. 교회 및 신앙관 분야

### 1) 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 입장에 대한 의견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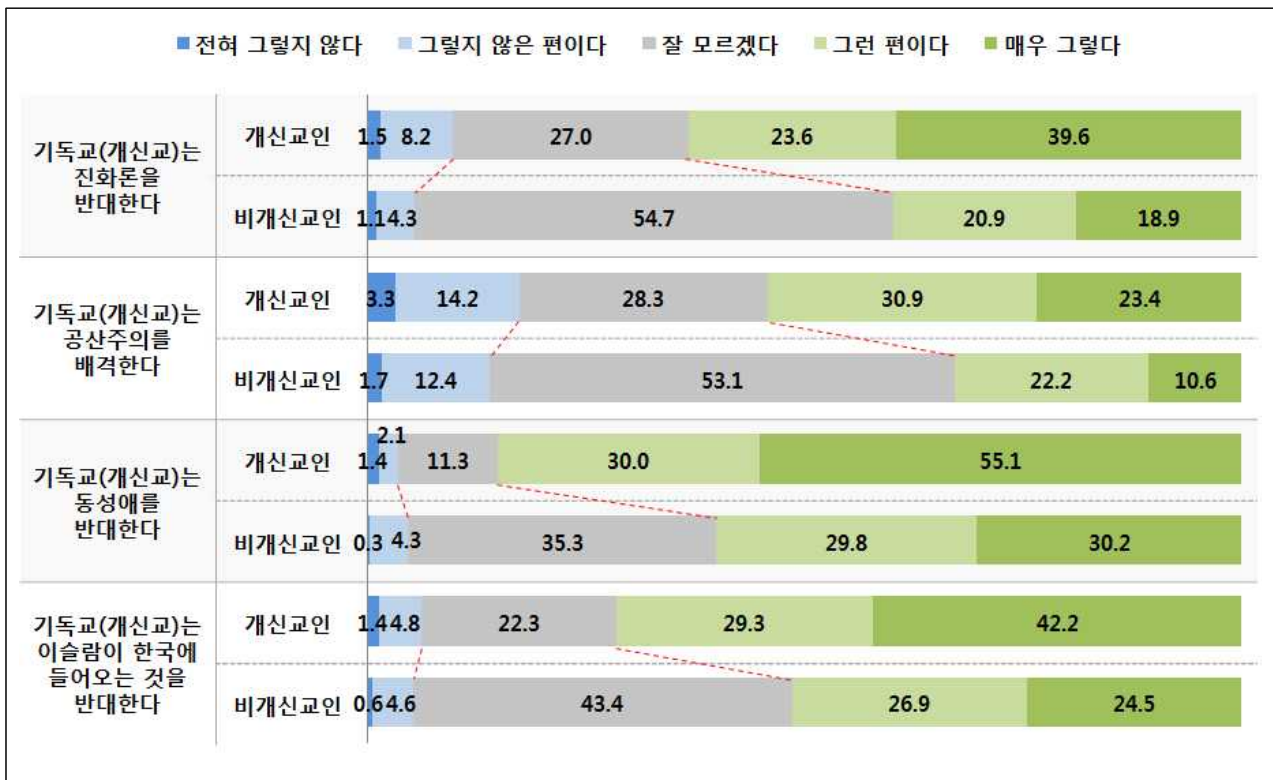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독교(개신교)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 입장에 대한 의견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개신교는 진화론을 반대한다'에 대한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비율은 개신교인 63.2%, 비개신교인 39.9%, '개신교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에 대한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비율은 개신교인 54.3%, 비개신교인 32.9%, '개신교는 동성애를 반대한다'에 대한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비율은 개신교인 85.1%, 비개신교인 60.1%, '개신교는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에 대한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비율은 개신교인 71.5%, 비개신교인 51.4%로 전 항목에 걸쳐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개신교 입장을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산주의 배격'에 대한 긍정률은 목회자에서 가장 높고, '동성애 반대'에 대한 긍정률은 목회자에서 가장 낮은 특징을 보임.

[그림80] 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 입장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 2) 각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Q

그렇다면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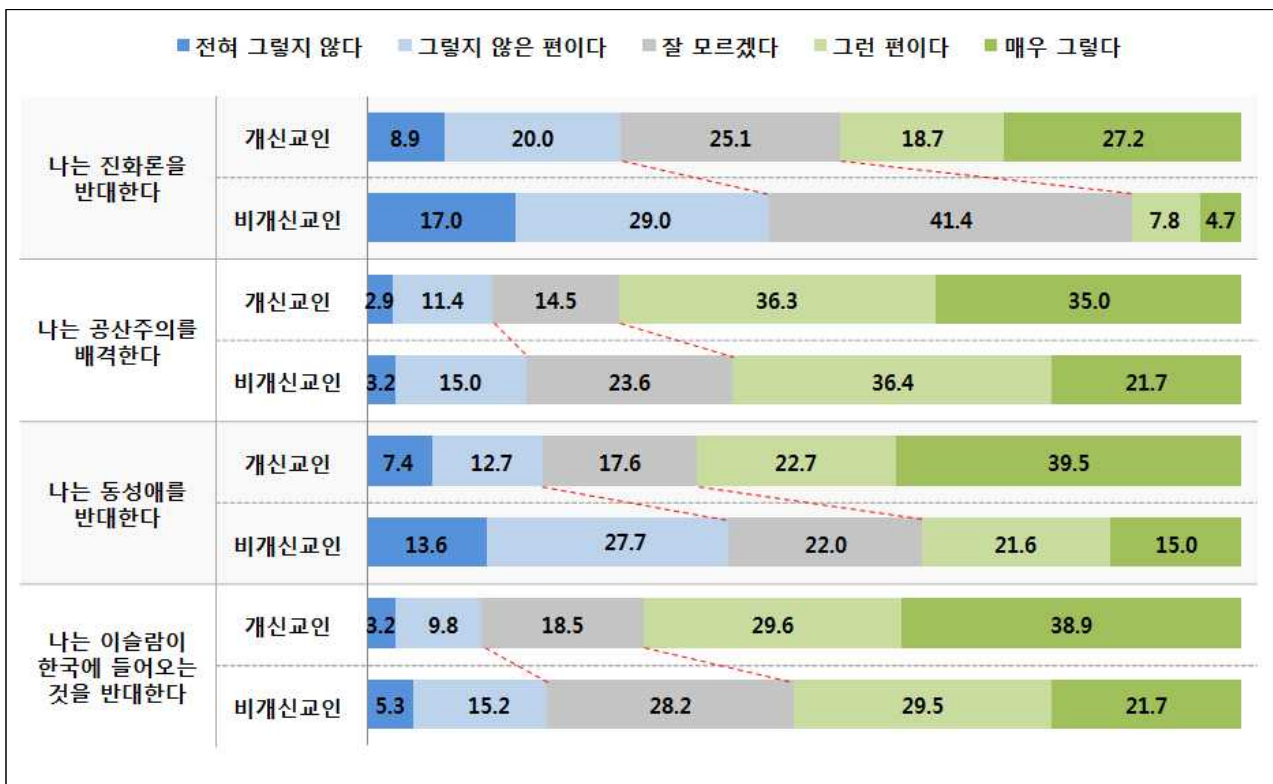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각 사회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입장은 어떤지 조사한 결과, '진화론 반대', '공산주의 배격',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의 모든 항목에서 개신교인의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응답률이 비개신교인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진화론 반대'에 대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입장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남. ('그렇다' 비율 : 개신교인 45.9%, 비개신교인 12.5%)

[그림81] 각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각 1000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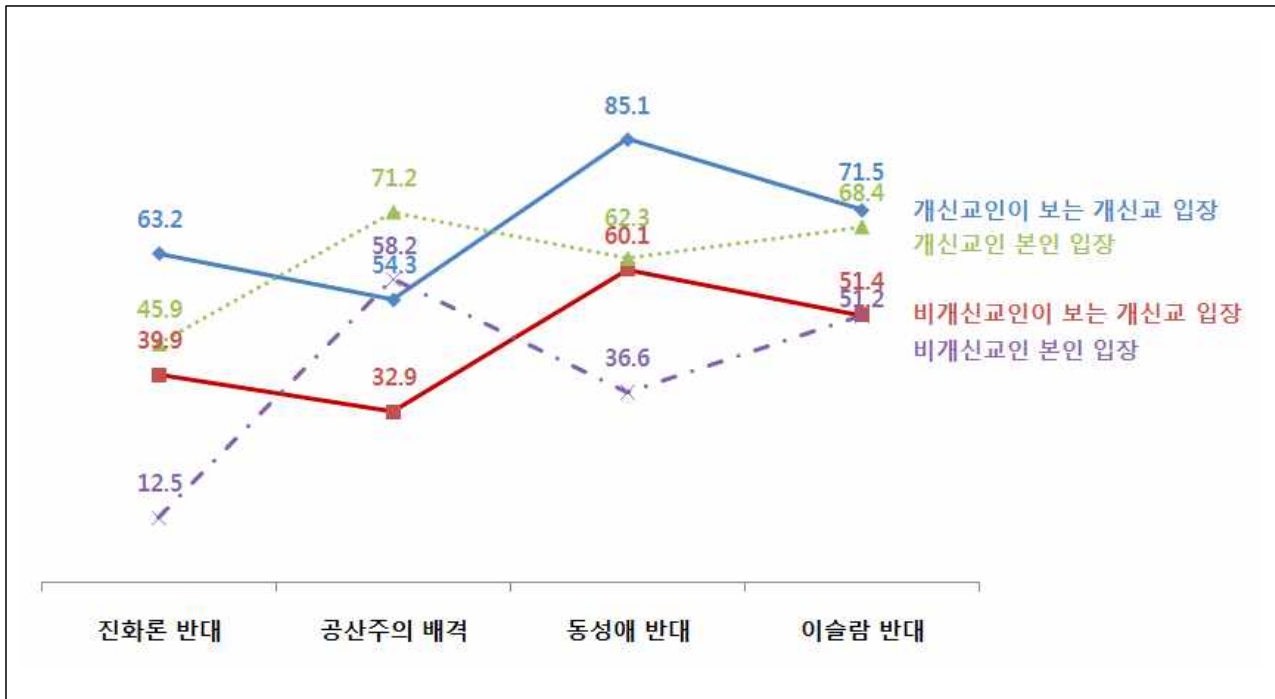




개신교인이 보는 개신교의 입장과 개신교인 본인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진화론 반대'와 '동성애 반대'는 개신교가 반대한다는 비율보다 나 자신이 반대하는 비율이 더 낮았으며, '공산주의 배격'은 개신교가 배격한다는 비율보다 나 자신이 배격한다는 비율이 더 높음. '이슬람 반대'에 대해서는 개신교 전체 입장과 내 입장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82] 각 사회 문제에 대한 개신교 입장/본인 입장 비교('그렇다'비율)

(Base=전체, N=각 1000명, %, 긍정률 기준)



### 3) 종교 관련 각 설명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Q

귀하께서는 종교에 대한 아래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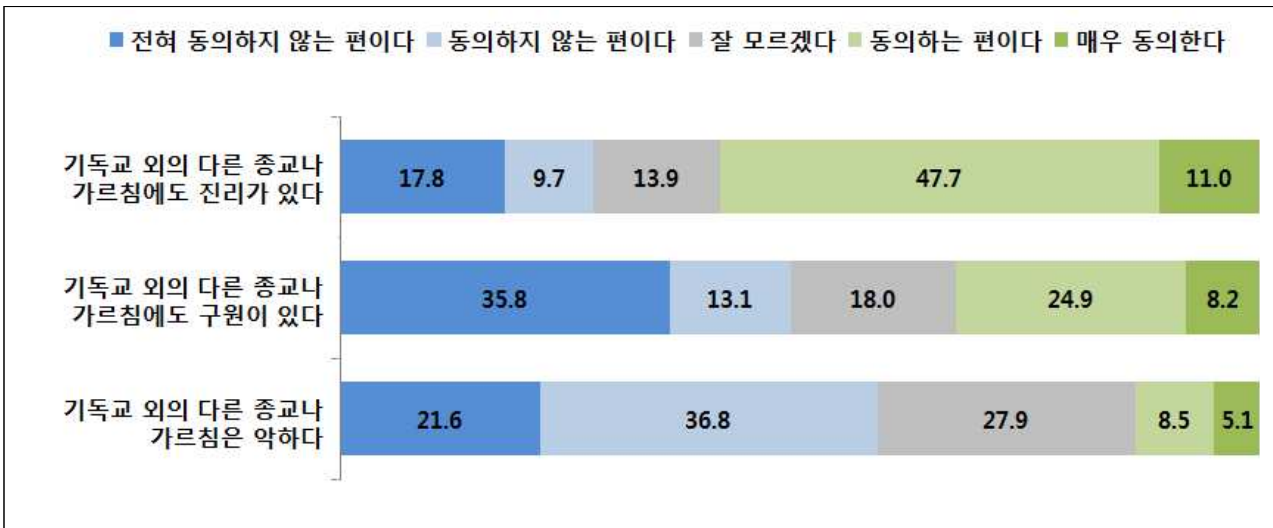


종교와 관련된 각 설명에 대한 개신교인 의견을 받아본 결과,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다'는 '그렇다'가 58.7%로 가장 높으나,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렇다'가 33.1%로 더 낮게 응답함. 또한,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나 가르침은 약하다'는 '그렇다'가 13.6%로 매우 낮게 나타남.

즉, 개신교인은 전반적으로,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긴 하나 구원이 없다고 생각함. 그렇다고 다 종교의 가르침이 약하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83] 종교 관련 각 설명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각 1000명, %)



#### 4) 개신교인 관련 각 설명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Q

귀하께서는 개신교에 대한 아래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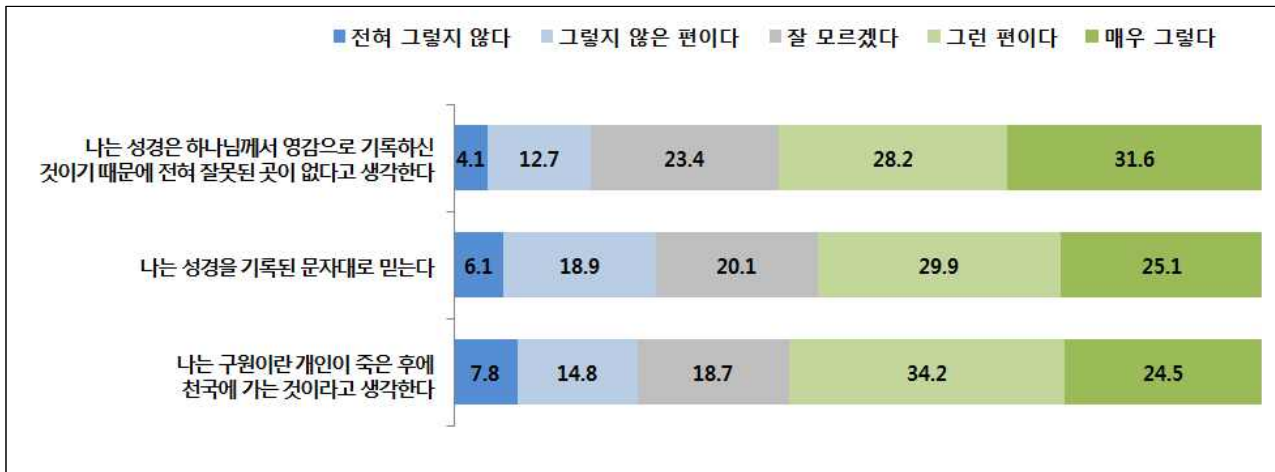
개신교인과 관련한 각 설명에 대해서는 '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긍정률(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이 59.8%, '나는 성경을 기록된 문자대로 믿는다'의 긍정률은 55.0%, '나는 구원이란 개인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의 긍정률은 58.7%로 나타남.

'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긍정률은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나는 성경을 기록된 문자대로 믿는다'에 대한 긍정률은 '중직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목회자에서 서리집사 이상 직분자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임. '나는 구원이란 개인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의 긍정률은 '서리집사/권찰'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84] 개신교인 관련 각 설명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대상)

(Base=전체, N=각 1000명, %)



## 부록 2. 설문지

---



## 한국인의 사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사회여론조사 전문회사인 지앤컴리서치는 <한국인의 사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오늘날 한국인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SQ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만 \_\_\_세

SQ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단수) P)쿼터표 참조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 제주

SQ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단수)

- ① 불교 ② 원불교 ③ 기독교(개신교/성공회 포함) ④ 기독교(가톨릭)  
⑤ 천도교 ⑥ 민간신앙(무속신앙) ⑦ 이슬람교 ⑧ 기타 ⑨ 종교 없음

SQ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농업/임업/어업
- 2) 자영업(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목공소 주인, 개인택시운전사 등)
- 3)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 4) 기능/숙련공(운전사, 선반, 목공 등 숙련공)
- 5) 일반작업직(토목 관계의 현장 작업, 청소, 수위 등)
- 6)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초.중.고 교사, 항해사 등)
- 7)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의 위치, 교장)
- 8)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인 등)
- 9) 전업주부 (주로 가사에만 종사하는 자)
- 10) 학생 11) 무직 12) 기타

## I. 자연환경과 기후변화에 관한 질문

문1-1부터 문1-9까지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에게 질문하시오

문1-1. 귀하께서는 환경 문제 및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단수)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④ 심각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문1-2. 환경 문제와 관련된 정보는 어떤 경로로 얻으시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 (R)

- ① 대중매체(신문, TV, 라디오 등)      ② 인터넷 포털(다음, 네이버 등)      ③ SNS  
④ 학교 등 교육기관      ⑤ 교육기관 외 공공기관      ⑥ 기업  
⑦ 자신이 속한 종교기관      ⑧ 주변사람들      ⑨ 시민단체  
⑩ 인터넷 언론      ⑪ 팟캐스트/유튜브      ⑫ 기타

문1-3. 다음 환경문제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세요.(필수순위응답)(R) 1위 \_\_\_\_\_ 2위 \_\_\_\_\_

- ① 미세먼지  
② 쓰레기 문제  
③ 지구온난화  
④ 생태계 파괴로 인한 동식물의 멸종  
⑤ 핵발전(원자력발전)으로 인한 방사능과 고전압 송전선의 위험  
⑥ 유전자 변형 식품 등 먹거리 문제

문1-4.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R)

- ① 인류가 멸망할 수 있으므로  
② 인간의 생활 환경이 악화되므로  
③ 신이 만든 세계를 보존하는 것은 인간의 사명이므로  
④ 인간도 자연 환경의 일부이므로  
⑤ 동식물이 멸종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므로  
⑥ 기타

문1-5.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필수순위응답) (R) 1위 \_\_\_\_\_ 2위 \_\_\_\_\_

- ① 핵에너지(원자력에너지)  
② 태양에너지  
③ 바이오에너지

- ④ 조력(밀물과 썰물) 또는 파력(파도) 에너지
- ⑤ 풍력 에너지
- ⑥ 지열 에너지
- ⑦ 기타

문1-6. 최근 들어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해수면 상승, 한파, 폭서, 쓰나미 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수)

- ① 기후변화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자연현상일 뿐이다
- ② 기후변화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탄소나 메탄 등이 지나치게 많아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 ③ 인간의 악행에 대한 신의 심판이다.
- ④ 모르겠다.

문1-7.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면 다소의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실천으로 옮길 의향이 있으신지요? (단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문1-8.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비용(세금, 정기적인 후원금 등)이 들어야 한다면 그 비용을 감당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단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문1-9. (문1-8번 문항에 ④와 ⑤로 답변한 경우) 최대 어느 정도의 비용까지 감당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단수)

- ① 한 달에 5천 원    ② 한 달에 1만 원    ③ 한 달에 2만 원    ④ 한 달에 3만 원
- ⑤ 한 달에 5만 원    ⑥ 기타 (한 달에    만 원) P)최소 1천원 ~ 최대 10만원

문1-10부터 문1-11까지는 개신교인에게만 질문하시오

문1-10. 교회가 지구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수) (R)

- ① 환경 교육 및 정보 제공    ② 환경단체 후원    ③ 에너지 절약 운동
- ④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    ⑤ 소비 절제 운동    ⑥ 기도    ⑦ 기타

문1-11. 그러면 귀하 교회에서 하시는 지구 환경과 관련된 활동은 무엇입니까? (복수) (R)

- ① 환경 교육 및 정보 제공    ② 환경단체 후원    ③ 에너지 절약 운동

- ④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      ⑤ 소비 절제 운동      ⑥ 기도      ⑦ 기타

## II. 정치 분야

문2-1부터 문2-13까지는 개신교과 비개신교인 모두에게 질문하시오

문2-1.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매우 보수   ② 약간 보수   ③ 중도   ④ 약간 진보   ⑤ 매우 진보

문2-2. 현행 헌법은 198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헌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단수)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문2-3. 개헌이 된다면 어떤 내용까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통치구조만 고쳐야 한다(원 포인트 개헌)  
② 통치구조 외에 기본권 등 다른 조항들도 함께 고쳐야 한다(포괄개헌)  
③ 관심없다/모르겠다

문2-4. 귀하께서 선호하는 통치구조는 무엇인가요? (단수) (R)

- ①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② 대통령 4년 중임제      ③ 분권형 대통령제  
④ 의원내각제      ⑤ 모르겠다

문2-5.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는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수) (R)

- ①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②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하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소선거구 하에서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③ 도농복합선거구제(농촌은 소선거구,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④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전국적으로 일치시키는 전국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⑤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현행)

문2-6. 2018년 3월 청와대는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단수)

- ① 적극 반대한다      ② 반대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④ 찬성하는 편이다      ⑤ 적극 찬성한다



문2-7.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찰개혁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뜨겁습니다. 쟁점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단수)

- ① 적극 반대한다    ② 반대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④ 찬성하는 편이다    ⑤ 적극 찬성한다

문2-8.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몇 명의 고위법관들이 부당한 재판개입과 재판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개입 및 재판거래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기존 재판부와 별도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거나 문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단수)

- ① 적극 반대한다    ② 반대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④ 찬성하는 편이다    ⑤ 적극 찬성한다

문2-9. 귀하는 난민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수)

- ①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보호해야 한다.  
② 임시로 보호한 후 다른 나라로 가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난민은 이슬람 등 불온한 문화를 전파하므로 임시 보호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2-10.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건국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과 3.1운동 직후에 설립된 임시정부수립일인 4월 11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쪽을 지지하시나요?(단수)

- ①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    ②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일

문2-11. 근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거나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 비난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5.18 왜곡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발언을 방지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단수)

- ① 적극 반대한다    ② 반대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④ 찬성하는 편이다    ⑤ 적극 찬성한다

문2-12. 지난 6월 30일 한국, 북한, 미국 세 국가의 대통령이 분단의 상징인 DMZ 판문점에서 만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 정치적 이벤트일 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2)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의한 행보이며 우리 정부가 맞장구 쳐준 셈이다.  
3) 지속적인 만남이 중요하며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4)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2-13. 귀하께서는 이번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1) 북한이 먼저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것이다.
- 2) 미국이 먼저 협상조건을 완화할 것이다.
- 3)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할 것이다
- 4) 남한정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5)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문2-14부터 문2-18까지는 개신교에게만 질문하시오

문2-14.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을 창당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적극 반대한다      ② 반대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 ④ 찬성하는 편이다      ⑤ 적극 찬성한다

문2-15. 귀하께서는 최근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②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잘 모르겠다
- ④ 동의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동의한다

문2-16. 귀하는 전광훈 목사의 최근 언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한국사회가 좌경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적극 지지한다.
- ② 일부 언행은 다소 지나치나 그의 주장들은 동의한다.
- ③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비칠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
- ④ 전광훈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기독교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문2-17. 귀하께서는 태극기부대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단수)

- ① 자주 참여 (5회이상)
- ② 몇 번 참여(5회 미만)
- ③ 한 번도 참여 한적 없다

문2-18. 태극기부대 집회에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약간 부정적이다      ③ 모르겠다
- ④ 약간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III 경제 분야**

문3-1부터 문3-14까지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에게 질문하시오

문3-1. 귀하께서는 다음 경제 분야 중 현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필수순위응답) (R)1순위 \_\_\_\_ 2순위 \_\_\_\_ 3순위 \_\_\_\_

- ① 경제 성장                      ② 경제 민주화                      ③ 분배 정의                      ④ 고용 보장
- ⑤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 ⑥ 4차 산업 혁명 분야 육성 ⑦ 대기업 규제 완화
- ⑧ 대기업 규제 강화              ⑨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⑩ 창업 촉진 정책              ⑪ 기타

문3-2. 귀하께서는 경제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단수)

- ① 경제 성장                      ② 분배                                      ③ 둘 다 중요하다

문3-3.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단수)

- ① 전혀 심하지 않다              ② 심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 ④ 심한 편이다                      ⑤ 매우 심하다

문3-4. (문3-3에서 4번과 5번 응답자에게만) 만약 빈부 격차 수준이 심하다면, 가난의 원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필수순위응답) (R)

1순위 \_\_\_\_ 2순위 \_\_\_\_ 3순위 \_\_\_\_

- ① 정부 정책의 실패                      ②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              ③ 부와 가난의 대물림
- ④ 낮은 수준의 교육과 문화              ⑤ 조세제도의 불평등                      ⑥ 사회복지제도 부족
- ⑦ 낮은 도덕성과 책임감              ⑧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 및 제도      ⑨ 유전적 요인
- ⑩ 개인의 자기 관리 부족              ⑪ 지능의 부족                              ⑫ 비정규직 양산                      ⑬ 기타

문3-5. (SQ5에서 1~9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현재 귀하의 노동 조건(근로시간, 급여, 휴가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단수)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문3-6. (SQ5에서 1~9번 응답자만) 귀하의 지난 주 총 노동시간(야근, 휴일 근무 포함)은 얼마입니까? (단수)

- ① 주 40시간 미만              ② 주 40시간 ~ 주 51시간              ③ 주 52시간 ~ 주 68시간              ④ 주 69시간 이상

문3-7. (SQ5에서 1~9번 응답자만) 귀하의 현재 노동시간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단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문3-8. 귀하께서는 노동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매우 비호감이다      ② 비호감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④ 호감이다      ⑤ 매우 호감이다

문3-9. 기본소득제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사회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3-10-1. (문3-9에서 1번 응답자만)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순위응답)(R)

1순위 \_\_\_\_ 2순위 \_\_\_\_

- ① 소득불평등 해소  
② 취약계층 생활보장  
③ 사회적 차별 해소  
④ 소비 증가와 내수 경제 활성화  
⑤ 노동문제 해결  
⑥ 복지 사각지대 해소  
⑦ 생계형 범죄 감소  
⑧ 국민 삶의 질 향상  
⑨ 기타

문3-10-2. (문3-9에서 2번 응답자만)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순위응답)(R)

1순위 \_\_\_\_ 2순위 \_\_\_\_

- ① 국민세금과 국가재정 부담 증가      ② 노동의욕 저하와 실업률 증가      ③ 사회복지 제도 축소  
④ 시장경제 훼손과 공산주의화      ⑤ 경기 침체와 경제성장률 감소      ⑥ 제도의 비현실성  
⑦ 자유주의 가치 훼손과 국민 노예화      ⑧ 개인의 책임성 저하      ⑨ 기타

문3-11. 경제시장에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수)

- ① 경제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②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③ 기업과의 합의를 통해 개입해야 한다
- ④ 전적으로 기업,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
- ⑤모르겠다

문3-12. 귀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②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 ④지지하는 편이다        ⑤ 매우 지지한다

문3-13. 2019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종교인 사례비에 대해 여타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종교인 과세는 해야 한다        ② 종교인 과세는 하지 않아야 한다

문3-14. 현재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②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 ④ 지지하는 편이다        ⑤ 매우 지지한다

문3-15부터 문3-18까지는 개신교인에게만 질문하시오

문3-15. 본인의 경제관에 있어서 기독교/교회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단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 ④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문3-16. 경제적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단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 ④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문3-17.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가르침이 빈부격차 해소와 공정한 부의 재분배 등 경제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단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 ④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문3-18. 귀하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행동(주식, 부동산 투자 등)이 성경 혹은 교회의 가르침과 충돌할 경우,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단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 ④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IV. 사회 문화 젠더 영역**

문4-1부터 문4-12까지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에게 질문하십시오

문4-1.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남녀 성 평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여성이 매우 더 차별받는다
- ②여성이 약간 더 차별받는다
- ③남녀가 평등하다
- ④남성이 약간 더 차별받는다
- ⑤남성이 매우 더 차별받는다

문4-2. 귀하께서는 현재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정 내 성 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R)

- ①남성과 여성은 태생부터 다르므로 성 평등은 있을 수 없다
- ②남성과 여성은 태생부터 다르지만 성 차별은 극복되어야 한다
- ③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은 의미 없으나 가정에서 성 평등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
- ④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은 의미 없으며 가정에서 성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⑤가정 내 성평등은 경제가 더 큰 원인이므로 경제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문4-3. 귀하께서는 여성의 낮은 고용률, 임금격차, 경력단절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 2가지만 중요한 순서대로 응답해 주세요. (필수순위응답) (R)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미디어, 교육을 통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개선
- ②가사노동 평등을 비롯한 가족구성원의 합의
- ③ 기업 및 조직 차원의 제도 마련
- ④ 시민단체, 여성단체의 캠페인과 교육활동
- ⑤ 정부 차원의 법 제정 및 정책 변화

문4-4. '낙태가 태아의 생명권을 뺏는 행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단수)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②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③보통이다/잘 모르겠다
- ④동의하는 편이다
- ⑤매우 동의한다

문4-5.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②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③보통이다/잘 모르겠다
- ④동의하는 편이다
- ⑤매우 동의한다

문4-6. '동성애는 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②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③보통이다/잘 모르겠다
- ④동의하는 편이다
- ⑤매우 동의한다

문4-7. 귀하가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필수순위응답) (R) 1순위 \_\_\_\_ 2순위 \_\_\_\_

- ①목회자 및 성직자
- ②종교의 경전(가르침)
- ③사회보편의 인식
- ④가족과 지인
- ⑤개인적 학습 및 탐구
- ⑥언론
- ⑦인터넷/SNS
- ⑧기타

문4-8. 학생인권조례/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어 동성애자가 많아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②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③보통이다/잘 모르겠다
- ④동의하는 편이다
- ⑤매우 동의한다

문4-9. 귀하와 가까운 지인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하면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단수)

- ① 전혀 변화없을 것이다
- ② 별로 변화없을 것이다
- ③ 모르겠다
- ④ 약간 변화할 것이다
- ⑤ 매우 변화할 것이다

문4-10. 귀하께서는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R)

- ① 그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한다.
- ② 그의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
- ③ 그를 이성애자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
- ④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4-11.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 혐오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R)

- ①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변화보다 사회적 인식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 ② 동성애자의 삶을 존중하지만 특별한 조치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 ③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 ④ 정책적 차원에서 차별금지 및 혐오반대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각자 의견에 따라 행동하게 한다

문4-12. (비개신교인) 귀하가 속한 단체/모임에서 성폭력 및 성추행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개신교인)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폭력 및 성추행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4-13으로 가시오
- ② 아니오 ☞ 문4-14로 가시오

문4-13. (비개신교인/SQ4에서 3번을 제외하고 응답한 분) 귀하가 속한 단체/모임에서 성폭력 및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단수) (R)

(개신교인/SQ4에서 3번 응답자만)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폭력 및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 했습니까? (단수) (R)

- ① 공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였다
- ②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였다
- ③ 주요 직책을 맡은 남성들이 중재하고 해결하였다
- ④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이야기가 없어졌다
- ⑤ 경찰서나 성폭력센터 같은 전문기관에서 해결하였다



문4-14부터 문4-15까지는 개신교인에게만 질문하십시오

문4-14. 귀하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는 설교에서 성이슈(성평등, 혼전 순결, 동성애 등)를 이야기 합니까? (단수)

- ① 자주 다룬다    ② 가끔 다룬다    ③ 거의 다루지 않는다    ④ 전혀 다루지 않는다

문4-15. 교회는 성 이슈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 이슈에 대해 보수적이라 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기독교의 전통적인 인식  
②성경의 가르침  
③목회자 설교  
④한국 교회의 전반적 분위기  
⑤기타

#### V. 통일/평화/동아시아 국제관계

문5-1부터 문5-12까지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에게 질문하십시오

문5-1. 귀하께서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 니까? (단수)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약간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문5-2. 통일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단수)(R)

- 1) 어떤 댓가(전쟁을 포함)를 치르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2) 전쟁을 제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  
3)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4) 통일을 하지 않은 현재 그대로가 좋다  
5) 통일에 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문5-3.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문제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한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필수순위응답) (R) 1순위 \_\_\_\_ 2순위 \_\_\_\_ 3순위 \_\_\_\_

- 1) 정기적인 남북회담    2) 군사적 긴장해소    3) 남한에서 미군 철수  
4)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5) 북한의 개방과 개혁    6) 북한의 인권 개선  
7) 북한 비핵화    8) 인도적 대북지원    9)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10) 남북한 경제협력    11) 평화협정 체결    12) 북미 정상회담

문5-4. 귀하께서는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R)

- 1) 같은 민족이니까
-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 3) 남북 간 전쟁위험을 줄이기 위해
- 4)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 5)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문5-5. 귀하께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체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R)

- 1) 남한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
- 2)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 3)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 4)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체제는 상관없다

문5-6. 최근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를 향해 개혁개방을 표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1) 현재의 국제 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위장된 행동이다
- 2) 북한 정권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문5-7. 귀하께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방안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단수)(R)

- 1) 한미 동맹 및 군사안보가 더 필요하다
- 2) 북한의 경제 제재가 더 필요하다
- 3)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한다
- 4) 핵무기는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

문5-8. 귀하께서는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1) 아주 잘못하고 있다
- 2)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잘하고 있는 편이다
- 5) 매우 잘하고 있다

문5-9.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현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 중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단수) (R)

- 1) 미국과 북한이 성공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야 한다
- 2) 미국과 북한과의 사이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 3)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4) 한반도 문제는 6자 회담(남과 북,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 5) 대화보다는, 한미 간의 튼튼한 동맹과 안보체제를 중심으로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

문5-10. 귀하께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단수)

- 1) 형제 2) 친구 혹은 이웃 3) 같은 시민 4) 외국인/이주민 5) 나와 상관없다

문5-11. 귀하께서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하여 얻습니까? 가장 자주 접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2순위 필수응답)(단수)(R)

- 1) TV 2) 일간지 3) 인터넷 뉴스 4) 카카오톡 5) 페이스북 6) 유튜브  
7) 기타 \_\_\_\_\_

문5-12. 귀하께서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데 어떤 경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단수)

	매우 영향을 미쳤다	약간 영향을 미쳤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 언론 보도	1	2	3	4
2) 인터넷/SNS	1	2	3	4
3) (P:개신교인에게만 질문/SQ4에서 3번 응답) 교회 설교	1	2	3	4

문5-13부터 문5-15까지는 개신교인에게만 질문하십시오

문5-13.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 목회자는 통일 및 남북문제에 관련한 설교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단수)

- 1)매우 자주 한다 2) 가끔 한다 3) 별로 하지 않는다 4) 거의 하지 않는다

문5-14. (문5-13에서 1번과 2번 응답자에게만)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 목회자는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십니까? 가장 자주 설교하는 내용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해 주세요.(필수순위응답) (R) 1순위 \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1)북한의 정치 체제 비판
- 2)북한 지도층(김정은 등) 비판
- 3)북한의 종교 탄압 비판
- 4)북한의 핵문제 비판
- 5)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
- 6)북한 주민과의 유대감 형성
- 7)북한과의 교류 협력 필요성

8)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

9)기타 \_\_\_\_\_

문5-15. 귀하께서는 기독교인이 통일에 대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생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1) 민족의 통일은 성경적인 회복과 한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다
- 2) 하나님 나라는 분단, 갈등, 전쟁보다 평화와 화해의 나라이다.
- 3)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어야 북녘의 동포들이 비로소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된다.
- 4) 기독교적 신앙과 통일 문제는 상관이 없다

**VI. 교회/신앙관에 대한 질문**

문6-1부터 문6-2번까지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에게 질문하시오

문6-1.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독교(개신교)**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잘 모르겠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기독교(개신교)는 진화론을 반대한다	1	2	3	4	5
2) 기독교(개신교)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	1	2	3	4	5
3) 기독교(개신교)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1	2	3	4	5
4) 기독교(개신교)는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1	2	3	4	5

문6-2. 그렇다면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잘 모르겠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화론을 반대한다	1	2	3	4	5
2) 나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	1	2	3	4	5
3)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1	2	3	4	5
4) 나는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1	2	3	4	5

문6-3부터 문6-4번까지는 개신교인에게만 질문하시오

문6-3. (개신교인만) 귀하께서는 종교에 대한 아래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 편 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 이다	잘 모르 겠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다	1	2	3	4	5
2)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구원이 있다	1	2	3	4	5
3)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나 가르침은 악하다	1	2	3	4	5

문6-4. (개신교인만) 귀하께서는 개신교에 대한 아래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 렇지 않 다	그렇지 않은 편 이다	잘 모르 겠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성경을 기록된 문자대로 믿는다	1	2	3	4	5
3) 나는 구원이란 개인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 이제 통계 분석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Q1부터 DQ5까지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에게 질문하시오

DQ1. 귀하는 결혼(사실혼 포함)을 하셨습니까? (단수)

- 1) 예                      2) 아니오                      3) 기타(이혼, 사별 등)

DQ2. (SQ5의 1번~8번 응답자) 귀하의 고용 형태는 무엇입니까? (단수)

- 1) 정규직                      2) 비정규직                      3) 개인사업

DQ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

-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교 재학/졸업 이상

DQ4. 실례지만 귀하의 월평균 가구 실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귀하의 구성원 모두의 수입 및 이자 수입, 연금 등을 포함한 전체 가구소득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수)

- 1) 150만원 미만      2) 15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6) 500~600만원 미만  
7) 600~700만원 미만      8) 700~800만원 미만      9) 800~900만원 미만  
10) 900~1000만원 미만      11) 1000만원 이상

DQ5. 실례지만 귀하의 자산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 (단수)

- 1) 1억원 미만      2) 1억~3억원 미만      3) 3억~5억원 미만  
4) 5억~7억원 미만      5) 7억~9억원 미만      6) 9억~11억원 미만  
7) 11억~13억원 미만      8) 13억원~15억원 미만      9) 15억원 이상

DQ6부터 DQ11까지는 개신교인에게만 질문하십시오

DQ6.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년 P)본인의 연령과 같거나 작은 숫자만 가능

DQ7. 귀하께서는 공식적인 예배(새벽기도 포함)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십니까?

- ① 일주일에 7회 이상      ② 일주일에 3~6회      ③ 일주일에 1~2회      ④ 한 달에 1~3회  
⑤ 6개월에 2~3회      ⑥ 1년에 1~2회      ⑦ 1년에 1회 미만      ⑧ 교회 안 나감

DQ8. 귀하께서는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신지요? (단수)

- ① 목사/신부      ② 전도사/강도사      ③ 장로      ④ 여자 권사      ⑤ 안수집사/남자 권사  
⑥ 서리 집사      ⑦ 권찰      ⑧ 직분 없음

DQ9. 귀하께서 현재 출석하고 계신 교회의 교파는 무엇인가요? (단수)

- 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②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③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④ 대한예수교 장로회(개혁)      ⑤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⑥ 대한예수교장로회(기타)  
⑦ 한국기독교 장로회      ⑧ 기독교 대한 감리회      ⑨ 대한 기독교 성결교회  
⑩ 기독교 한국 침례회      ⑪ 대한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순복음)      ⑫ 대한성공회  
⑬ 독립교단      ⑭ 기타      ⑮ 잘 모름

DQ10. 현재 출석하고 계신 교회의 성도 수는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단수)

- ① 30명 미만                      ② 30-49명                      ③ 50-99명                      ④ 100-299명  
 ⑤ 300-499명                      ⑥ 500-999명                      ⑦ 1,000-2,999명                      ⑧ 3,000명 이상

DQ11. 다음 항목은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계의 설명입니다. 귀하의 신앙은 다음 단계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단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에 대해 서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 며 그분을 할기 위 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 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 으로 충분하다. 그 나의 모든 일을 그 리스도를 드러낸다
신앙 정도	1	2	3	4

-감사합니다-